
산찾사의 해외 트래킹

산찾사.이용호

소개글

해외 트래킹&여행의 후일담.

목차

1	중국 황산 그거 별거 아니더라	4
2	산찾사 중국 황산을 다시 가다...	22
3	중국 곤유산 철차산 전편	112
4	중국 곤유산 철차산 후편	125
5	대원들은 다행 그러나 나에게 서운함을 안긴 일본 북알프스 종주 1편	136
6	대원들은 다행 그러나 나에게 서운함을 안긴 일본 북알프스 종주2편	191
7	대원들은 다행 그러나 나에게 서운함을 안긴 일본 북알프스 종주3편	298
8	대원들은 다행 그러나 나에게 서운함을 안긴 일본 북알프스 종주기 4편	372
9	일본 북알프스 종주기 1	418
10	일본 북알프스 종주기 2편	473
11	일본 북알프스 종주기 3편	580

산행일 : 2006년 11월01일(수요일)~11월 06일(월요일) 5박6일

산행지 : 중국 황산 서해 대협곡

누구랑 : 산찾사.초록앞새.너른숲.황금사과.거브기

(11월 1일 수요일)

황산은 대한항공 CF로 인해 그곳이 알려지면서

국내 산악인이라면 꼬옥 가고싶은 외국의 명산목록 1위를 차지한지 오래다.

많은이의 입소문과 다녀온이들의 산행기를 보면서 염원사항이 된 황산을 기획하며

함께할 산우를 물색하는 공지를 올리고 때를 기다린 결과 숲님부부와 거브기님이 나서줌에 차량1대로 평택항을 향해 출발하는 날은 날도 좋아 여행의 설레임에 가슴은 야릇한 흥분으로 두근댄다.

오후 4시 집결의 평택항을 향하는 도중

당일 일찍 조퇴하고 수원에서 평택으로 내려오는 숲님을 역에서 만나

함께 서해대교 아래에 자리한 평택항까지 이동하여 주차장에 나의 애마를 잠재우고

1층 대합실에서 이번 여행의 가이드를 만나 출국수속과 기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시간은 남아 지루하지만 지루함을 느낄수 없는것은 정겨운 산우님들이 곁에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출국수속과 검색대를 통과후

선내의 기실 자리배정을 받고도 1시간을 넘는 기다림 끝에

우리를 실은 육중한 황해페리가 서서히 어둠속에 깜박이는 서해대교 아치의 불빛을 뒤로하며

본격적인 이국을 향한 나의 첫 해외 여행이 시작된다.

(평택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며...)

나와 거브기님이 배정받은 8인실 2층 침대구조를 갖춘 선실은
좀 협소한 느낌이나 그런대로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 커튼과 배낭등을
수납할 공간까지 있어 코고는 동료만 없다면 숙면을 취할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침대에 배낭을 내려놓고 바로 옆방의 아내를 불러 너른숲님의 선실을 찾았다.
낮가림이 심하고 자리가 바뀌면 좀처럼 잠을 못이루는 황금사과님을 위해 너른숲님은
전 일정 모두 여행비를 추가 2인1실을 신청했는데 그곳을 가보니 원래 4인1실을 2인1실로
내준것으로
베란다까지 갖춘 호텔급 수준의 객실이 그냥 봐도 아늑함이 풍겨온다.
너른숲님 부부는 간이 침대 2개가 더 있으니 그냥 함께 자자 하여 염치불구 덕분에 편안한
밤을 보낸다.
방을 배정받고 나자 곧바로 석식이 제공되는데 4000원의 급식비치곤 국내의 어느 한식 부
페 못지 않는 식단이
제공됨에 배를 불린후 선실 이곳 저곳을 구경후 거브기님을 불러 함께 늦게까지 안전 무사
고 여행과 산행을
기원하는 조출한 우리들만의 술잔치로 밤은 깊어만 간다.

(서해대교의 야경)

11월 02일 (목요일)

이른아침 호텔같은 선실의 아늑한 침대를 벗어나
해풍이 스치는 망망대해의 어둠을 밝히는 선상일출을 보려 갑판으로 나선다.

동녘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수평선이 어느순간 짙은 안개에 그 빛을 잃어 버린다.
오늘 선상일출은 틀렸구나 생각에 서운함이 왈칵 밀려든 난 수평선의 안개를 뚫고
뒤늦게라도 떠오를 태양이라도 보려 자리를 지키는데 항상 바지런한 숲님은 그새를 못참고
선실의 샤워장을 찾은사이 어느순간 바닷물이 싹뻗것게 변하면서 아기햇살이 고개를 들더
니
순간 불쑥 불덩이 하나가 떠오른다.
고개만 이리저리 움직거리는 거브기 행님이 순간 거브기 답지 않는 날렵한 솜씨로
디카의 셔터를 눌러대는데 혼자보기 안타까워 선실로 뛰어들어 갑판으로 일행을 불러내나
샤워중인
숲님은 끝내 그 명장면은 놓치고 만다.

(선상 일출을 기다리며...)

(장엄한 선상일출)

여행사 기획상품인 이번 일정표의
일조항 도착이 아침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다되어 도착한다.
도착후 중국입국 수속을 위한 지루한 기다림끝에 선실을 벗어나 일조항을 나서는데
입국수속을 위한 항구로 이동시키는 버스가 우리나라 6~70년대의 아주 낡은 버스를 연상
시킨다.
선실 트랩을 내려서며 내려다본 일조항은 황량한 벌판에 낡은 건물들이 삭막함을 넘어 당혹
감을 일으켜
마치 수십년전의 궁핍했던 전후시대의 풍광이 아닌가란 ? 착각을 일게 만든다.
일조항에 마중온 현지 가이드를 만나
모든 일정을 함께할 33인승 버스를 타고 조선족이 운영한다는 한식당으로 향한다.

(일조항 전경)

(중국 일조항 입국장)

대구 소머리 국밥집이란 70년대식 간판의 한식 점심식사는
한인의 식성을 맞춘것 같은데도 왠지 뭔가 하나 빠진듯한 허전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시장이 반찬이라고 허기에 지친 주린배를 달래기엔 부족함이 없다.

식사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자

어찌 알았는지 중국인 현지 아줌마 둘이 자전거에 개복숭아 수준의 과일을 담아
팔고 있는데 모양도 그렇고 때깔도 좋지 않아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모두들 그냥 한번 만져보고 사려드는 사람이 없는중에 어느님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내밀자
두 아주머니 당혹스러워 하며 손사레를 치더니 둘이 아주 불쾌한 얼굴로 뭔가를 소근대며
다른곳으로
이동하며 몇번을 뒤돌아보며 뭐라뭐라 지껄여 댄다.

옆에 있는 현지 가이드에게 왜 그런가 사유를 물어보니
그 아주머니들이 감당할수 없는 고액이라 그런거란다.
그렇게 물러나는 아주머니를 쳐다보며 킬킬대는 그 사람을 보니
돈을 가지고 희롱한게 분명하다.
그깟 돈 몇푼가지고 그분들의 자존심을 흔들어 버린 그사람을 보니
은근히 분노가 치민다.
제발 외국에 나가 저런 유치한 짓거리로 국가위신을 추락 시키는 짓은 그만했습 하는 맘이
간절하다.

(현지의 과일 행상 아줌마)

중식후 바로 남경으로 이동한다.

33인승의 버스는 아주 협소하여 버스내 운신의 폭이 아주 작아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대지는 가도가도 끝이 없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풍경이 금방 사람을 질리게 한다.

가끔씩 나타나는 농가는 폐가처럼 보이는데 가이드말로는 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란단다.

남경까지 가는 도중 우리나라 휴게소 역할의 주유소를 石化(석화)라 하며 그곳에나 몸물을 빼낼 수 있는 화장실은 그 구조가 아주 사람을 난감하게 만든다.

그나마 옆으로 돌려 앉아 용무를 볼수 있는 구조는 괜찮은데 마주보게 만든 구조의 화장실은

아주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여간 유들유들한 인간이 아님 나오던것도 들어갈판이다.

(우리를 아주 난감하게 만든 화장실...남여 모두 같은 구조임)

(휴게소의 매점)

늦은밤 남경에 도착하여

석식을 한식으로 때운후 또다시 곧바로 무호로 이동한다.

이틀 꼬박 장거리 이동에 모두들 파김치가 되어 도착한 무호의 4성급 호텔은

다행히 그 시설이 아주 뛰어나 신혼 여행이후 처음 자보는 호텔이 가슴을 설레이게 하나 평소 차 멀미가 심한 울 마눌 완존 죽음직전이라 수습하는게 급선무다.

샤워후 숲님부부와 함께 5명이 마주 앉아 마시는 폭탄주 한잔이 그간의 피로를 달래준다.

맥주를 좋아하는 울 마눌 초록잎새는 연거퍼 들이 마시더니 콧 맥힌 가슴이 뚫린것 같다는 말에

오히려 내 가슴이 땡 뚫린듯 시원하다.

너무나 고된 일정에 지친 심신은 아늑한 시설의 호텔침대에 눕자마자 골아 떨어져 이른아침 서비스 콜 전화벨이 울릴때까지 그야말로 시체처럼 잠에 빠져든다.

11월 03일 (금요일)

새벽녘 호텔에서 제공한 도시락으로 아침식사후 황산시로 향한다.

무호시를 빠져 나가는 도로는 삼륜차 자전거 오토바이와 사람 심지어 짐승들까지 뒤섞여 건너고 오가는데 중앙선은 그냥 형식상의 줄을 그어 놓은것뿐 역주행의 차량들로 완존 사람 놀라 기절할 판인데 곡예운전의 운전기사는 반대편 역주행 차량이 오던 사람이 지나던

그저 클락션만 뱅뱅 울려대며 잘도 빠져나가는게 신기할뿐이다.

몇번의 위험스런 장면에 비명을 울려대자 가이드왈 중국은 무질서속에 질서가 유지되니 걱정말란다.

이른아침 출발후 점심시간에 도착한 북한직영의 한식당에서 점심식사후 본격적인 산행에 나선다.

(재치와 재담으로 엔돌핀 팍팍 솟게 만든 총각 가이드 장 철군)

(중국 황산 개념도)

황산은 중국의 華東(화동)지역 安徽省(안휘성) 제일 남쪽 끝 위치에 있으며 안휘성을 흘러가는 양자강 이남에 위치해 있다.

최고봉인 1864m의 연화봉을 중심으로 72개의 봉우리와 5만개의 돌계단으로 된 황산은 남쪽 남해, 북쪽 북해, 동쪽 동해, 서쪽을 서해라 부르며 가운데 분지형태를 천지라 부른다.

이산은 1990년 12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됐다.

황산은 명나라때 유명한 지리학자이며 여행가인 서 하객이 1616년과 1618년 두번 탐험후 중국의 오악을 보면<동악(태산:泰山),서악(화산:華山),북악(항산:恒山),남악(형산:衡山),중악(송산:嵩山)>

다른산은 볼 필요가 없는데 황산을 보고나면 오악도 필요없다란 극찬이후 등황산 천하무산이란 말이 생겼다.

황산의 4절은 기송 괴석 운해 온천을 말하는데 우리가 찾은날은 가이드도 감탄할 만큼 날이 좋아 황산 4절중 기송과 괴석을 맘껏 감상할수 있는 행운이 우릴 반겨준다.

원래 계획된 시각에서 많이 늦은 관계로

옥병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1668 M의 옥병루를 오른다.

옥병루의 명물 남근석과 수령 1000년이란 영객송 주위엔 온통 관광객으로 북적댄다.

한쪽팔을 벌려 어서웁셔란 모양이라는 영객송은 속리산 정이품송을 연상시킨다.

이곳 황산의 소나무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1000M 이상에서 서식하는 소나무는 황산송이고.

그 아래는 말의 꼬리를 닮은 소나무란 뜻의 마미송으로 구분된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자세히

살펴보나 내 눈에 그게 그것인 그저 우리 한국 어디에서든 볼수있는 소나무와 별반 다름없다.

옥병루 주위의 난간엔 열쇠가 주렁주렁 메달려 있는데 이곳에 열쇠를 잠그고 키를 벼랑아래 던져버리면 평생 그 인연을 끊을수 없다하여 연인들은 각자 자기 이름을 세겨넣은 열쇠를 하나 메달아 둔다.

옥병루에서 마주 보이는 기암괴석의 암봉은 이곳 황산의 천도봉으로 세번째 높은 봉우리로 1810 M 이다.

(자광각 입구)

(옥병 케이블카)

(황산을 녹일듯한 산상의 미녀)

(옥병루 가는길)

(남근석 뒤로 옥병봉)

(천년수령의 영객송 ...우측이 천도봉)

(헤어짐을 막아준다는 열쇠를 주렁주렁단 난간에서...)

옥병루를 뒤돌아 나와 돌계단을 하나 하나 밟아 오르다 보니 연화정이다.

연화정 오른쪽으론 황산 최고봉인 연화봉이 우뚝 솟아 있다.

1864 M 인 연화봉은 주위의 여러 암봉에 둘러쌓여 연꽃처럼 보인다 하여 얻은 이름이다.

연화봉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휴식년제로 오를수 없어 가파른 돌계단을 내려선후 못생긴 물고기란 뜻을 가진 오어봉(鰲魚峰)을 향해 한발 한발 오른다.

오어봉을 지나 해심정(海心亭)에서 서해대협곡으로 들어선다.

해발 1600m의 해심정에서 배운정(排雲亭)까지는 해발 600m 까지 내렸다

다시 1600m 까지 오름이 시작되는 서해 대협곡 종주는 힘든 체력을 요구한다.

신선이 되는 다리라는 멋진 이름의 보선교(步仙橋, bridge of Immortal)를 건너 기념사진 한장을 남기곤 뒤돌아 나와 다시 보선교를 건너 두번 신선이 되어 본다. 보선교를 지나면 바로 바위 동굴을 통과하며 비로소 본격적인 서해대협곡이 시작된다.

(맨 뒤의 봉우리가 두번째 높은 1680 M 의 광명정)

(서해 대협곡의 풍광들)

배운정에 도착할쯤

서쪽하늘엔 붉은노을이 하루를 마감하는 마지막 불꽃을 사르다 사라진다.

황산 서해 대협곡.....

이 등로를 개척하라는 등소평의 한마디에

90명의 인명이 죽어가며 굴을 뚫고 바위를 쪼아 길을 냈다는

조선족 가이드 장 철의 말에 사회주의 국가가 아님 도저히 이룰수 없는 대 역사임을 실감한다.

황산...

와서 보니 과연 중국이 자랑할만한 산이다.

그러나....

등황산 천하무산이란 말을 탄생시킨 명나라 지리학자이며 여행가인 서 하객이

우리의 설악산 한 자락을 밟아봤다면 그런 오만 방자한 말은 없었을것이란 생각이 든다.

처음부터 끝까지 산행내내 흙 한줌 밟아볼수 없는 황산은 인민의 피로 건설된 인공적인 등로다.

산행내내 설악에선 흔히 볼수있는 다람쥐 한마리, 나르는 새 하나, 아름다운 꽃한송이 볼수 없어

마치 암릉덩어리의 이 황산도 인공으로 건설된게 아닌가란 착각이 들게 만든 황산은
규모에 감탄은 나올지언정 산행의 감동이 나에겐 일지 않는다.

진정 내 가슴이 메마른 탓인가 ?????

우리의 설악 용아릉을 주파후

대평마루님의 일갈이 황산 열개를 다준다 해도

설악의 한자락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한 그 말씀이 와서 보니 알겠다.

아싸~

우리강산 좋을시구~

땅거미 짙게 깔리는 서해 대협곡을 뒤로 서해호텔로 들어선다.

서해 호텔의 맛깔스런 한식부페가 오랜만에 입맛을 돋군다.

배를 불린후 이번엔 아예 너른숲님의 방에 짐을 풀고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소주와 맥주로
한밤을 보낸후 달콤한 잠에 들며 하루를 마감한다.

(서해 대협곡의 일몰)

(서해호텔에서 두 부부)

11월 04일 (토요일)

이른 새벽

황산의 두번째봉인 1860 M 의 광명정 일출을 위해 헤드랜턴을 켜고 산행에 나섰다.

한밤중 하늘의 별빛보다 더 많은 불빛들의 꼬리가 길게 광명정까지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

진다.

광명정으로 향하는 도중

조선족 가이드가 모든이의 발목을 잡아놓고

어둠속에 형체만 알수 있는 거대한 소나무를 가르키며 저것이 단결송이라 일러준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민족수와 소나무 가짓수가 같아 한몸에 굳게 붙은 소나무 처럼

모든 민족이 단결하여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자는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지었다.

그놈들 참 이름도 잘도 갖다 붙인다.

그러면 그중 빼딱하고 비루먹은 가지는 분명 티벳의 가지인가 ?

혹여

새로운 가지가 생겨나면

동북아 공정의 일환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그놈들인지라 우리 민족도 포함시킬까 두렵다.

광명정의 일출은

장관을 연출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가이드는 일년 열두달 이런 일출은 세번 보기 힘들다 하니

우린 참으로 행운아다.

(광명정의 일출)

광명정의 일출후

일찍 하산을 원하는 일행은 먼저 내려 보낸후 비래석으로 향한다.

원래 일정은 이곳에서 조식후 비취계곡~광명정~북해경구~백아령~운곡사로 하산인데 가이드나 함께 산행하는 일원들은 산행을 이어갈 의사가 없어 보인다.

전체 54명의 인원중 불과 10여명만이 비래석으로 향한다.

마치 두손을 모아 합장을 하는것 같은 모양의 합장바위를 지나자

대한항공 CF로 황산을 알린 그 유명한 비래석이 우뚝 솟아있다.

비래석은 남자는 오른손, 여자는 왼손으로 세번을 만지며 돌게 되면 소원성취 한단다.

(비래석 전경)

(하산하며 바라본 광명정 풍광)

비래석을 뒤돌아 나와 광명정에서 후미를 기다리는데

사진찍기에 심취한 후미 둘이 뒤늦게 나타나 가이드와 함께 기다리는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

시간이 지체 되어 먼저 하산한 사람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백아봉은 생략하고 곧장 운곡사로 하산을 결정한

가이드의 일방적인 통보에 누구하나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 꿀먹은 벼어리 모양 나 혼자 애타는 가슴은

내 욕심만을 드러낼순 없어 내려서는 내내 미련이 남아 발길이 쉬 떨어지지 않는데 그나마 일행중 반은 개인당 만오천원의 비용을 부담하며 케이블카로 하산을 한다.

운곡사로 향하는 돌계단으로 향한다.

얼마쯤 내려서자 운곡사에서 올라서는 등산인들이 밀려들며 하산길이 복잡해 지는데 거기에 등짐을 지어 나르는 인부들도 끊임없이 올라서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마치 예전 우리 시골의 물지계를 지어 나르듯

대나무 양끝에 무거운 짐을 달아메고 정상에 향해 오르는 짐꾼들은

하나같이 가냘퍼 보이는 몸집에 비해 짙어진 무게는 그네들의 고단한 삶 만큼 무거워 보인다.

그네들의 모습을 담으려 카메라를 디밀자 손사레를 치며 돈을 요구하기에 그만 카메라를 돌린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말 멍청한 짓이 분명한 이 현상은 케이블카를 이용한 운송보다

그네들의 일거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일환으로 모든 운송수단은 짐꾼들에 의해 이뤄지도록 국가가 보장해준다니 이 또한 사회주의 국가만이 할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운곡사로 향한 내림길의 풍광들...)

(운곡사 입구)

운곡사까지 내림길의 주어진 2시간을 1시간만에 내려선후

모처럼 흠뻑 적신 뒤통을 갈아입고 비로소 아쉽지만 황산 산행을 마감한다.

후미일행이 모두 도착후 우리 교포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러 오랜만에 돼지 삼겹살로
아침인지 점심인지 헷갈리는 식사를 끝낸후 일정엔 나와 있지 않던 황산시의 실크공장 견학
후

발맛싸지 체험을 위한 일정에 든다.

별로 볼거리 없는 실크 공장견학후

발맛싸지 체험은 개인부담 3만냥을 요구한다.

뻥센 산행외엔 별 관심없는 우리 대전팀은 간단한 샤워후 황산시의 거리탐방에 나섰다.

이곳 저곳 거리를 다니는 사이 맛싸지를 받고 나온 일행을 기다렸다 한식당에 들러 늦은 점
심을 먹고

명조와 청조시대의 옛거리 탐방에 나섰다.

명청대 옛거리는 물고기 모양으로

약 1300M 의 주거리는 물고기 척추에 해당되고 수많은 골목은 물고기 가시부분에 해당된
다.

우리나라 인사동 거리를 연상시키는 주거리는 각종 문방사우를 비롯한 각종 진귀한 물건들
이 진열돼 있다.

(청조 시대 옛거리)

청조시대 옛거리를 탐방후

버스가 기다리는 황산시 신안강변으로 나오자

또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노을이 아름답다.

(신안 강변의 풍광들..)

모든 일정을 끝난후 내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머나먼 귀로에 접어든다.

빠듯한 일정에 모자란 잠과 힘든산행으로 피곤에 지친 몸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남경 호텔 숙소까지의 머나먼 여정은 올 대청호100 KM 울트라 마라톤 완주후에도 멀쩡한
체력을 과시한

너른숲님마저 K.O 를 당해 나가 떨어짐을 미뤄 짐작 하건데 하물며 연약한 두여인의 괴롭
은 뭇로 표현할까나...?

(피곤한 여정에 녹 다운된 너른숲님)

11월 05일 (일요일)

지겹도록 먼 귀로의 여정 끝에

그간 함께 숙식을 함께한 조선족 가이드 청년 강 철을 보냄이 서운해

환전한 중국돈으로 참깨와 서리태콩을 사고 남은 돈 100원을 쥐어주며 돌려보낸후

일조향을 빠져나가는 배에 오르자 벌써 고향에 다가간 느낌에 마음이 푸근해지며 놀놀해진다.

마지막 밤을 선상의 객실에서 무사산행과 고된일정을 소화해낸 우리팀의 자축을 위해

생맥주와 북어 쥐포 훈제 닭고기를 사다 펼쳐놓고 밤 이속해지도록 먹고 마시며 마지막 밤
을 보낸다.

(선상 일몰을 기다리며...)

(누가 더 멋진 일몰을 잡는지 두고 봄시당~)

(한쪽엔 지는 햇님이...)

(다른쪽엔 뜨는 달님이 우릴 반겨준다.)

11월 06일 (월요일)

서해 앞바다의 풍랑를 뚫고 정시에 평택항을 들어선 황해훼리는 그러나
거친 파도로 인해 접안을 못해 장장 3시간의 또다른 기다림 뒤 어렵게 어렵게
드디어 내나라 내 땅을 밟는다.

대전으로 향하는 귀로에
소고기 국밥으로 속을 달랜후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5박 6일 떠나온 우리의 산하는 가을의 정취 물씬 풍겨나는 텅구는 낙엽위로
늦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려 그 아름다움에 가슴이 먹먹해져온다.

산에서 건강을....산찾사

(중국을 여행하며 느낀 나의 생각)

중국이란 나라를 표현할때 흔히들 모든 중국인은

1. 죽을때까지 자기 나라글인 한자를 모두 알수 없으며
2. 자국의 모든 요리를 모두 맛볼수 없고
3. 저희가 태어난 조국의 전국을 모두 가볼수 없다. 라고 말한다.

그만큼 중국은 거대한 나라임이 분명하다.

중국 대륙의 일부를 몇일간 돌아본 내 느낌은
 비록 우리의 6~70년대를 느끼게 만드는 농촌과 도심의 빈곤이 눈에 보이나
 거대한 용이 비상을 위해 꿈틀대는 느낌을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운송 차량에서 느꼈다.
 자가용과 대중교통이 대다수를 채우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비해
 엄청난 양의 화물운송 차량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중국은 분명 시들해져 가는 미국을 대신할
 경제대국으로 성장할게 분명하다.
 흔히들 우린 중국을 얹잡아 보고 무시하려는 경향을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눈빛을 통해 강하게 느꼈다.
 비록 현재 그들이 빈곤하다 하나
 한밤중 아파트의 불빛하나 새어나오지 않을만큼 검약한 그들에게
 언제라도 우린 추월당할수 있는 존재다.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나라의 부강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이 이번 여행의 일깨워줌이다.
 東北工程 의 일환으로 역사까지 왜곡하는 저들의 음흉함에 경제적인 힘이 가세한다면
 일본이 철도부설권과 탄광개발의 이권을 위해 우리의 땅 간도를 청나라에 넘긴
 간도협약의 무효성을 고려하여 되찾아야할 우리의 권리는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 땅 전체까
 지
 넘볼 나라임을 염두에 둬야할것이다.
 모건 스탠리의 앤디 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한국이 4~5년 안에 성장 엔진을 못 키우면 중국의 일개 邊方(변방) 역할을 하거나
 필리핀 수준의 貧國(빈국) 으로 추락할것이다 라고 말했다.
 정치 경제 군사적인 영향권에 대등한 관계를 위해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함으로 여행객들은
 단지 못산다는것 하나로 그네들의 자존심에 상처받는 행동을 자제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이글을 쓴다.

산행지 : 중국 황산

산행일 : 2008년 5월08일(목)~12일(월)

누구랑 : 나홀로...주관사 AM 트레킹과 함께.

(이동경로)

5월 08일 목요일

-대전출발 KTX 18:41 - 광명역 19:24착.

-광명역 604-1 리무진 버스 19:45발 - 인천공항 21:40 착.

5월 09일 금요일

-MU 2060 인천공항 0:05 발 - 중국 합비 공항 02:15 (현지시각 01:15) 착.

-합비공항 출발 03:00 - 중진 홀리데인 호텔 03:25착.

-홀리데인 호텔 09:30 출발 - 포공사 09:50착.

-포공사 10:30발 - 삼하고진 11:25착.관광후 삼하고진 식당 중식.

-삼하고진 13:47발 - 청대 옛거리 17:20착. 관광후 진달래 한식당 중식.

-진달래 식당 19:00발 - 화상산장 19:30 착.

5월 10일 토요일

-화상산장 조식후 07:20발 - 황산 대문 09:00착.

-밀려든 인파로 인해 케이블카 매표소 입구 11:40착 - 옥병루 중식후 천도봉 생략 13:20 발

-해심정 15:00 - 보선교 - 배운정 - 서해호텔 18:20착.

5월 11일 일요일

- 서해호텔 04:30 기상 - 청량대 일출 감상 - 몽필생화-시신봉 등정
- 서해호텔 조식후 08:10 발 - 비래석 경유 광명정 09:20착 -09:45 발.
- 운곡사 11:40 하산완료 - 셔틀버스 11:50 승차 - 해금강 식당 12:30착.
- 해금강 식당 13:15 발 - 황산시 실크공장 - 서커스 관람 - 전신 맛사지 - 한식당 석식후 - 화상산장 도착.

5월 12일 월요일

- 화상산장 07:00 조식후 자유시간.....취주 문화원 개인적으로 관람.
- 화상산장 09:30 발 - 잠구민택 09:50착 - 10:30 관람.
- 귀로에 라텍스 견학후 중식 합비공항 17:50착.
- 합비공항 19:30발(우리시각 20:30) - 인천공항 22:20.

(황산 개념도)

황산, 서해대협곡 트레킹 개념도



-첫날 2008년 5월 08일-

한달전 KM 트레킹 이팀장님의 손폰이 올린다.
중국 황산 트레킹을 위해 합비 전세기를 띄우는데
시간 좀 내서 함께 가실 수 없냐란 요청이다.

안되긴 왜 안돼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구만~.....

중국을 향하는 날
좀 이른 저녁을 먹고 KTX로 40여분만에 땀하니
광명역사 6번 출구에서 인천공항 행 리무진 버스를 기다린다.
그런데....
예정시각 5분이 넘도록 버스가 오지 않아
버스회사에 확인전화를 넣어보나 불통이다.
안절부절 조마조마한 마음에 다른 교통편을 알아 보기 직전
쭉쭉빵빵 잘빠진 리무진 버스가 그제야 도착한다.

최신식 리무진 버스안은 나홀로다.
광명역을 떠난 버스는 그러나 완존 거북이 운행으로
1시간 거리를 2시간이나 넘겨 겨우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유가
한국의 모든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효자 효부이기 때문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한 나드리를 나선통에
도심의 거리는 명절 연휴 귀성객을 연상케한다.

어버이날

그런거 다 무시하고 떠나는 난 완존 무지막지한 불효자다.

그래 그런가 대한민국 유일의 불효자 한명만 실은 리무진 버스는

인천공항까지 도착 할 동안 동승 인원 하나 없어 결국은 내가 8000원에 리무진 버스를 전 세낸 꼴이다.

(출국수속으로 바쁜 이팀장님)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로 출국하려는 사람들로 인천공항은 북적댄다.

나만 불효자인것 같아 불편했던 마음이 저들을 보자 진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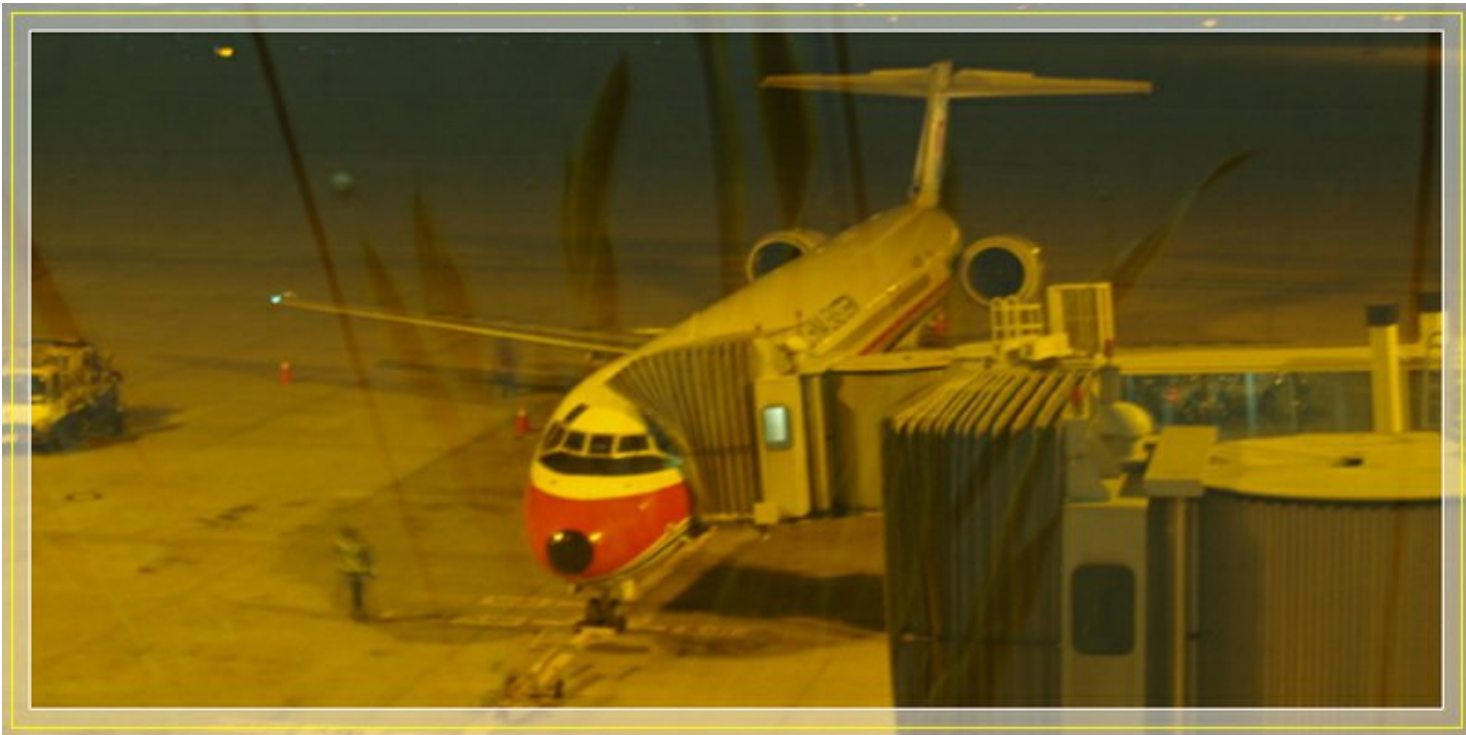
ㅋㅋㅋㅋㅋ

혼잡스런 여행객틈에서 단체출국 수속을 위해 분주한 이팀장님이

나를 보며 왜 이제야 오냐며 반갑게 맞아준다.

단체비자를 낸 관계로 여권순서대로 줄을 세워 검색대를 빠져 나온 이후에야 겨우 한시름 놓는다.

(우리를 실고 갈 중국 민항기가 짐을 싣고 있다)



검색대를 빠져 나온 이후
출항까지 더디게 시간이 흐른다.
이국을 향한 여행의 설레임으로 흥분된 마음이 진정될 즈음
출구가 열리며 탑승이 허용된다.

비즈니스석에 이팀장과 나란히 앉자마자
기체는 한겨울 오쭈를 갈긴후 부르르 몸을 떨 듯
한차례의 요동뒤 인천항의 불빛 찬란함을 뒤로 어느새 깜깜한 어둠속 하늘을 날고 있다.

이쁘장한 이국의 스텔어디스가 가져다 준
기내식으로 요기후 가볍게 맥주를 따라 마시며 이팀장님과 정담을 나누다
설핏 잠이 들었나 싶은데 벌써 합비 공항에 도착한다.

오늘 도착한 합비(HEFEI)는 안휘성의 성도다.

안휘성은 좌측에 하남성.호북성 아래로 강서성.절강성과 접하고 있으며
안휘성 을 가로질러 장강(양자강)이 흐르는데 황산시는 강남에 속한다.

합비공항은 주로 국내항으로 이용 돼 왔단다.

그래 그런지 한꺼번에 밀려든 외국 손님들을 맞은

검색대 요원들이 버벅대어 한밤의 휴식시간을 잡아 먹는다.

그러나 한국과의 시차로 인한 덤으로 생긴 1시간의 여유가 한밤을 늘려줘 참으로 반갑다.

합비공항을 빠져 나와

중진 홀리데인 호텔을 찾아가는 밤거리는

추적추적 내리는 밤비가 습한 공기와 함께 첫발을 내딛는 이방인을 맞아준다.

-두째날 2008년 5월 10일 금요일-

피곤에 밀려 잠든 새벽녘

호텔의 폰콜에 몇십톤의 무게로 짓누르는

눈썹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이국의 첫 일정에 든다.

호텔 조식후 첫 나들이길은 전날부터 내린 비가 이슬비 되어

달리는 버스 차창을 타고 흘러 내리고 있다.

첫 일정은 합비시 소재 포공사(包公祠)다.

포공사는 판관 포청천으로 유명한 북송대 부패 척결관리였던

포효숙공을 기리는 사당인데 별이 4개나 되는 관광지다.

몇해전 한국 드라마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그모습 그대로 밀랍 인형으로 재현된 세트장과 유물전시장

그리고 포효숙공의 가계도가 전부인 이곳은 그런 전시물보단 그 건물을 둘러싼 수목과 어우러진 호수등 주위의 경관에 더 관심이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드라마에서 보던 포청천 주인공의

시커먼스 얼굴이 초상화에선 허여멀건 나약한 선비 모습이다.

전시된 유물중 신분에 따라 죄인의 목을 잘랐다는 용,범,개작두가 이채롭다.

만약 현세의 우리나라에 포청천이 있어 저걸로 죄인들 목을 자른다면 아마도 귀족용인 범작두는

이빨이 나가 써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사용될거란 생각이 들어 씁쓸한 기분이다.

(실제의 포효숙공 초상화)



(죄인 단죄용 신분별 작두)





포공사를 뒤로
두번째 일정이 잡혀있는 삼하로 이동한다.

고진삼하(古鎭三河).....

고진이란 오래된 거리이고

삼하란 3개의 물길이 합해지는 곳이란 뜻이다.

2800년전 조성된 거리인데

예전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채 그곳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곳을 관광하기 위해선 따로 이곳 현지 가이드가 있어야 된단다.

중국 가이드가 있는데 쓸잘데기 없이 또 가이드를 써야 한다니

외국인 호주머니를 털려는 벼라별 수작이 다 동원 된다.

현지 가이드론 촌티 폴폴나는 아가씨가 나왔는데

어찌나 목소리가 괄괄한지 옆에 서면 귀가 따갑다.

연신 쌀라~쌀라~ 쏟아내는 그녀의 설명을 우리의 현지 가이드가

다 소화해 내어 통역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녀가 얼마디 정도 지껄인것 같은데 우리 가이드는 단 두어 마디로 끝인걸 보든.....

삼하 입구의 망월교를 건너면 망월탑이 맞이한다.

망월교 아래 하천은 쪽배를 타는 코스다.

쪽배를 타기 위해 걷는 옛거리엔 그곳 주민들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곳은 관광의 때가 덜 묻은 듯

그악스럽게 싸다 싸다 천원 천원을 외치는 상인들을 볼수 없는 대신

단체로 돌아 다니는 우리를 말그림히 쳐다보며 수줍게 웃는 원주민이 대 다수다.

골목 골목 건축물의 지붕 꼭대기는 특유의 건축양식인 듯

말 형상의 조형물이 언처 있는게 특색이다.

쪽배의 사공은 여인이다.

아직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듯

배시시 쪼개는 그녀의 미소엔 순수함이 그득하다.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쪽배를 젓는 여인이 힘에 부쳐
숨이 가파오고 볼이 발그레 물들 짙 도착한 선착장에서 처음 왔던길
되돌아 걸어 내려가 삼하고진 입구 옆에 위치한 삼하 대반점에서 중식후
다음 일정을 향한 머나먼 황산시로 여정을 이어간다.

(삼하고진 입구 표지석)



(삼하고진 현지 가이드)



(삼하고진의 옛모습 그대로인 거리)



(삼하고진 특징인 지붕의 건축양식)





(삼하고진 옛거리에 있는 구멍가게)



(망월교와 망월탑)





(미소가 아름답고 순수해 보이는 처녀사공)



(삼하고진 현지 식당)



(현지식으로 나온 음식)



약 3시간 30여분을 달려 명청대 옛거리에 들어선다.

11~13세기 송나라때 전통적 상가 형태를 보전하고 있는 옛거리는
약 1300M 주거리가 물고기의 척추에 그리고 수많은 골목은 가시부분에
해당되는 지리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노가라는 패방의 대문을 들어서면
왼쪽엔 文房四友 및 그림 글씨를 판매하고
오른쪽은 각종 한약재와 생활도구를 취급하는 상가다.
걸 ㄱ기식 그냥 슬쩍 둘러보는 것으로 마지막 일정을 끝내고
신안강변으로 나오자 뱃속이 출출해지는 저녁무렵이다.

자리를 옮겨
황산시내의 한식당에서 주린배를 채우는데
예전과 달리 서비스의 수준이 많이 낮아짐을 느낀다.
전엔 셋팅된 음식을 다 먹고 원하면 추가로 나왔는데 지금은 어림없는 소리다.

이것 좀 더 달라고 하자 여종원이 딱 잘라 한 한마디가
"이거 없어" 다...

고년

하늘같은 고객에게 반말이니
한국말을 배워도 싸가지 없게 배웠다. 뉘가 가르킨겨~?

갈수록

돈에 맛을 들린 뻘질이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추가되는 음식은 돈을 줘야 하고 후식으로 제공되던 커피는
벼름박에다 큼직막한 한글로 써진 글귀로 웃기지 마라고 쓰여있다.
빼뿔 빼뿔 쓰여진 글귀는 간단명료한 한 문장으로 아래와 같다.

커피 2잔 천원

니미럴~!!!

젊잖고 교양있는 뽕따귀 양반가문 자손의 입에서 그여 욕이 나온다.
그깃 인스턴트 봉지 커피두잔에 천원이 말이 되냐 말이다.
그것두 한잔은 안 팔고 꼭 두잔여야 한다.
물가가 장난이 아닌 한국의 자판기 커피보다 비싸다.
식후엔 반드시 커피를 마셔야 하는 난 드러워서 꼭 참았다.
돈 천원이 아까운게 아니라 그네들의 상술이 괴씸해서.....

(명청대 옛거리의 풍광)



(신안강변의 전경)



저녁식사후

이승해진 황산시의 밤거리를 벗어나 화상산장에 여장을 풀었다.

별 다섯개의 고급호텔로 지어진 이곳은 황산시의 외곽이라 손님이 뜸해
별 네개의 숙박값을 받고 운영한단다.

함께 투숙 예정인 이팀장님은

전세기를 띄우며 각 여행사에 배정한 팀들이 원활하게

일정이 진행 되는지 점검등 바쁜업무로 오늘밤도 들어오지 못하는것 같다.

2인1실 커다란 객실에 나홀로 홀라당 벗어 제키고 가져온 씨주 한잔을 따라 마시니

보리밭 옆만 스쳐도 비틀대는 난 어느덧 고쿠라저 숙면에 들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오직 한생각만은 떠나질 않는다.

이틀 연속 오락가락 하는 비가 내일은 그쳐야 하는데.....

(화상산장 숙소)



-세째날 5월 10일 토요일-

초저녁 잠든 나를 깨운건 한밤의 소란함이다.

한국사람 외국 나들이 나오면 꼭 고쳐야 할 습성을 또 본다.
호텔이 떠나가라 외쳐대는 소리는 술을 먹으며 외치는 위하여~란 굉음.....

새벽 2시를 넘겨
3시가 다 되도록 이어지던 광란의 술파티가
잠잠해질 즈음엔 이미 잠이 다 달아나 버린 후이다.

뜯눈으로 지새다 설핏 잠든 날 다시 깨운건
새벽의 어둠을 밀어내는 새들의 지저김이다.
내 조국 한국이나 이국만리 타향 중국이나 새들은 한결같이 부지런하다.
청아한 새들의 노랫소리에 슬며시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지난밤 술꾼들이 그렇게 목청 찌저지게 위하여를 부르짖어 그랬나
습한 공기가 물러가고 산뜻하고 신선한 공기가 내 폐부 깊숙이 찾아들며
흐리멍텅한 의식을 일깨워 놓는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일기 청명하다.
오~예~!!!! 땡호아~!
거참~!!
위하여~ 할만 하넹~...

1호차를 인솔하기로 한 이팀장님이
내가 담당한 2호차로 건너와 함께 황산 풍경구로 이동했다.
자연스레 황산 산행을 같이 하게 됐다.

호텔을 떠난 우리 버스가 갑자기 지체된다.
앞을 보니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들었다.
순간 어느 누가 외친다.

"고개 돌려 보지 마~"

맨앞 좌석에 중국 조선족 가이드와 함께 앉은 난
직빵으로 참혹한 사고 현장을 그대로 목격했다.

나브러진 오토바이 옆으로 검은 아스팔트를 적신 핏물과 함께
허연 뇌수가 터져 그대로 즉사한 현장엔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네들의 늙은 부모가 보인다.

중국의 교통질서는 한마디로 개판이다.

무질서속에 그네들의 독특한 방식이 있어 교통사고율은
우리보다 낮다고는 하는데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보니 뭘 헛소리냐 란 생각이다.

오늘 첫 산행을 나서는 아침부터

이런 현장을 보니 찝찝한 생각이 들어 오늘 산행은 특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광각 입구)



화상 산장을 떠나 2시간 40분만에 도착한

자광각은 수많은 인파로 혼잡스럼의 극을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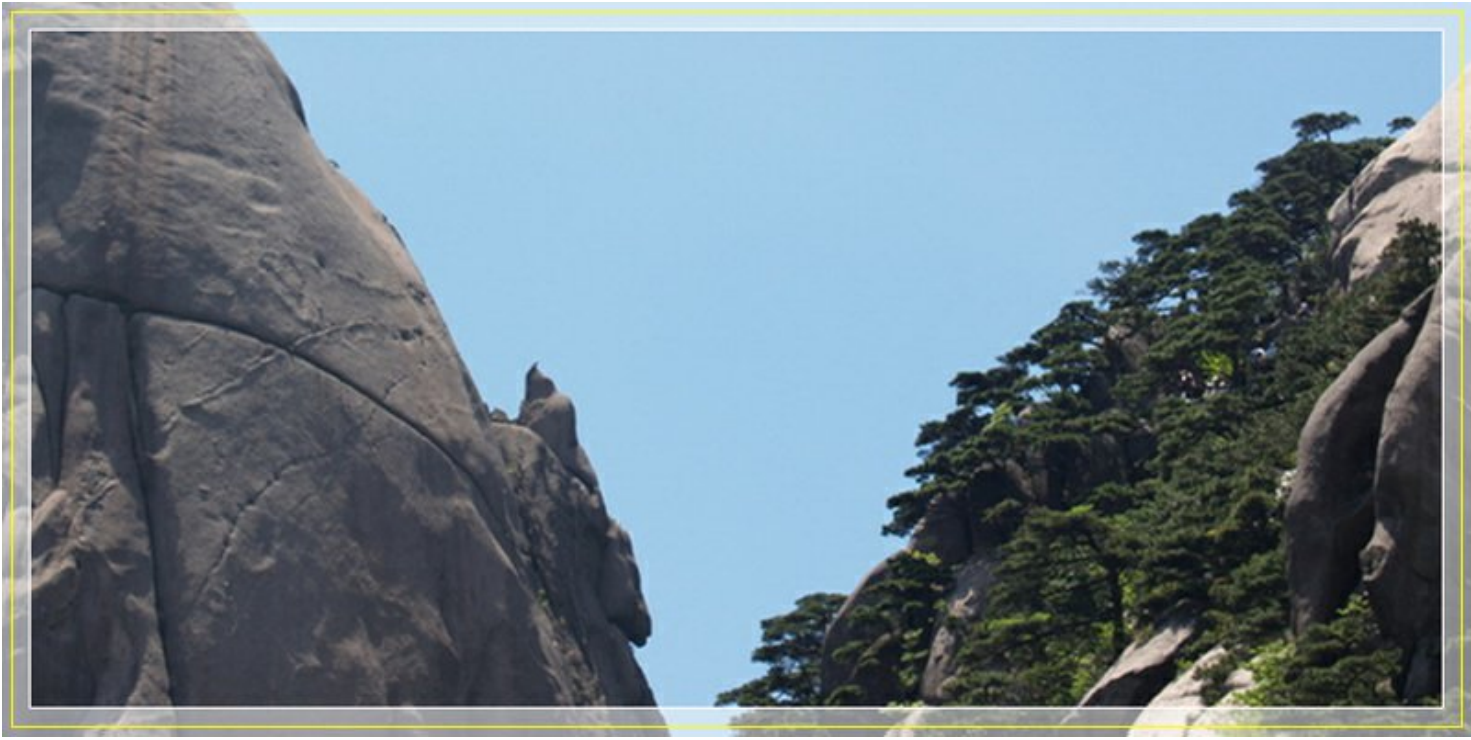
케이블카 매표소 입구까지 무려 3시간 가까이 걸려 한발 한발 올라선후

8인승 케이블카에 올라타자 마자 곧바로 운행되는 케이블카는 단 몇분만에 우릴 내려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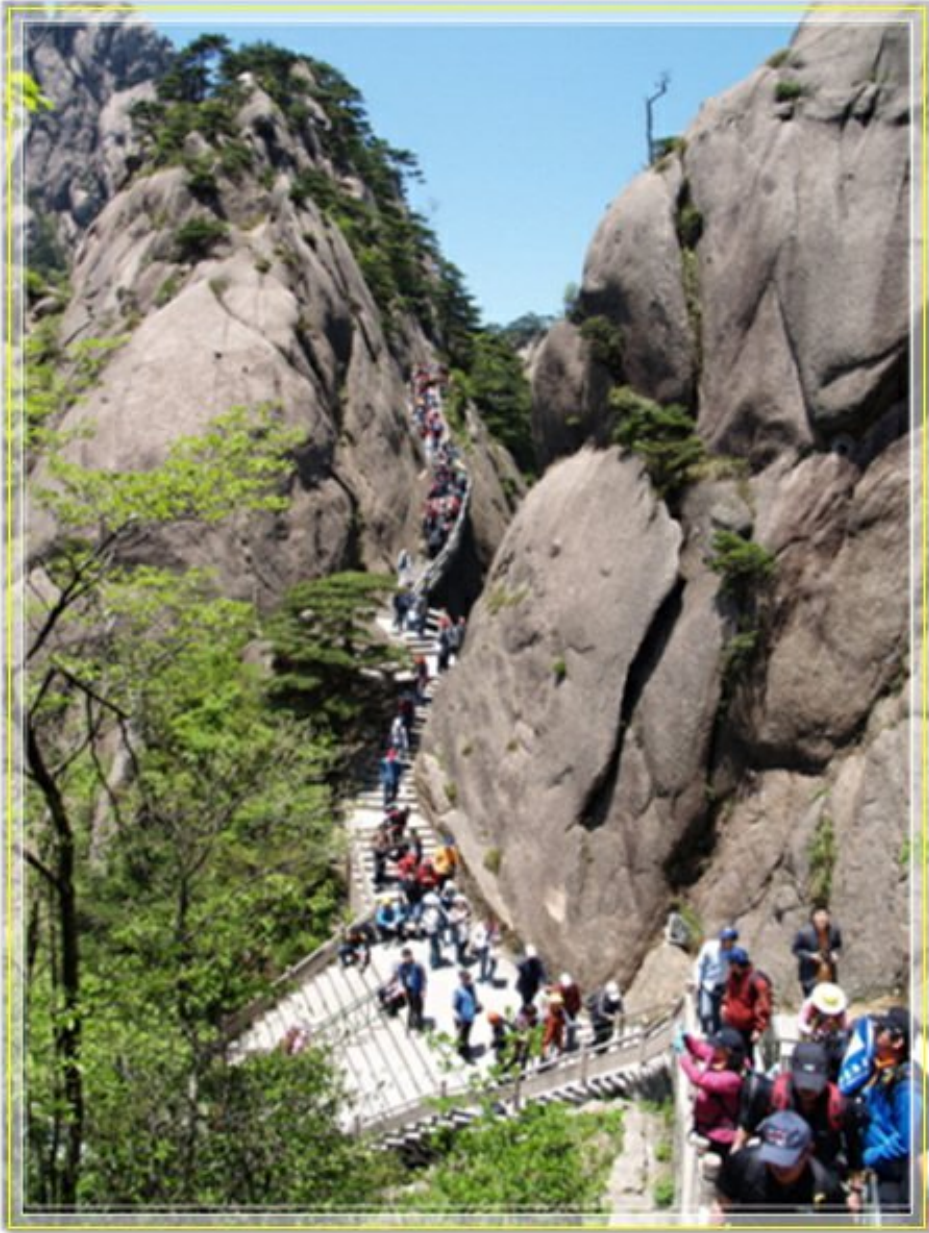
이렇게 많이 지체 될거라면 차라리 걸어서 오를걸.....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늘어선 인파)





(옥병루 가는길)



중국의 산중

동악(태산: 泰山), 서악(화산: 華山), 북악(항산: 恒山),
남악(형산: 衡山), 중악(송산: 嵩山) 을 일컬어 오악이라 부른다.

명나라의 유명한 지리학자며 여행가인 서하객이란 자가
1616년과 1618년 두번 황산을 오른후 등황산 천하무산이란 말을 남겼다.

예전

얼마나 아름다운 산이기에 그런 시건방을 떨었나
확인차 들린 황산은 그러나 나에겐 실망만을 남겼었다.
내가 느낀 그때의 감정은 단지 황산은 그저 거대한 인공구조물 였다.
그건 순전히 산행 처음부터 끝까지 흠 한줌 밟아 볼수 없슴이 그 원인이라.

황산의 4절은 기송 괴석 운해 온천이다.

지난번에 못보고 간 운해는 오늘도 날씨가 좋아 볼수 없슴 100%다.
애초 계획된 산행은 천도봉을 다녀온후 옥병루에서 점심을 먹는걸로 되어 있는데
워낙 많은 인파로 시간이 지체됨에 천도봉 등정은 생략하기로 했다.

1668m의 옥병루엔 한손을 벌려 어서 움서의 모션을 취하고 있는
영객송과 함께 이곳 최대의 명물 남근석이 자리하고 있어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든다.
남근석은 보는 방향에 따라 그 모습이 이름값을 하는데
점심식사로 도시락을 받아 먹는 자리에서 바라보니 참으로 알긋게도 많이도 닮았다.
세상의 남근석중 유일의 모근까지 갖춘 남근석은 여기뿐이라나 뭐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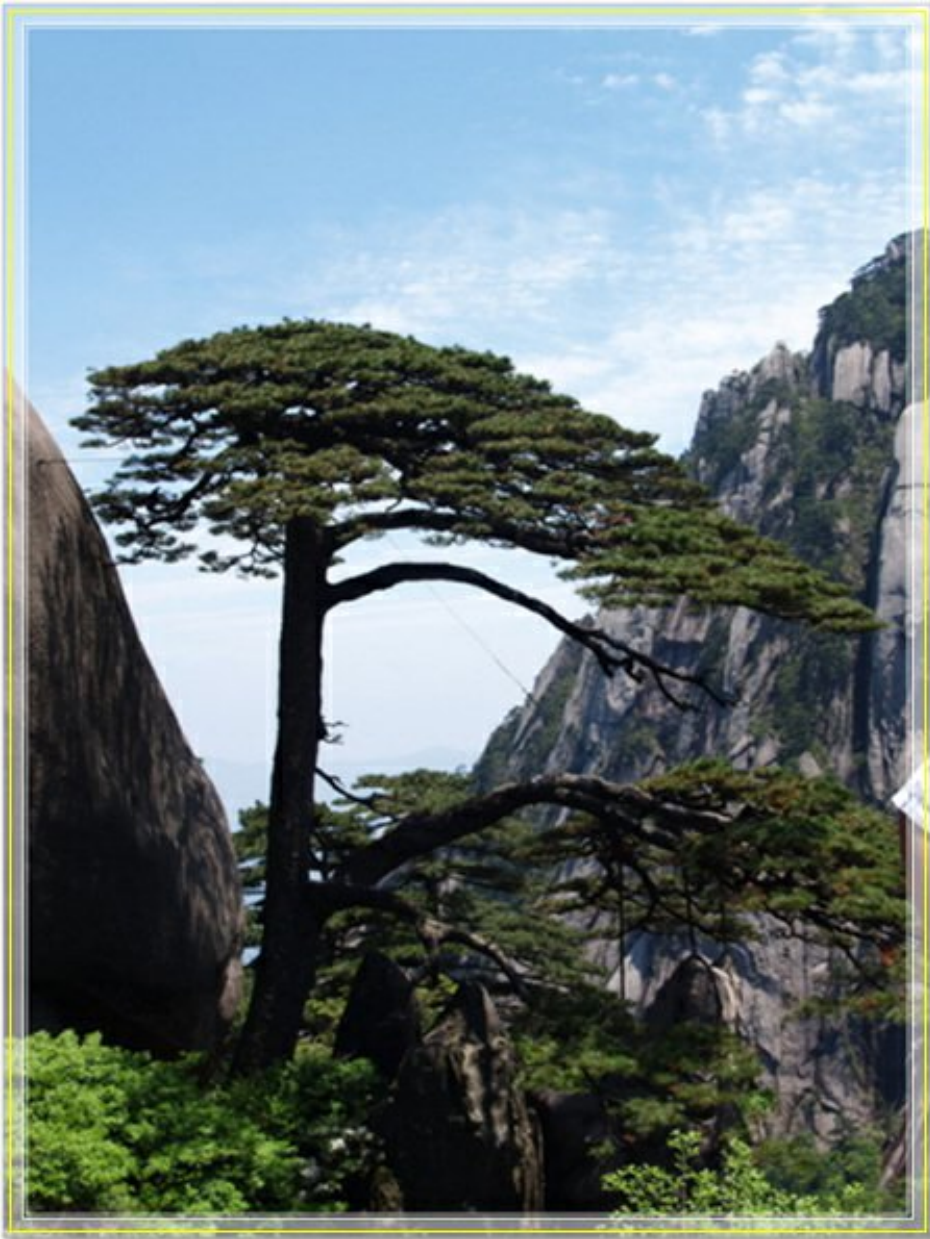
(영객송과 남근석이 있는 옥병루)



(옥병루의 풍광들...)



(영객송의 모습)



점심 식사를 끝낸후

옥병루를 뒤돌아 인파에 떠밀려 연화정에 선다.

연화정 오른쪽엔 황산 최고봉인 연화봉이 우뚝 솟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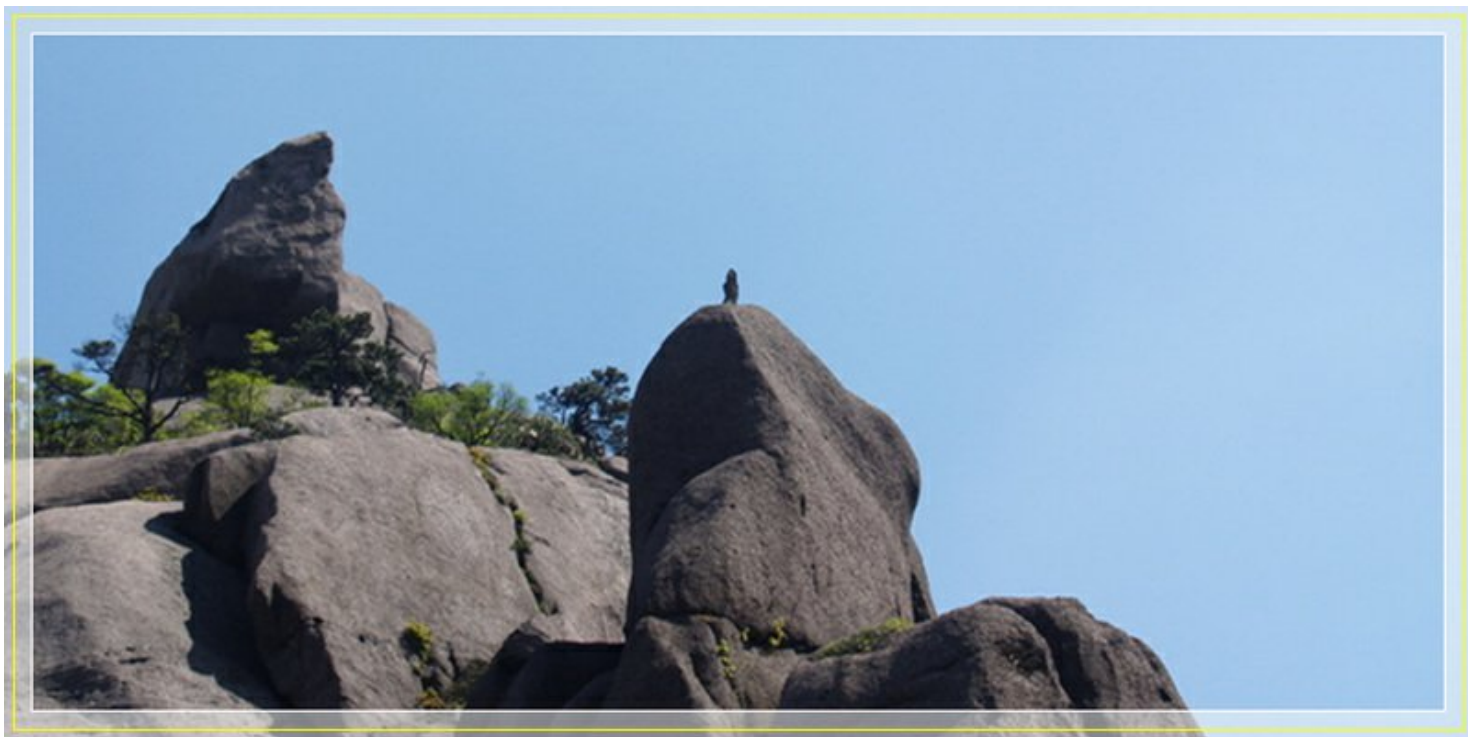
1864 M 인 연화봉은 주위의 여러 암봉에 둘러쌓여 연꽃처럼 보인다 하여 얻은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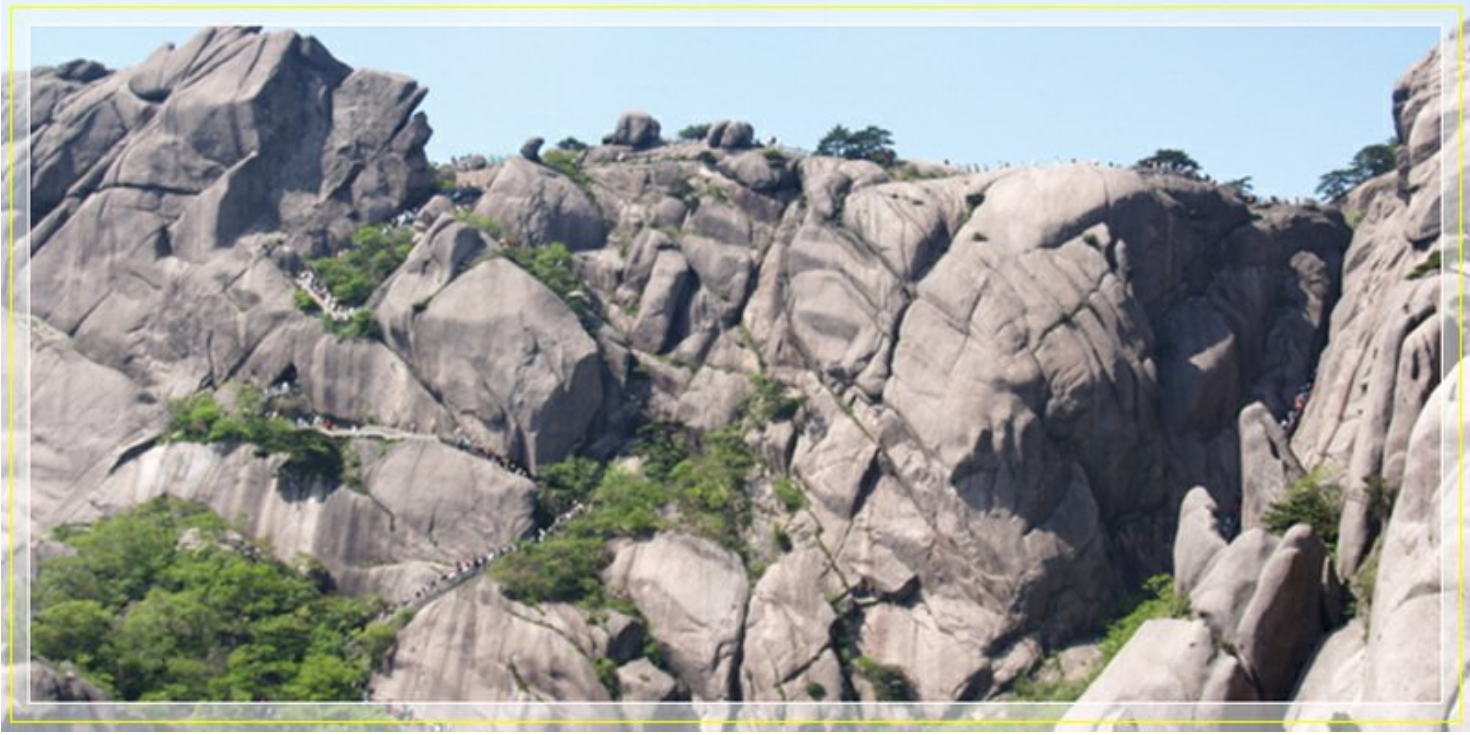
연화봉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휴식년제로 오를수 없어 가파른 돌계단을 내려선후 못생긴 물고기란 뜻을 가진 오어봉(鰲魚峰)을 향해 한발 한발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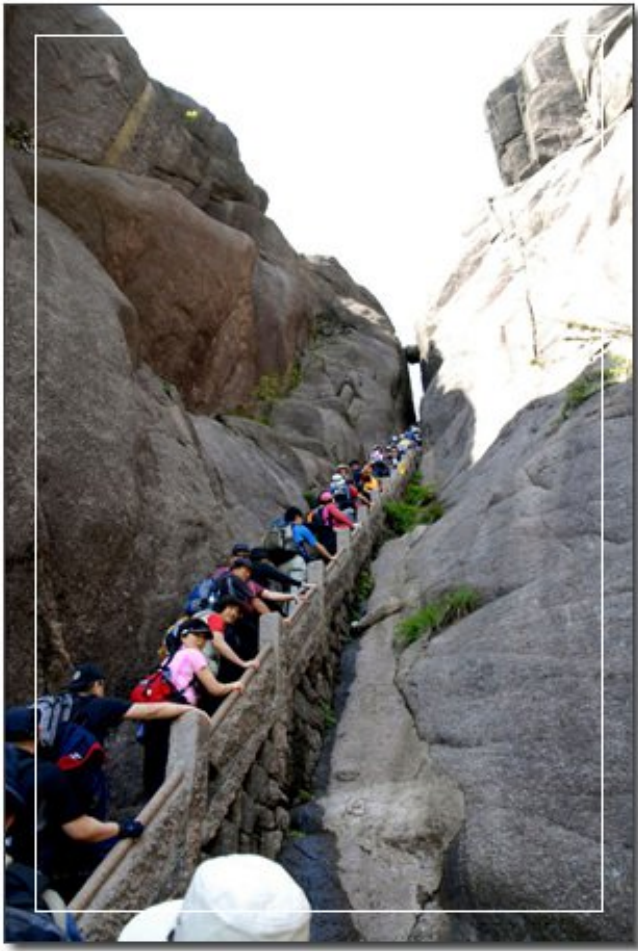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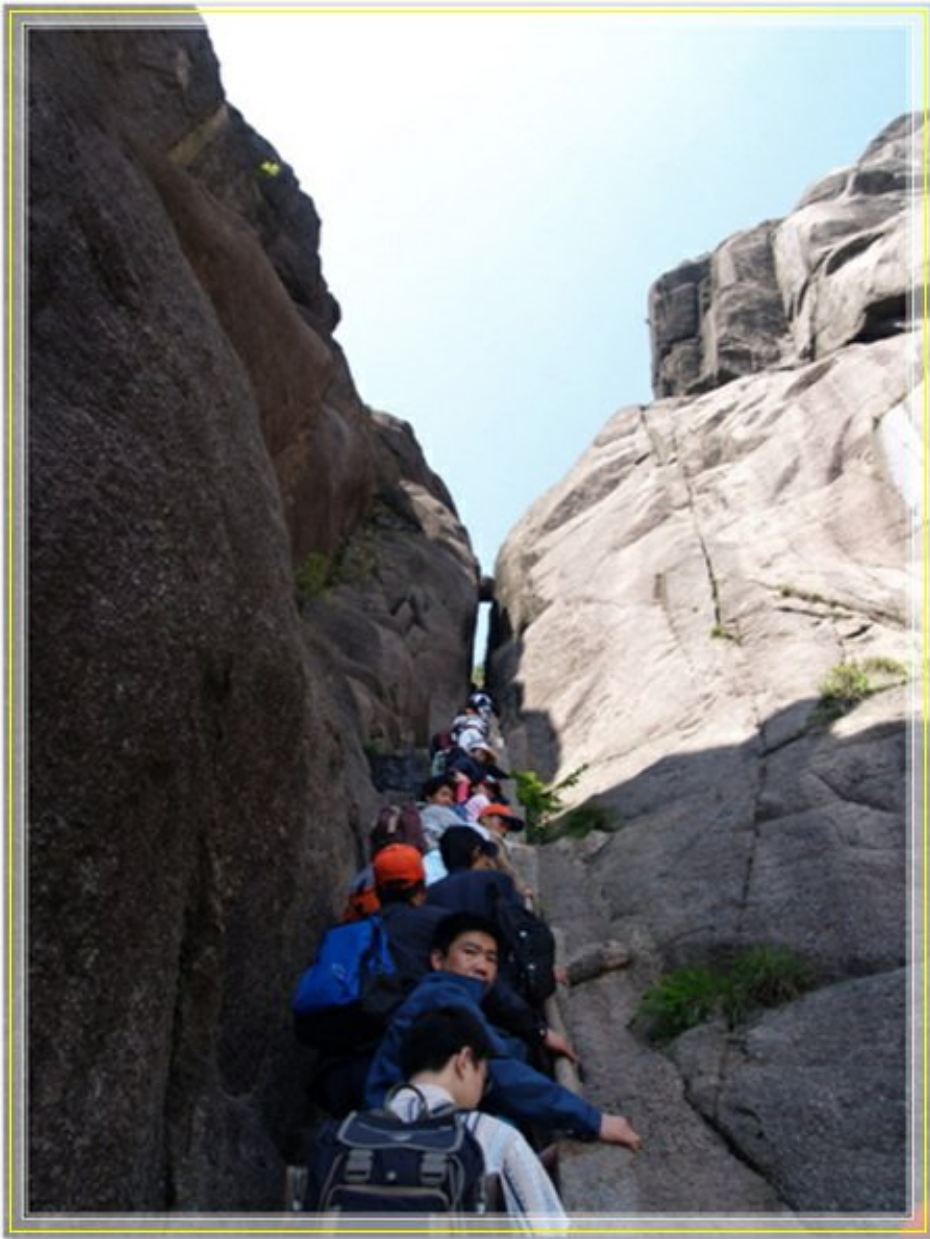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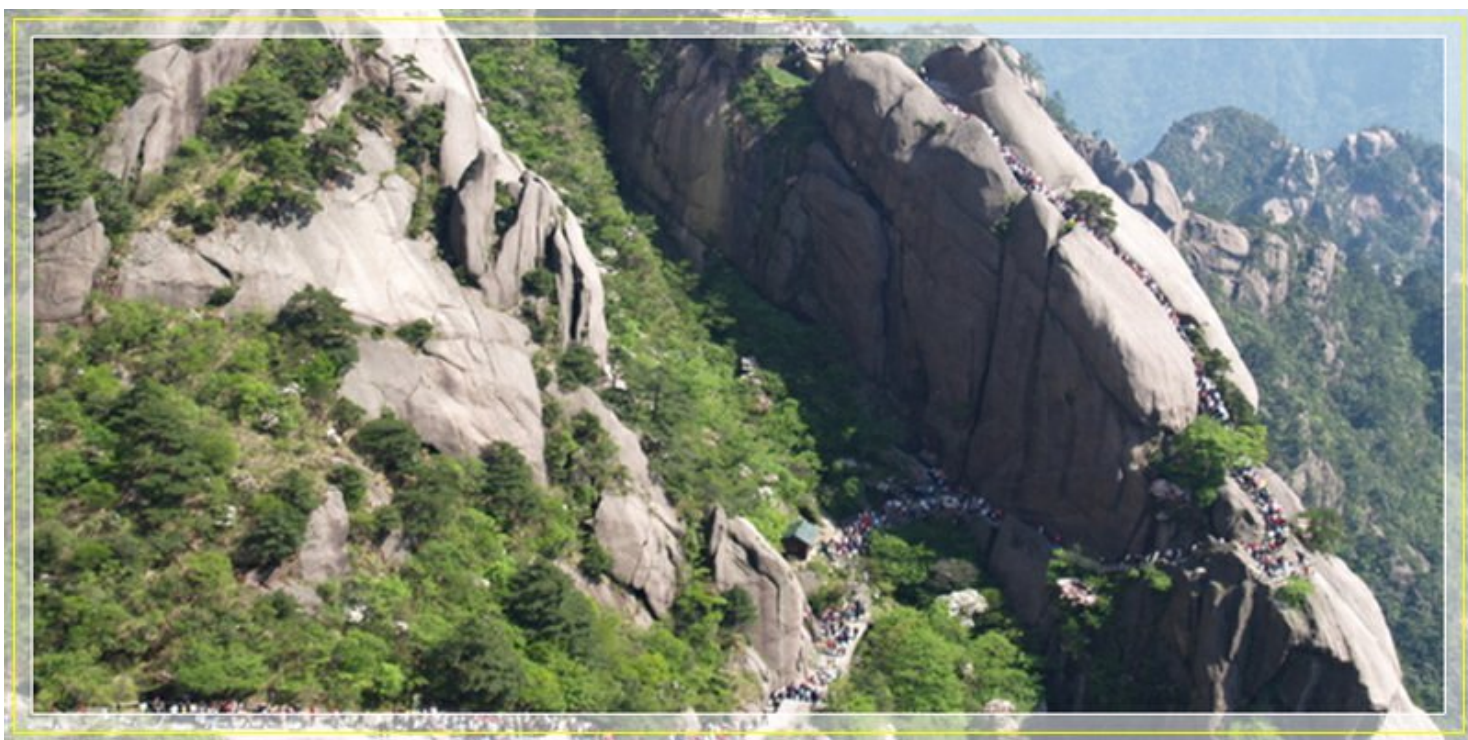
백보운제를 넘겨 일선천을 향한다.

가파르게 좁은 계단을 타고 오르는 일선천은
수많은 인파로 인해 정체가 너무 심하여 옆 샅길로 타고 올랐다.

(일선천을 향한 오름길 풍광)







일선천을 타고 오른 오어봉 정상은
사방팔방 막힘 없는 조망이 제공되는 풍광좋은 너른 암반이다.
내가 너무 빨리 올랐나 ?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일행이 보이지 않는다.

깃발을 든 중국 가이드 광수가 선두를 맡고 내가 맨 후미를 보며

일행을 이끌어 왔는데 잠시의 답답증을 못견뎌 오어봉만 먼저 올랐을 뿐인데 이상하다.

서해 대협곡과의 갈림길

해심정에서 일행을 기다리기로 했다.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 기다리니 가이드 광수가 깃발을 들고 내려선다.

왜 이제야 오냐 물으니 워낙 많은 인파로 올수가 없고

샛길로 먼저 올라서는 나를 뒤에서 확인했다며 웃는다.

우리팀은

상주의 우체국 산악회와 대전 충일 산악회

그리고 경기도의 숲향 산악회로 구성됐는데 각 산악회는 각자 인솔자가 있어

그 인솔자의 리더로 인해 산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내가 그만큼 힘들이지 않고

산행을 진행시킬수 있어 한결 편하고 수월하다.

(오어봉 정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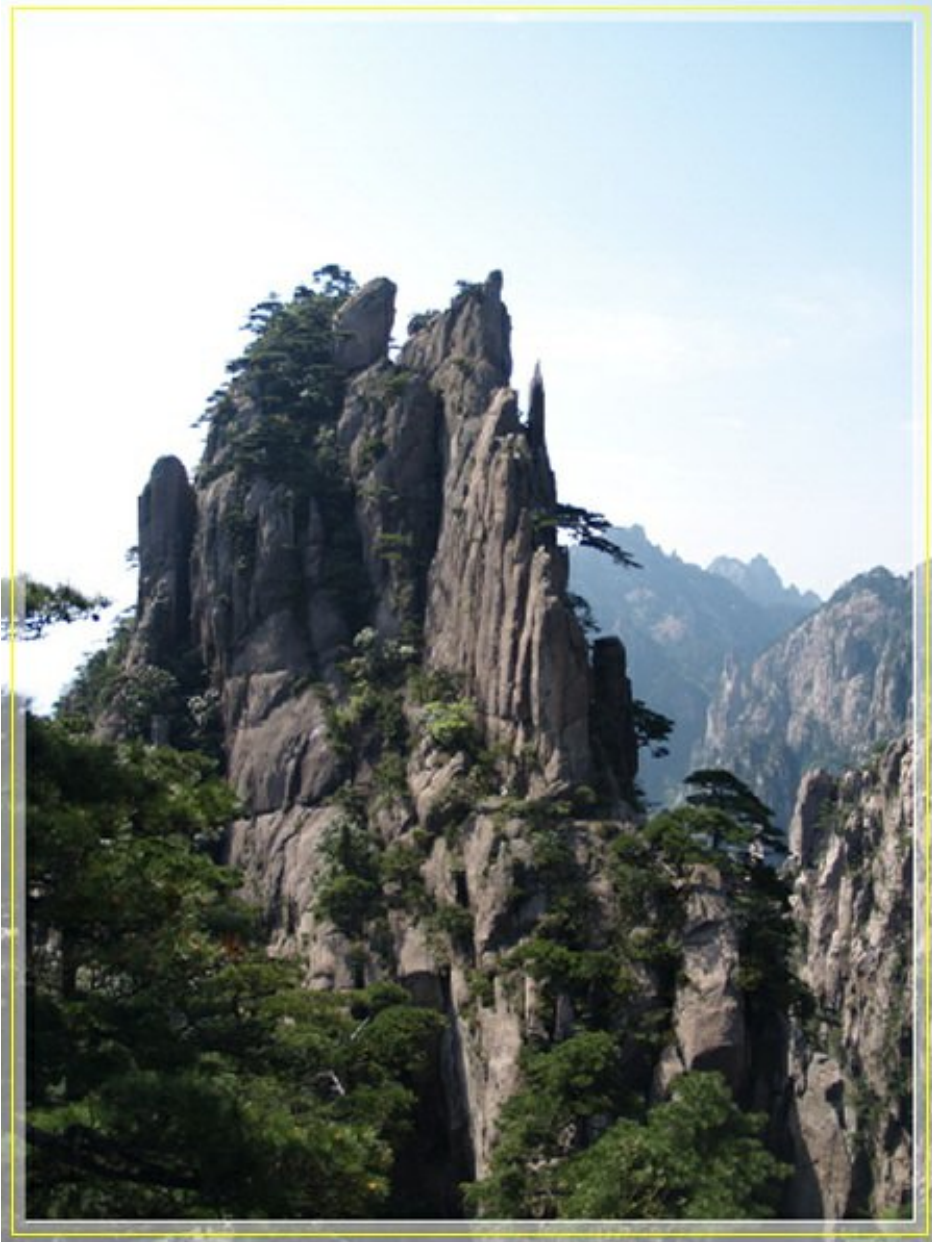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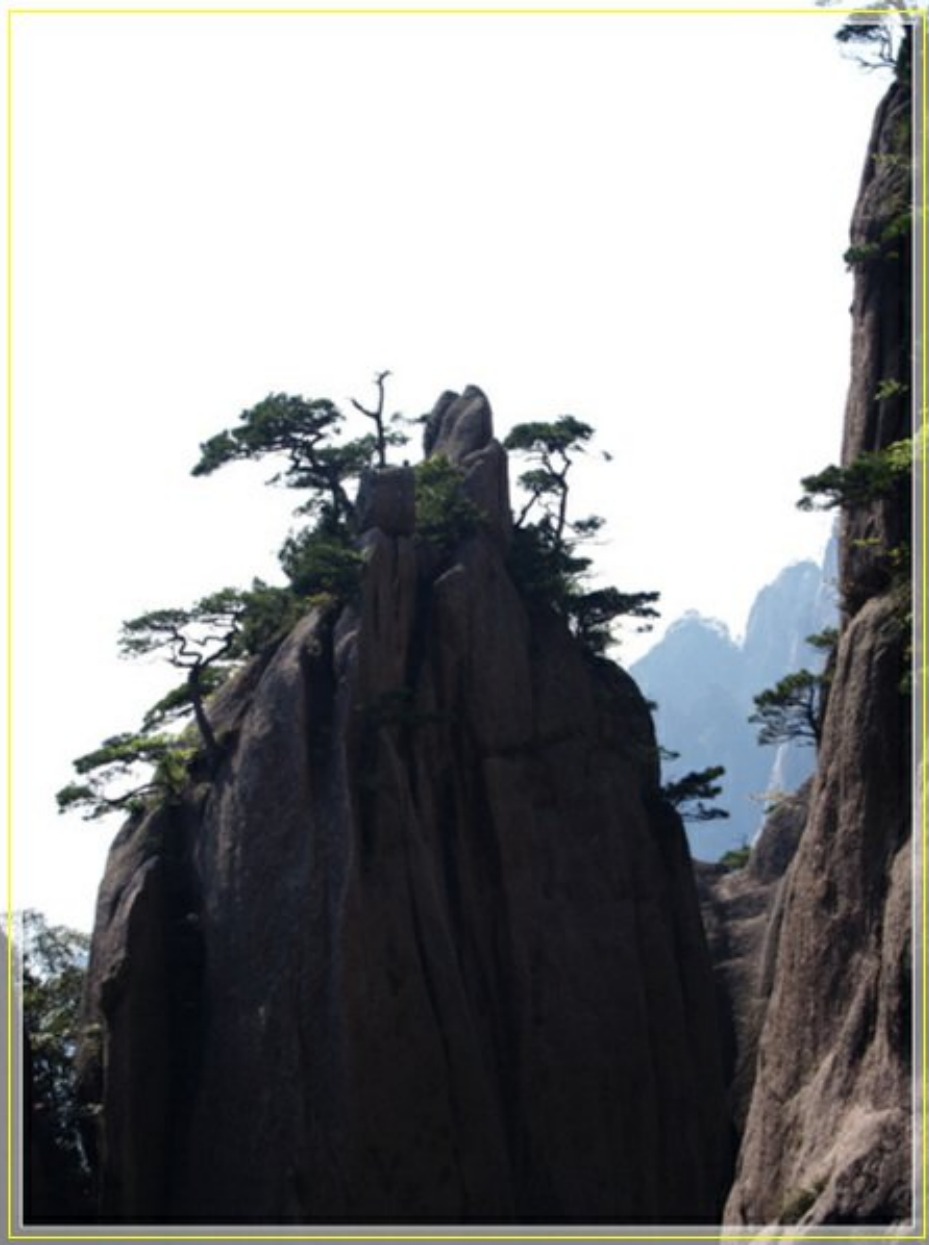
해심정(海心亭)에서 최종 인원 점검후 서해대협곡으로 들어섰다.

해발 1600m의 해심정에서 배운정(排雲亭)까지는 해발 600m 까지 내렸다
다시 1600m 까지 오름이 시작되는 서해 대협곡 종주는 힘든 체력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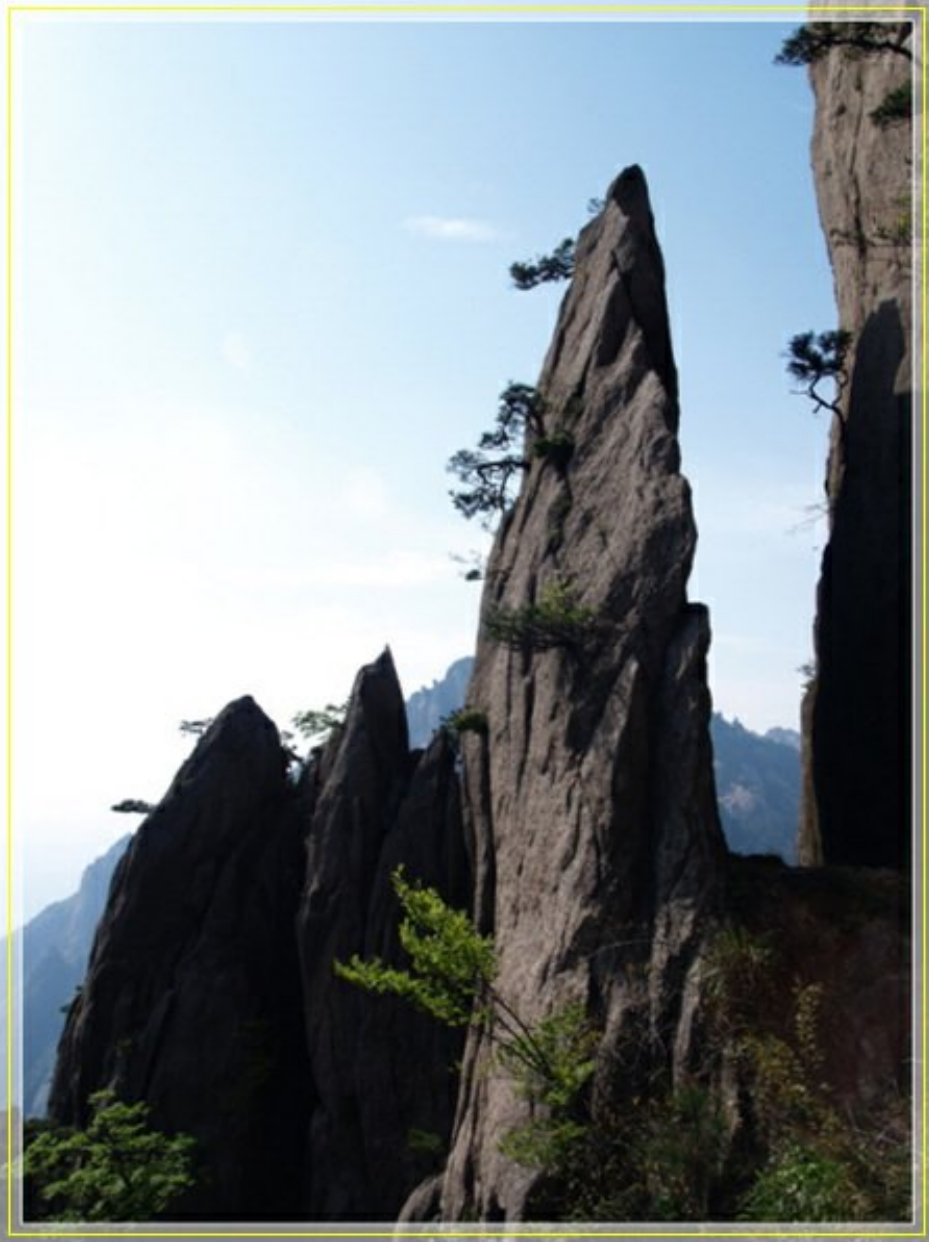
대전팀 충일 산악회 리더 산야로님은
내가 평소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충일 회원님들 사진 찍으라
비디오 촬영하라 팀원 챙기라 1인 3역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느라
땀줄 빠지게 앞으로 뒤로 뛰어다녀 모두들 허를 내들루게 만드는데
정작 돌봐야 할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대동한 사모님은 본체만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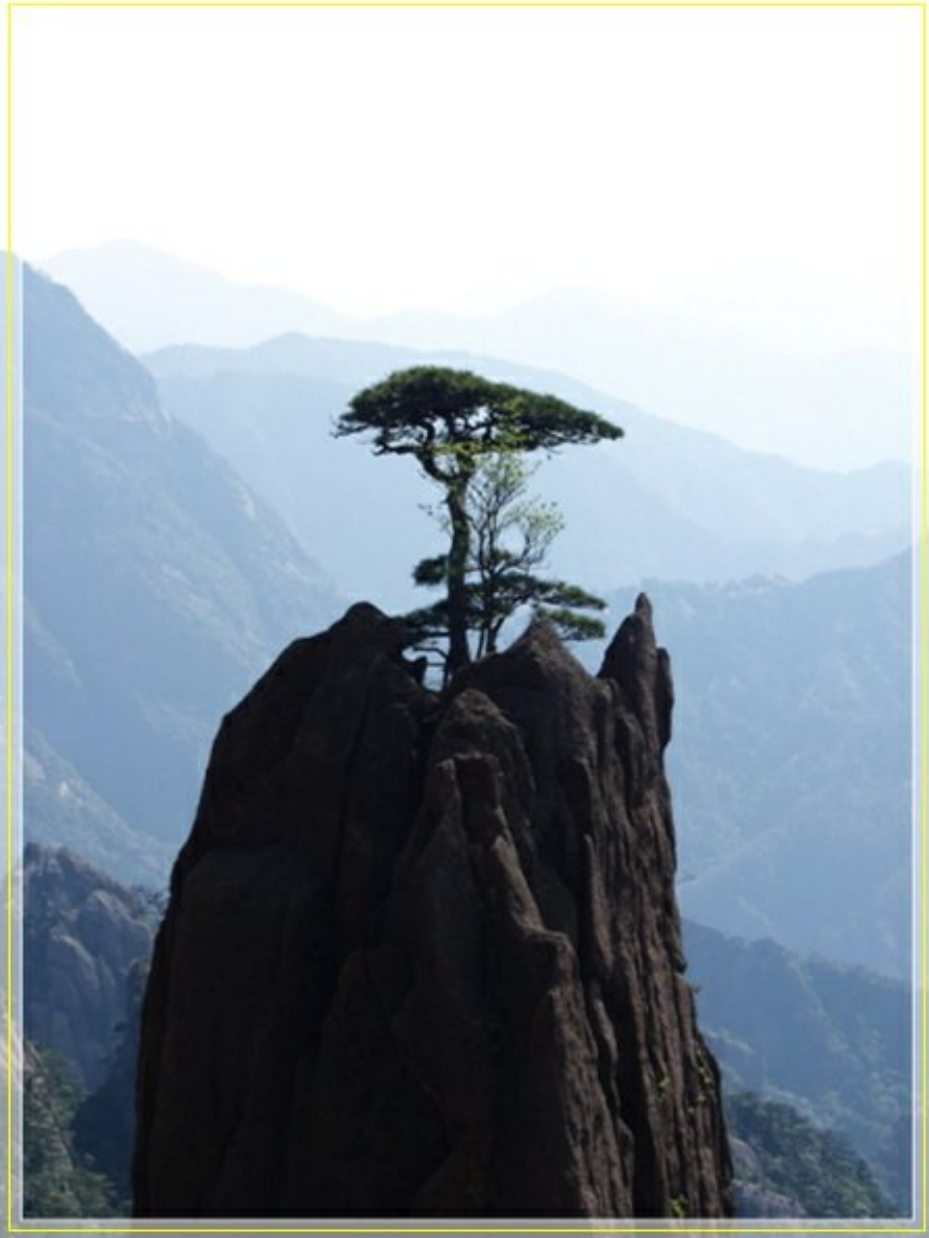
서해 대협곡에 들어서며
아름다운 풍광에 발이 꿈꿈 묵인 산야로님은
덕분에 서해 대협곡을 빠져 나올때 까지 후미를 책임맡은 나와 함께
내내 동행산행은 물론 사모님을 알뜰살뜰 보살필수 있었으니 서해 대협곡 풍광이
아름다운건 확실히 증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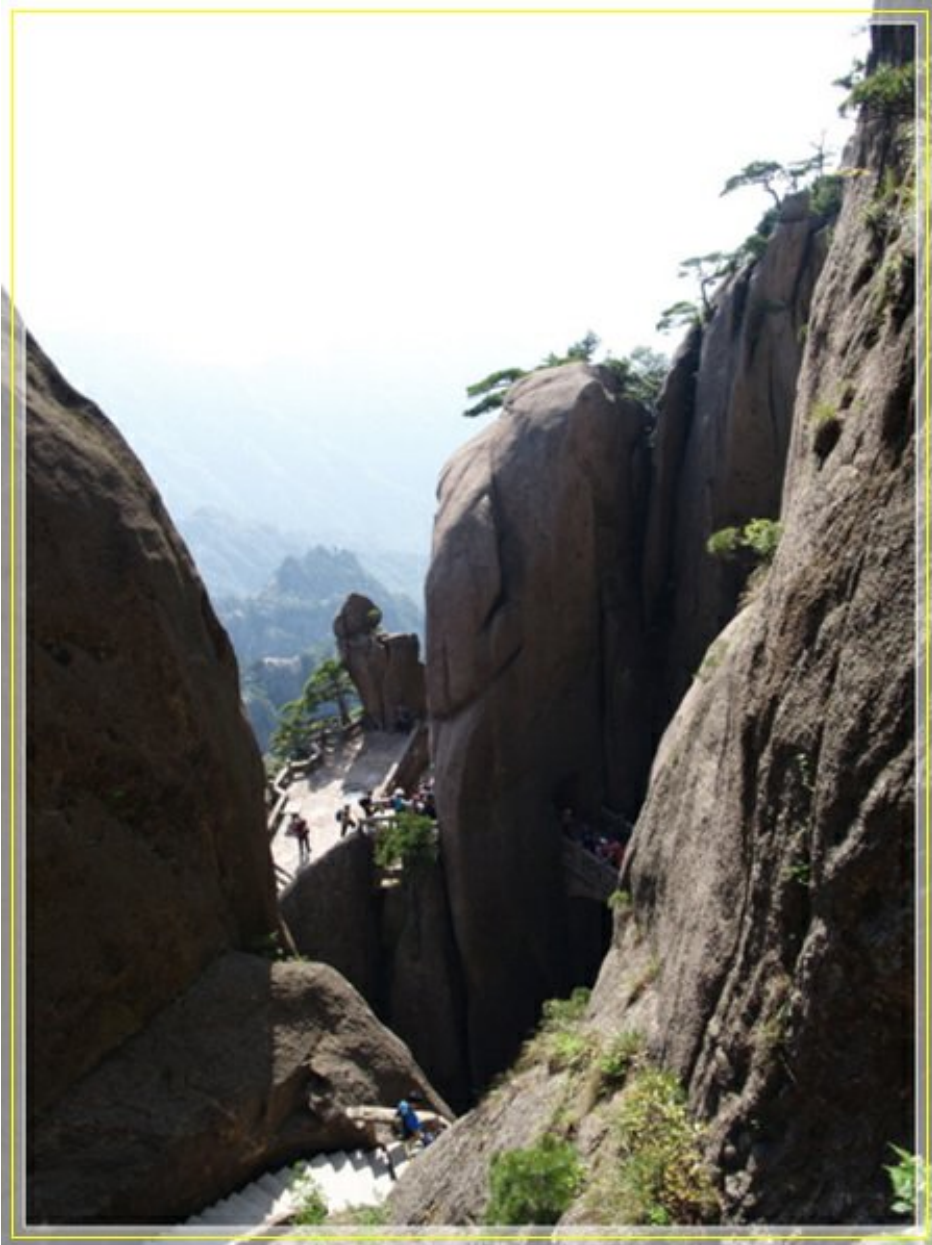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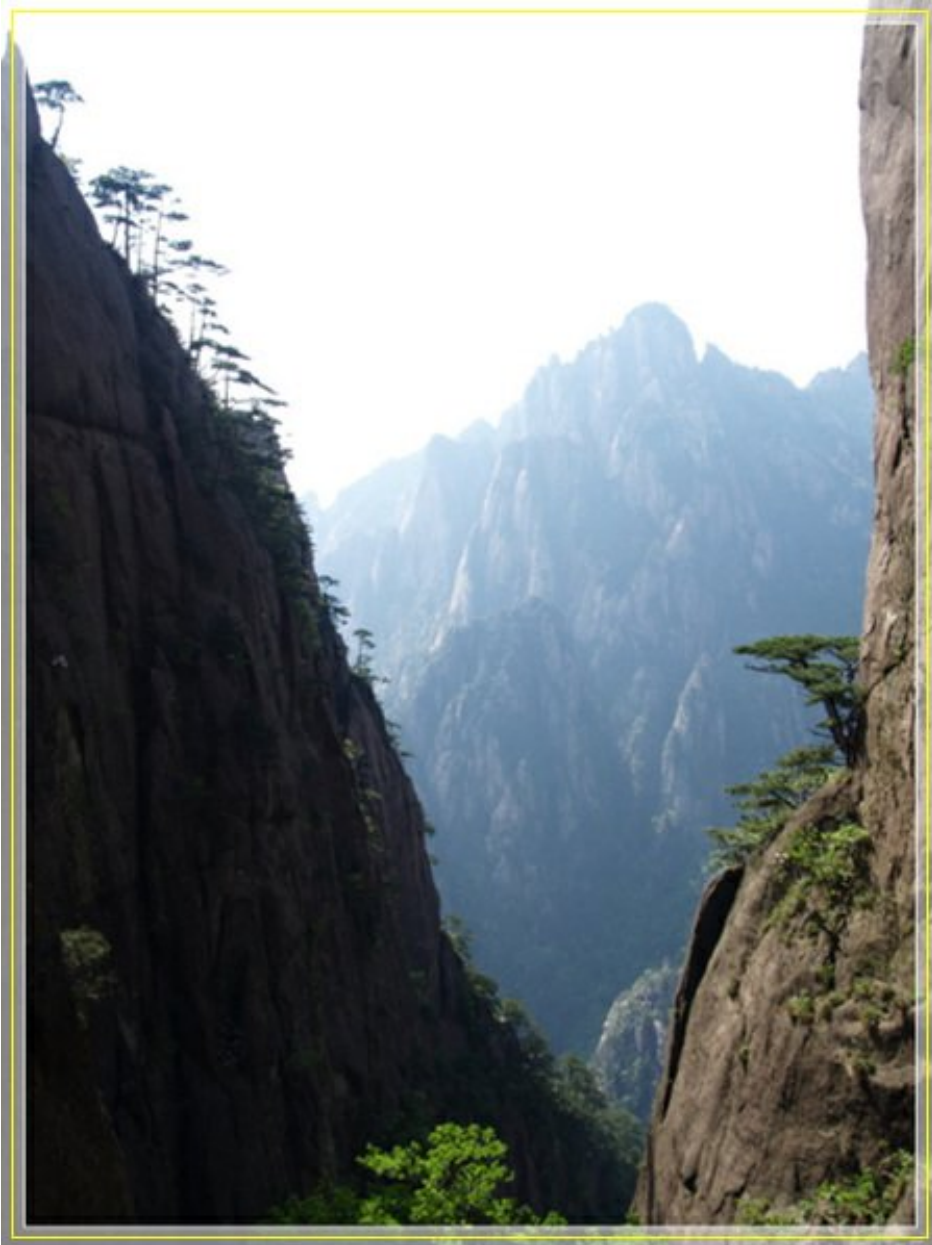




우리는 신선이 되는 다리라는
멋진 이름의 보선교(步仙橋, bridge of Immortal)를 건너
기념사진 한장을 남기곤 뒤돌아 나와 다시 보선교를 건너 두번 신선이 되어 본다.
보선교를 지나 바위 동굴을 통과해야 비로소 본격적인 서해대협곡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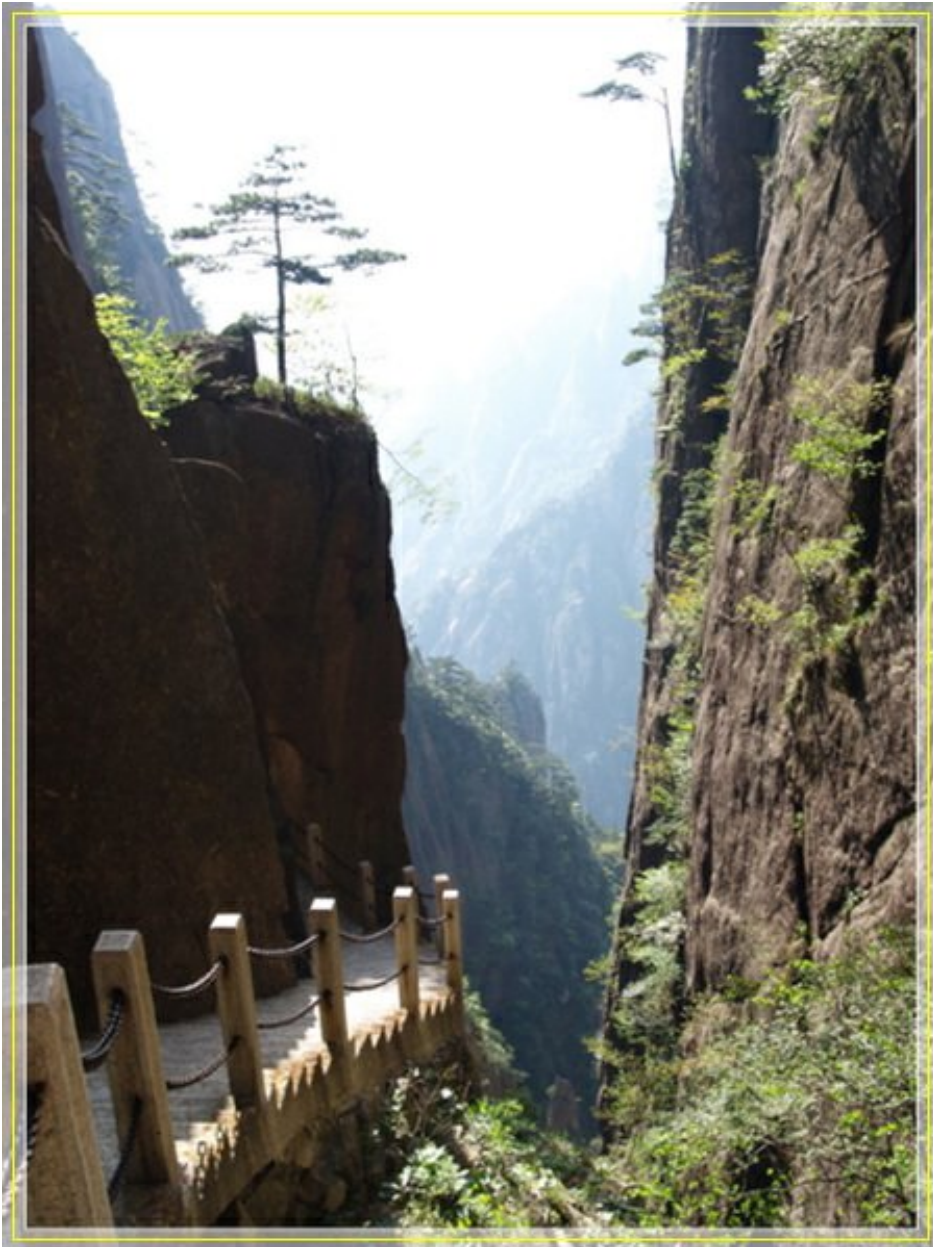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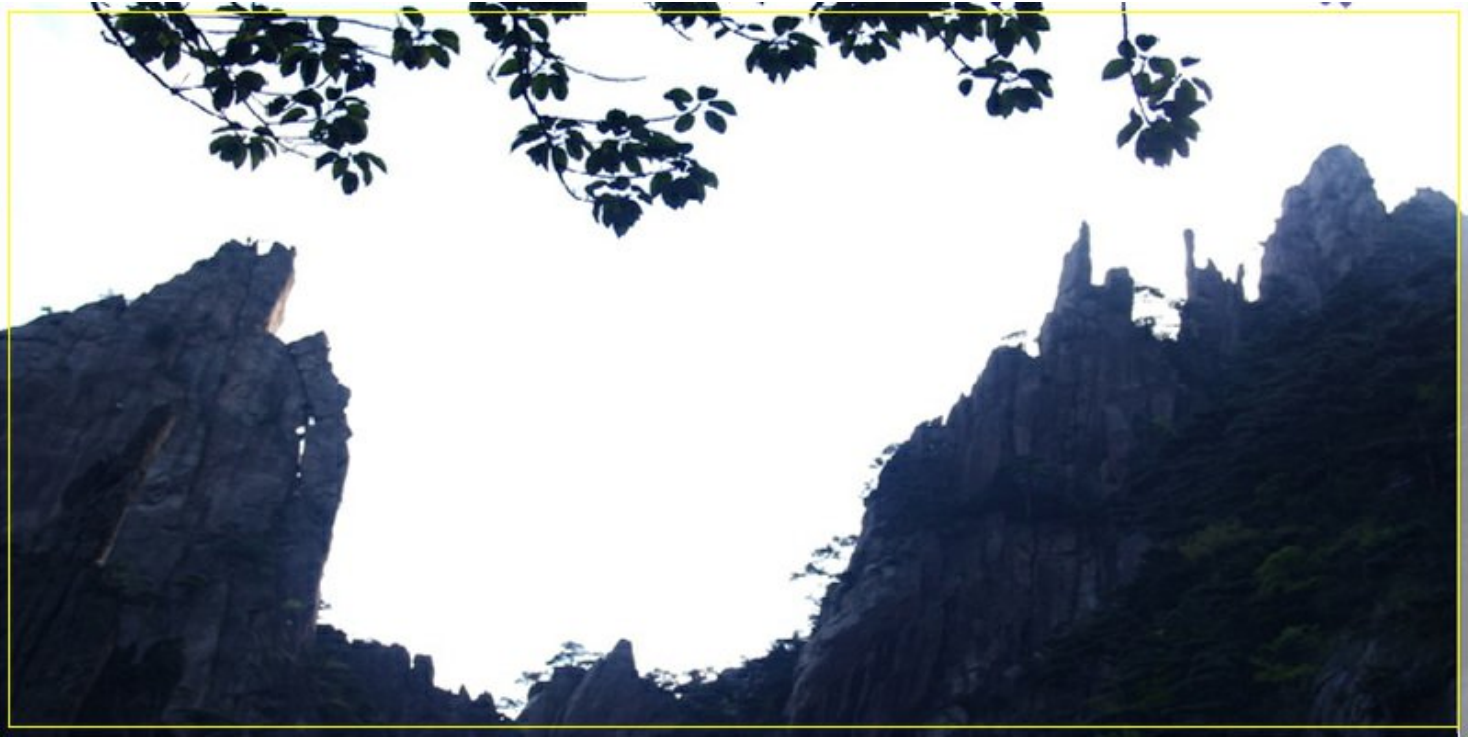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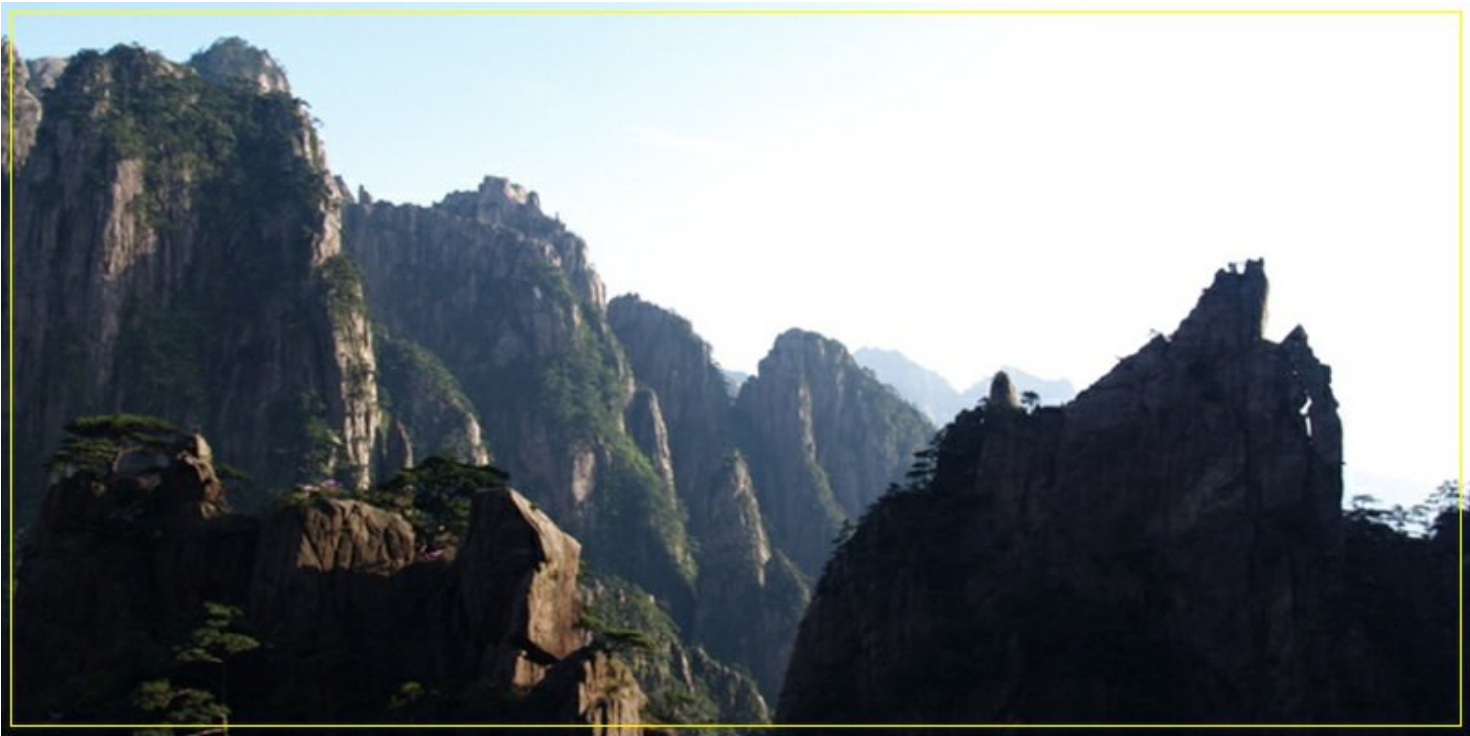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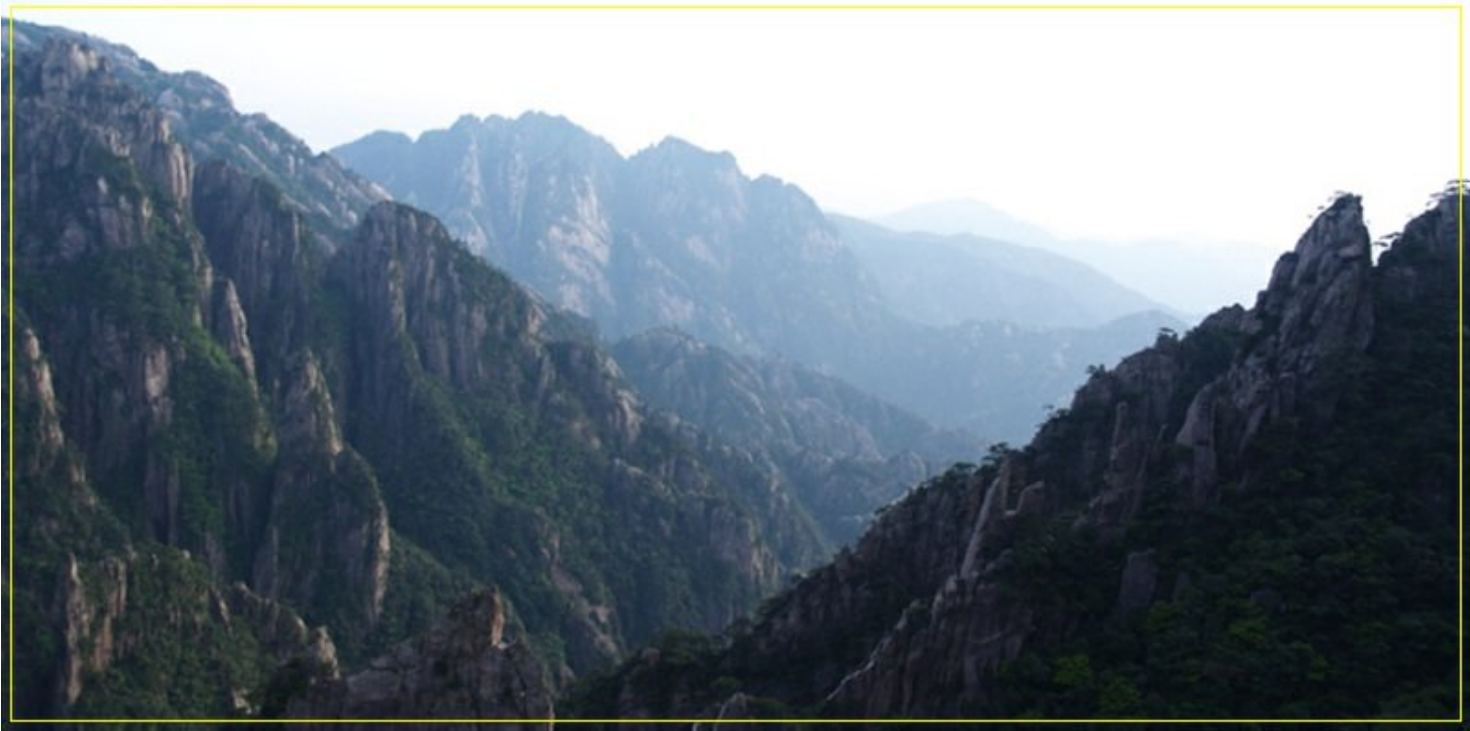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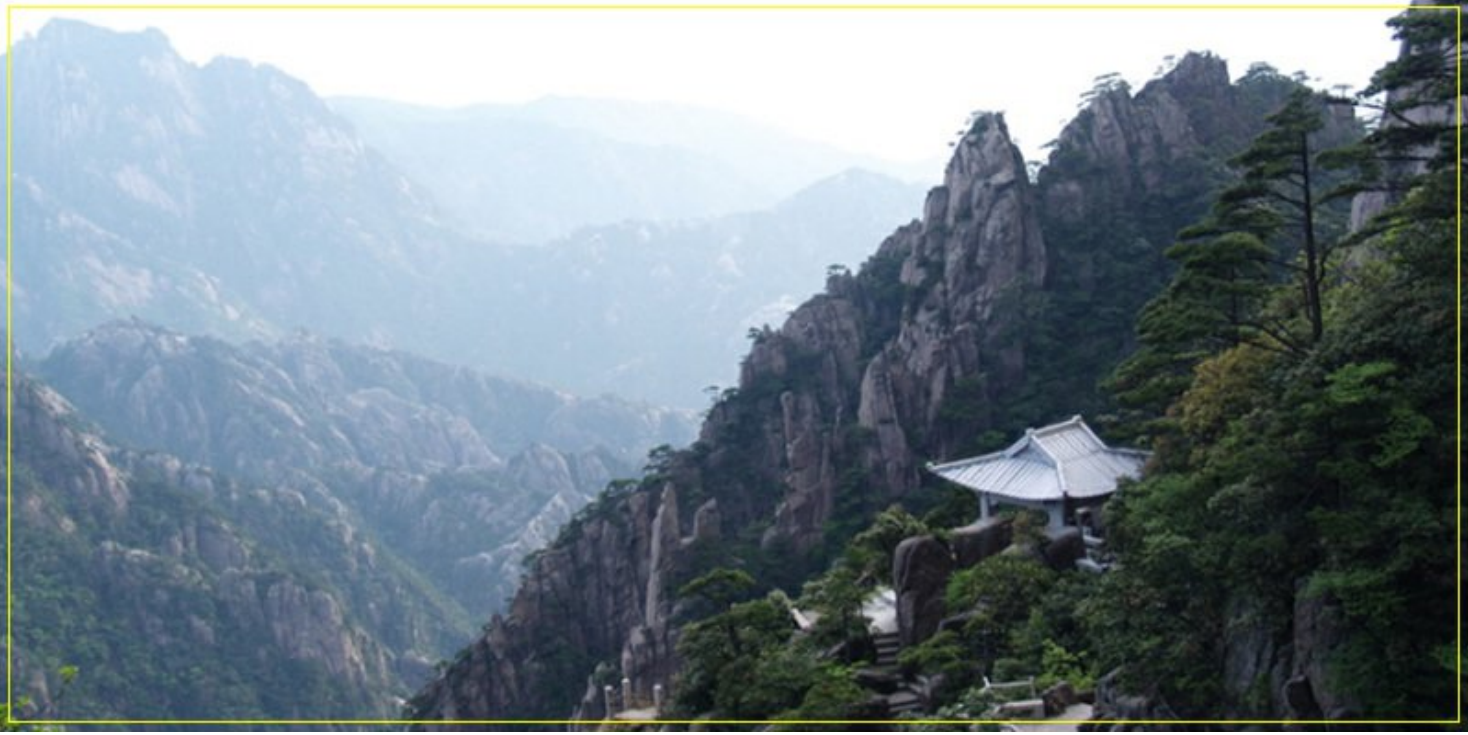














숲향팀의 여성 한분이 좀 힘겨워 했을뿐
모두들 절경의 서해 대협곡을 가볍게 빠져나와
배운정에 도착할 때는 고운 노을의 석양을 볼수 없는 이미 해는 저문 뒤라
그 모습을 디카에 비디오에 담을 수 없어 산야로님 서운해 하신다.
그러나 어찌라~!
그 대신 내일 일출의 장엄한 모습을 기대하며 숙소인 서해호텔로 들어서며
오늘 일정을 무사히 접는다.

서해호텔에서 한식으로 맛나게 저녁을 먹은 뒤
산야로님 숙소에서 그간 촬영한 비디오를 재미있게 감상하다 내려서니
그때까지 산행팀들 뒷처리의 사무로 바쁜 이팀장님이
홀 로비를 지키고 앉아있다 나를 보고 맥주 한잔 같이 하고 들어 가잖다.

서해호텔 아가씨가 영업 끝났으니
테이블 치워 달라는 통에 먹던 맥주 들고 함께 숙소에 들어가

오랫만에 나홀로 외롭게 잠들던 밤을 새벽녘까지 술잔을 기우리며
이런 저런 정담을 나누다 잠들었는데 모닝콜 5분전에 자동으로 일어남에
일출산행을 위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조용히 숙소를 빠져 나왔다.

(서해호텔 전경)



-네째날 2008년 5월 11일 일요일-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여

4시 45분에 인원점검후 청량대로 일출을 보러 출발했다.

숙소를 떠난지 15분여만에 능선에 오르자 이미 날이 밝아오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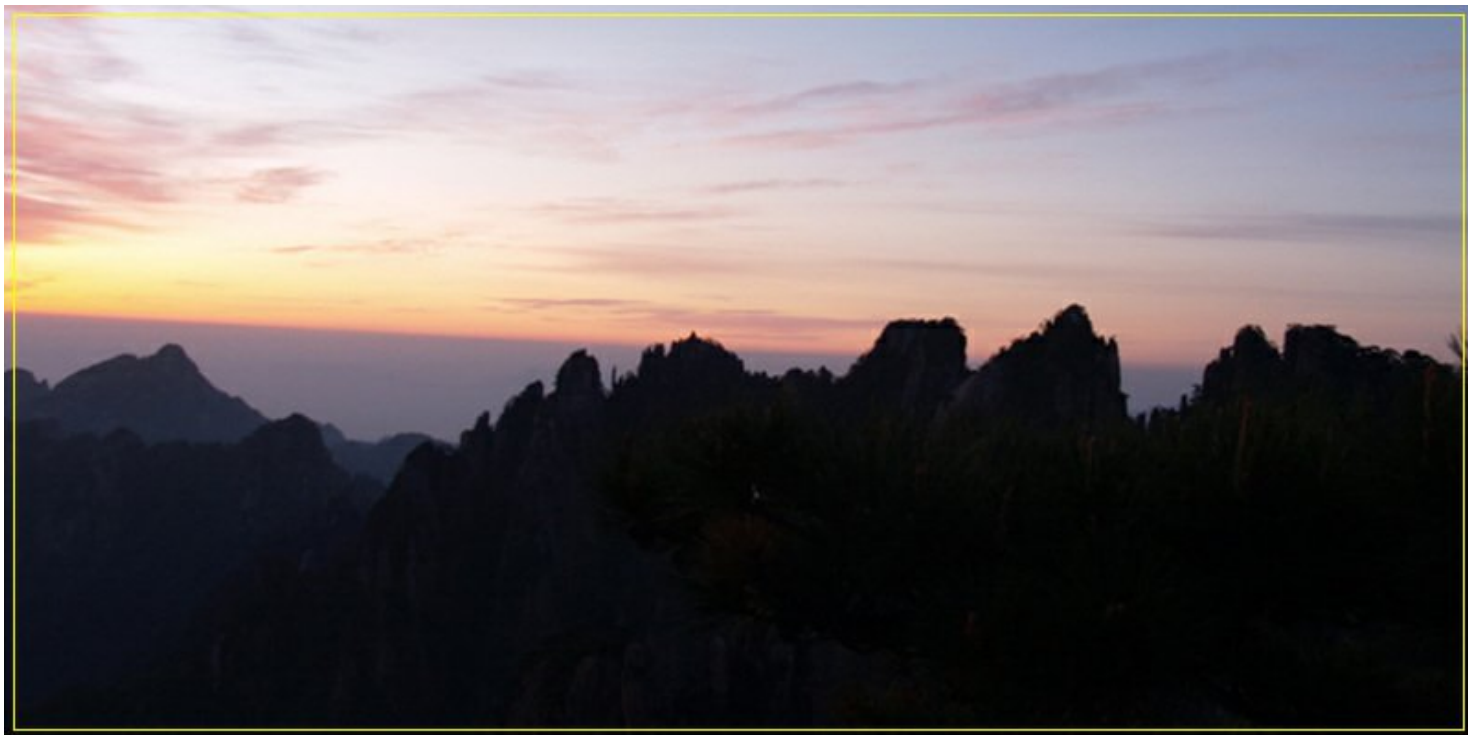
조급한 마음에 허겁지겁 청량대를 올라서나 좋은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 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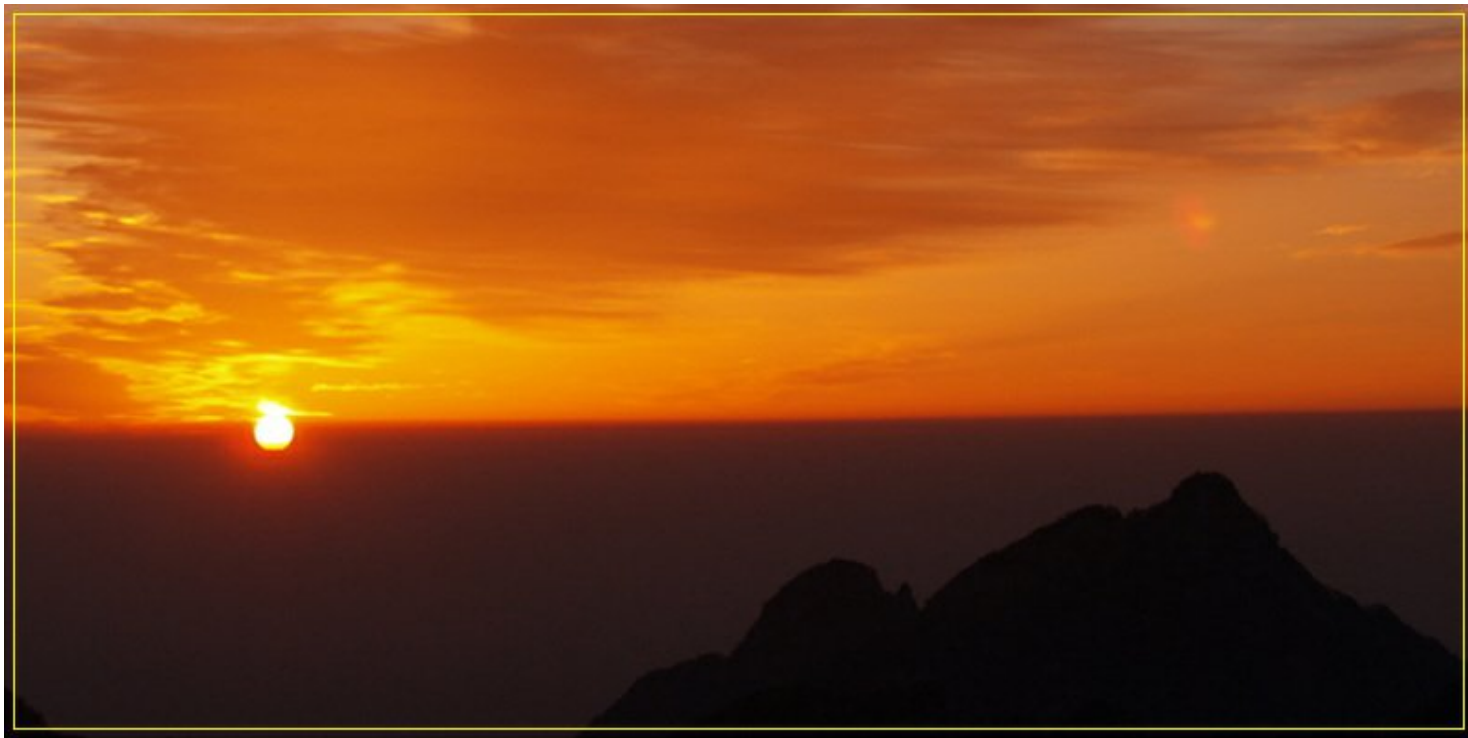
겨우 비집고 자리를 잡자 마자

산고의 진통으로 붉게 물들던 하늘에 아기햇살이 퍼져 흐르며

불덩이 하나가 쭈욱 올라선다.

그순간 모두들 탄성인지 신음인지를 토해 놓으며 잠시의 정적에 휩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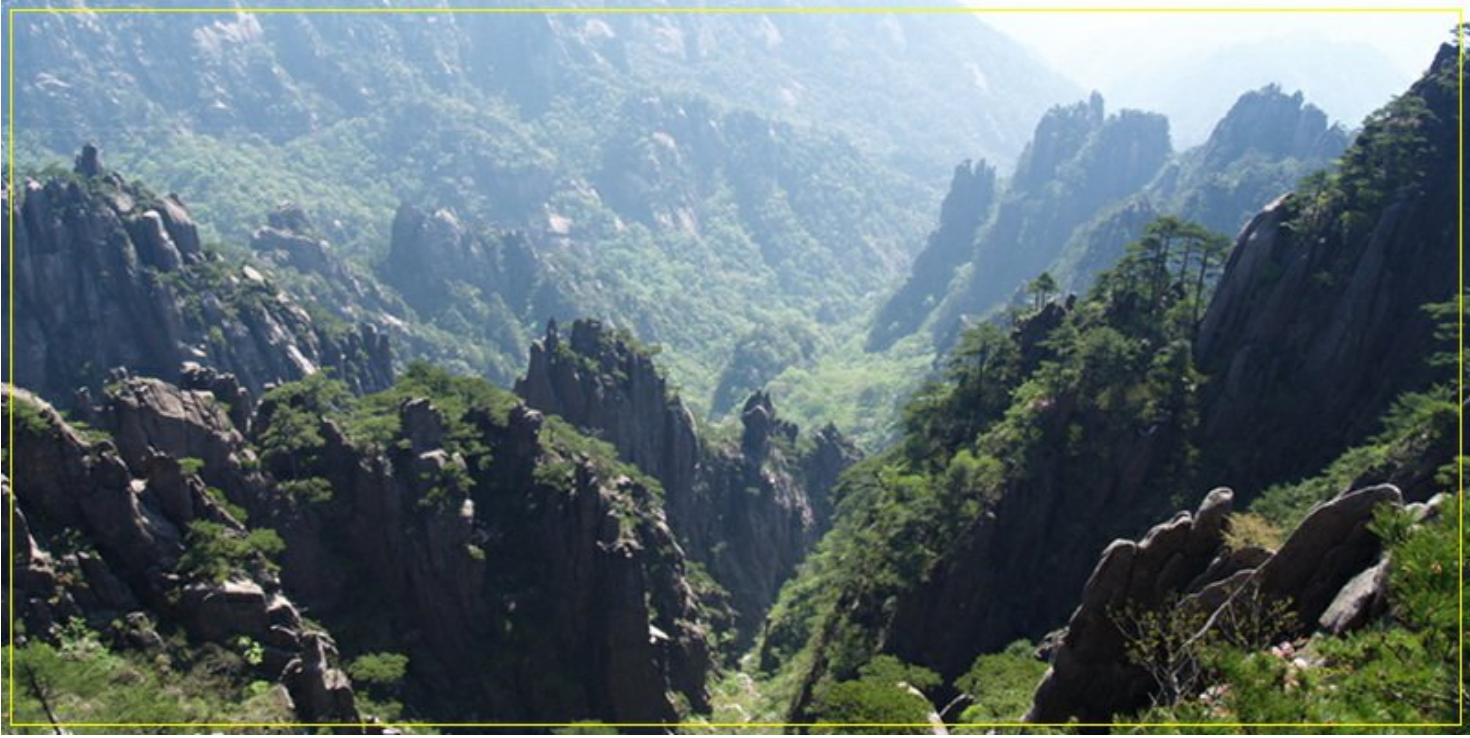








질은 여운이 남아 내려서기 서운한 난
한참을 청량대 정상에 서성거리다 내려서니
우리 일행 모두가 떠나 버렸다.
숙소를 향하다 단결송에서 후미일행을 만나 물어보니
일부는 시신봉으로 나머지 일행은 숙소로 갔단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시신봉을 향해 땀따 뛰어 올라가니
선두권 일행들이 이제 막 시신봉을 내려선다.
시신봉에서 내려 보는 풍광은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소나무가 한폭의 선경으로 다가선다.



(56개의 가지가 한몸에 붙어있듯 56민족이 단결하라는 뜻의 단결송)



아침 조식후

서해호텔을 떠나 비래석으로 향했다.

비래석은 대한항공 CF 광고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그당시의 멘트가 오를땐 남이지만 내려올땐 친구가 되네 어찌네로 기억된다.

비래석은

하늘에서 운석이 날라온 바위라는 뜻이란다.

이 바위를 한번 만지면 복이. 두 번 만지면 재물.

세 번하면 관운.네 번하면 애인이 생기고 다섯 번이면 득남을 하는데
욕심이 많아 여섯 번을 하면 전부가 도로아미타불로 무효가 된다고.....

그래서

니는 몇번을 만~~나~~나구여~?

슬그머니 돌아나오며 남들 안 볼때 슬쩍 네번을 만졌는디

아직도 소식이 읊는걸 보든 다 구라고 뺨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려...

(요거 내 마눌 초록앞새가 알든 난 죽음이다)









비래석을 뒤로 1860m인 광명정(光明頂)에 올랐다.
 岩壁에는 雷雨時請勿 在峰頂停留 와 함께 영어로
 Dot not stay at the peak in storms.란 글귀가 세겨있다.

황산 최고봉인 연화봉에 불과 4M 낮은 광명정의 조망은 거칠것이 없다.



황산일정의 마지막은

백아령을 경유 운곡사로의 하산이다.

모든일행이 백아령에 도착하자 숲향팀 일부가

케이블카를 이용한 하산을 원한다. 어제 서해 대협곡의 산행이 힘겨웠나 보다.

숲향팀 일부만 제외한 나머지 일행이

운곡사의 내림길로 들어서는데 상주팀의

제일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이 다리를 절며 힘겨워 한다.

옆에서 함께 걸으며 말동무를 해 드리는데 이분 참 재미있다.

말씀이 아주 유머스럽고 재치있어 운곡사로 내리는 내내 지루한줄 모르게 내려왔다.



[운곡사로 무사히 하산완료로 등산 일정을 모두 끝냈다.](#)
[점심으로 오랫동안 삼겹살로 배를 불린후 실크공장을 견학후](#)
[서커스 관람을 흥미진진하게 관람뒤 마지막 일정 전신 마사지로](#)
[그간의 피로를 날려 버리니 몸과 마음이 개운하다.](#)

아침에 떠난 화상산장을 밤 이속하여 돌아와
오늘의 일정을 모두 끝내니 이젠 오늘이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다.
나홀로 2인1실 숙소에 들어 외롭게 소주 한잔 기우리려 하는 순간
내 마음을 헤아렸나
산아로님이 초청을 하신다.

-
한병 남아있는 쇠주와 잔을 들고
산아로님 방에 들어 늦은 밤까지 이국의 밤을
한잔의 술에 정을 담아 마시며 나누며 마지막 밤을 보냈다.

-
-
-



-
-



- 중국 마지막날 2008년 5월 12일 월요일-

- 마지막 일정엔 시간적 여유가 널널하다.

화상산장의 맛깔스런 부페식당에서 배를 불린후

매점에 들려 아내에게 줄 선물로 보석 진주세트를 사며 시간을 죽인다.

- (화상 호텔 부페식당 여 종업원)



-
모든짐을 정리뒤 남는 시간을

화상산장 주위를 산책하기로 한다.

그런데

화상산장을 벗어나자마자 멋진 풍경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 잡는다.

진작 알았다면 좀더 일찍 둘러볼걸 하는 아쉬움이 드는 이곳은 휘주 문화원였다.

-
도로변엔 돌로 만들어 세운

거대한 문 10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되어 있는 구조물은

석질도 여러 종류요 문의 형태도 각색인데 이를 중국인들은「패방(牌坊)」이라 한다.

열녀문과 같은 의미의 석패들을 모아둔 곳 휘주문화원은

연못과 누각을 세운 멋진 건물도 눈에 띈다.

-
시간에 켜겨 다 보지 못한

휘주문화원을 서둘러 빠져 나와 버스에 오르자 이내 버스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달려 나간다.

-
(휘주 문화원 전경들...)

-









-
마지막 관광지

황산시내에서 아주 가까운

잠구(潛口:치엔커우)라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우리나라 민속촌과 같은 곳인데 마두정(馬頭精)이라는

독특한 지방양식을 가진 민가와 잘 정돈된 논이 있는 작은 마을이다.

잠구민택은,

마을 주변의 전형적인 명대 민가 10여동을 이축해 만든 것이다.

이 곳의 건축물은 역사적으로나 미술적으로 고유한 중요 건축물로 이 지방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건축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그곳엔

공예품과 함께 여러 기념품을 팔기도 하는데

재미있고 익살스런 목공예가 눈길을 끈다.

나올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돈 2000원인 예쁜 부채 하나씩을 들고 나온다.

-





잠구민택 관람후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한식당에 들려

돼지 삼겹살로 점심을 먹는데 예전 들렸던 그 집이다.

그 교민은 상주분으로 우리팀 상주 우체국 산악회 회원님과 같은 고향이라 서로들 반가워 어쩔줄 몰라 한다.

삼겹살 중식으로

중국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귀로에

라텍스 공장을 견학후 합비 공항에 도착하자 벌써 고향이 그리다.

예정보다 일찍 수속을 끝내고 조발한 비행기는 어느새 인천공항에 내리며

4박5일 5월의 황금연휴 기간 황산일정을 끝낸다.

(저녁으로 나온 중국 민항기의 기내식)



출국수속을 끝내고
짐을 찾아 인천공항을 나서자
한국을 떠날때 처럼 주룩주룩 비가 내린다.

충일팀에 끼여
대전을 향하는 나를 향해 이팀장님이
그동안 수고 하셨다며 중국산 껌 한보따리를 건넨다.
건네는 정을 무시할수 없어 엄치불구 하고 챙겨 대전을 향했다.

마지막으로 모든일정을 함께 할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
이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산에서 건강을....산찾사.이용호

산행지 : 중국 곤유산.철차산

산행일 : 2007년 1월 26 ~ 29일 (금~월요일)

누구랑 : 산찾사.초록앞새.시간여행.하늘채.이언수님. 박범승&옆지기

(이동 경로)

1일 : 대전(12:40)~인천항(15:40)~화동훼리 승선 출국(18:00)

2일 : 산동성 석도항(09:00)~출국수속완료(10:40)~곤유산 구룡지경구(12:30)
~ 곤유산 창산봉등정(3시간)~위해시 소피아 호텔(18:35)~발맛사지~꼬치집 뒷풀이

3일 : 소피아 호텔(08:50)~철차산 등정(10:55~13:20)~적산 법화원 관광후 석도항
입국수속

4일 : 인천항 09:30~대전 13:30

(중국 지도)

- 첫날. 1월26일-

작년 죽을 고생을 하며 다녀온 황산의 여파로

옆지기 초록앞새는 중국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내나라 내땅 그 아름다운 산하를 아직도 다 밟지 못했는데 굵이 갇은 고생 다하며

중국 뭐 볼게 있냐란 옆지기를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는 세계화의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하덜 말고 모든 비용은 나의 비상금으로 충당할테니 따라만 오라 겨우 설득

을 한후

함께할 산우를 물색하니 총 7명이 나서좁은 중국을 향한 나의 두번째 해외 트레킹을 준비한다.

중국은 넓고 넓은 땅으로

이쪽과 저쪽 끝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3시간 이상

기차로는 밤낮 일주일 넘게 달려도 못가는 우리 남한 면적 100 배의 광대한 영토다.

지도를 보니 산둥반도에서 한반도를 향해 톱 티어 나와 한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석도항이 있다.

그곳이 이번 우리가 가려는 3박4일 여정의 여행지다.

대전팀의 여권을 팩스로 보낸후

비상금이 있을리 없는 난 무조건 아내에게 여행경비를 보내라 억지를 부려

Amazing tou의 약자로 이름을 지은 **A M 트레킹** 이 희선님 앞으로 송금후 미리 회사에 연가를 내곤

떠날날을 기다리는데 일기예보는 하필 그날 폭설주의보라서 인천항 갈일이 걱정스럽다.

26일 아침

하늘을 보니 아직 눈이 내릴 기미는 보이질 않으나 잔뜩 흐렸다.

함께할 산우들과 이상기후로 늦을것을 우려 점심도 거른채 일찍 인천항으로 향했다.

아파트를 나서며 내리던 눈발이 고속도로를 접어들자 점점 더 거세진다.

천안 휴게소에서 쇠고기 국밥으로 점심을 대신하고 신갈 인터체인지를 지나

인천으로 향하자 다행히 눈은 소강상태를 보이니 지금껏 잘 달려준 이연수님의 카니발 승용차 하부에서

이음의 소음이 감지되어 살펴보니 외관상 별 이상은 없어 보여 내 경험상 파워 스티어링의 고장 같아

그대로 인천항 주차장으로 향했다.

인천항 제1 여객선 터미널에서

중국 곤유산과 철차산 트레킹을 안내할 이 희선님을 만나

간단한 우리의 일정 설명을 듣고도 시간이 남아 터미널 이곳 저곳을 살펴보니

우리가 가야할 석도항 배편과 운임이 적힌 안내판이 보이는데.

우리가 배정받을 특실 4인1실 편도운임이 14만원에 왕복은 22만원이다.

왕복 배값도 안되는 돈으로 3박4일 모든 일정을 진행시키는 A M 트레킹 이희선님의 노하
우가 신기하고 부럽다.

(인천 여객선 터미널 전경)

(출국 수속을 기다리며...)

도착한지 1시간이 넘는 지루함을 견디고

출국수속후 선실에 들어가 짐을 풀자 벌써 해는 넘어가 캄캄한 야밤이다.

잠시후 선식이 배식되고 산우들과 함께 부페로 제공되는 한식으로 배를 불리자
기분좋은 나른함이 온몸에 스멀스멀 스며든다.

(선실 식당에서 저녁식사)

(저녁 식사후 매점에서 커피로 후식)

밤을 꼬박 달리는 선실의 밤을 무료하게 보낼순 없는법.....

그것이 웨리를 이용한 여행의 묘미요 재미라 함께한 산우 모두가 멍치고

거기에 우리의 가이드 이 희선님이 함께 하니 화기애애한 술판이 흥겨워짐에

술이 약한 나도 분위기에 취해 한잔 두잔 받다보니 얼큰하게 취해 버렸다.

이번 트레킹엔 대전 7명과 인천 10명의 단출한 팀이 총인원이다.

지난주엔 100명을 인솔해서 다녀왔다는 가이드 이 희선님은 그래서 이번은 룰루랄라~ 부담 없이 편안히 휴양가는 여행의 느낌이란단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군대가서 하나 건진 친구 범승이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관계로 겨울의 뜬한 공사기간의 무료함을 달래려 갑자기 이번 여행에 합류했는데 술이라면 지고는 못가도 먹고는 갈수있는 타입이다.

시간여행님과 같은 회사 동료의 이언수님 역시 술 하면 한가닥 하는 인물이요 시간여행님과 하늘채 부부는 말하면 잔소리인 술도가의 고수들이라 꺼내어 놓은 술병을 보고 놀란 가이드님 일찌감치 꼬랑지 내려 달아나고...

가져간 맥주피티병 2병에

쇠주팩의 빈병이 늘어가는 사이 그것도 모자라

면세점에서 사온 중국의 독한 고량주 큰병 2개가 비워지고도 끝을 몰라 내일을 위해 강제로 자리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든다.

인천산악회 회장님과 나에게 특별히 2인1실을 배정해 줬으나

산우들과 함께 잠을 자려 남자 3명인 방에 그냥 몸을 뉘었는데 날씨탓에 심하게 흔들리는 배의 요동과 치사량을 넘긴 나의 주량으로 속이 심하게 울렁거려 도저히 잠을 이룰수 없는 고통이 엄습한다.

화장실을 몇번이나 들락날락하다

침대를 벗어난 선실의 응접실 바닥에 몸을 뉘었는데 얼핏 잠이들었다 깨어난건

선실을 진동하는 친구 범승이의 코고는 소리다.

속은 진정이 됐으나 소음에 더이상 잠을 잘수 없어 그냥 뜯 눈으로 밤을 지냈다.

(선실에서의 파티)

-이틀날. 1월 27일-

18,000 톤, 평균속도 21노트. 정원 750명의 화동훼리 대선단을 밤새 흔들어대던 풍랑이 새벽이 되자 진정의 기미가 보이더니 산동반도 석도항에 도착하면서 새색씨처럼 잠잠해진다.

선실에서 제공하는 조식을 먹던중 하늘을 보니 붉게 물드는것 같아

얼른 식사를 끝내고 선실 갑판으로 뛰어나가 짙은 운무에 쌓인 동쪽하늘을 뚫고 올라오는 일출을 잡았다.

(선상 일출)

접안이 끝나고도 하선까지는 지루한 기다림이 이어진다.

갑판에서 석도항을 내려다 보니 작년 일조항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일조항의 첫 느낌이 빛바랜 6~70년대의 사진을 보는 풍광인데 반해 이곳은 깔끔한 느낌으로

우리 조국과 별반 다르지 않음이 느껴진다.

석도항 뒤로 웅장하게 다가서는 암릉의 산은 바위가 붉다 하여 적산(369M)이다.

그래서 이곳 석도항의 옛이름이 적산포다.

그 적산아래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과 붉은 지붕을 한 마을이

그 옛날 우리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 신라방이다.

적산 법화원 유적지는 마지막날 일정에 포함 되어있다.

(배의 갑판에서 바라본 석도항과 적산의 모습)

출국수속을 끝내고 석도항을 나서자

중국의 모든 일정을 함께할 가이드와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버스는 내 예상과(?) 다르게 아주 깔끔하고 기사 또한 안전한 운전솜씨로 신뢰를 준다.

곤윤산으로 이동하는 1시간 30분 동안 간간히 가이드의 산동성에 대한 안내멘트가 이어지는데

질게 베어나오는 북한 사투리에 간간히 웃음이 이어진다.

인구 40만의 석도는 물이 없어 주로 밀을 생산하는 관계로 주식이 빵이고

과일이 많이 생산되며 특히 그중 이곳의 앵두는 특산품으로 아주 비싸다는게 대략적인 설명이다.

석도의 도심을 벗어나자

끝없이 펼쳐지는 들판이 이어지며 산들을 볼수 없다가

울퉁불퉁 암릉의 연릉들이 저멀리 보임에 곤유산이 가까워움을 알수있다.

이곳 지리를 훤히 알고있다는 운전기사가 버스를 들이댄곳에 이희선님이 내려서더니 잘못 들어왔다며 버스를 돌린다.

운전기사가 도착한 곳은 일반적인 관광객이 오는 곳으로

곤유산 최고봉 태박정까지 차가 오를수 있단다.

트레킹을 위한 우리의 산행들머리 구룡지 경구 입구에 도착하자 그곳 민가에서 키우는 개,고양이, 오리, 닭들이 먼저 우릴 반겨준다.

(곤윤산 구룡지 경구 주차장에서 단체사진)

국가 A급 산림공원 곤윤산의 창산봉 등정에 앞서

주차장에서 인천팀과 함께 기념사진으로 증명을 남긴후
살포시 내린 눈을 밟고 숲을 향해 중국 조선족 산행가이드의 뒤를 따른다.

콘크리트의 길을 따라 오르다 갈림길에서 구룡정을 향한 우측길을 버리고
좌측의 소로를 따라 둔덕을 하나 넘으니 산의 계곡물을 막은 저수지 구룡지가 나오고
구룡지를 넘자 비로소 소나무 울창한 숲길 이어지다 얼음으로 뒤덮인 구룡폭포가 반긴다.

구룡폭포를 지나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

선등자가 없어 아무도 밟지 않는 흰눈을 살포시 밟으며 오르는 암릉은
상당히 미끄러워 여간 조심 스러운게 아니다.

가는데 까지 진행해 보려던 마음을 접고 모두들 아이젠을 하라 이룬후
조선족 가이드를 앞질러 우리 대전팀이 선등하여 창산봉을 향한 오름길에 추위가 가실쯤 나
타난

갈림길에서 진행을 멈춘후 나홀로 우측의 길로 들어 가보니 등로는 계곡길로 이어진다.
되돌아 나와 우측의 암릉길을 택해 후미일행 모두 올라서자 조선족 가이드가 인천팀을 인솔
하여

올라서다 우릴보고 그쪽길은 상당히 위험하니 조심해 가시라며 만류는 않는것이 우리의 산
행능력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인정하는것 같다.

(암릉길에서 자라바위..)

눈길의 바위는 생각보다 미끄러워 조심스럽다.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아 눈 덮인 등로는 희미하나 외길의 능선임에

길 잃을 염려는 없애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여 진행하다 바람이 잔 암릉의 양지바른곳에 자리를 잡고 산행전에 나눠준 일용할 양식인 차디찬 김밥으로 고픈배를 달래준후 산행을 이어나간다.

중식후 암릉을 타고 오르다 보니

암릉 아래 계곡길로 인천팀이 오르는게 보인다.

커다란 바위를 하나를 타 넘어 둔덕을 내려오자 계곡길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난다.

이후 등로는 외길로 창산봉까지 이어진다.

드디어 곤유산 창산봉 정상에 올랐다.

철탑과 함께 태양열 집열판의 시설이 자리잡은 정상엔 그러나 정상석은 없다.

창산봉아래 병풍처럼 펼쳐지는 드넓은 산봉오리의 모습은 장관이다.

창산봉 바로 앞의 곤유산 정상 태박정은 운무에 살짝 가려 그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

곤유산....

중국도교의 발원지며 구룡지경구(九龍池景區), 연하동경구(煙霞洞景區),

태박정경구(泰 頂景區), 악고전경구(岳姑殿景區), 무염사경구(無染寺景區) 등의 관광 구역을 끼고 있는

곤유산의 한 봉우리 창산봉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장엄하다.

얼마후 뒤이어 올라선 가이드에게 저기 보이는 태박정에서

이곳 창산봉까지 줄기능선을 이은 산행이 가능한가를 물어보니 능선길이 이어진단다.

암릉과 때론 육산이 어우러진 이곳 능선을 잇는 종주산행이 가능하다니 가슴이 울렁댄다. 시간과 돈과 육신의 힘이 허락되면 꼬옥 다시 한번 찾아 종주산행을 하고픈 생각이 간절하게 가슴을 친다.

(곤유산 창산봉에서 바라본 풍광들)

(운무에 살짝 가린 곤유산 정상 태박정)

(창산봉 정상에서 초록앞새)

창산봉 정상에서 내림길은
우리가 오른 암릉의 능선옆 계곡길로 내리다
구룡지 구룡정을 거쳐 앞서간 우리일행의 족적과는 다르게 나홀로 용왕각에 올랐다.
용왕각엔 평범한 중국인의 모습과 닮은 용왕 부부의 신상이 모셔져 있다.

(용왕각의 신상)

용왕각에서 구룡지경구 주차장에 내려서자
나를 앞서간 일행들이 뒤늦게 내려오다 먼저 내려선 나를 보고 놀란다.
축지법을 써서 먼저 내려왔노라 산우들께 너스레를 떨어대며 으시대자 모두들 웃는다.
우리 대전팀이 내려선후 30분쯤이면 도착할것이란 예측이 빗나가며
1시간을 추위속 기다림에 떨게 만든 인천팀이 도착함으로 오늘의 일정 곤유산 무사산행의
끝을 맺는다.

산행을 끝낸후

숙소로 정해진 위해시의 소피아 호텔에 여장을 푼후
인근의 한식 음식점에서 늦은 저녁을 먹는데 메뉴는 토닭곰 이란다.
이곳에서 나온 반찬중 향이 짙게 우러나는 야채를 한수저 떠 먹은 초록잎새는
비위가 상했는지 다른 음식까지 먹지못해 내 속을 태우는데 내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왜 밥을 안 먹냐는 나의 말에 신경질만 내다 청도맥주는 입맛에 맞는지 맥주만은 잘도 들이
킨다.

(촌스런 간판이 돋보인 한인 음식점)

(저녁 식사중 대전팀을 위하여~)

한인 음식점을 나온뒤
중국여행의 연례행사인 발 맛사지에 나선다.
전신 맛사지에 한국돈 만오천냥이라 모두들 받아보겠다는데 우리만 빠질순 없어 전원
중국 조선족 가이드가 안내하는 맛사지 업소로 직행했다.

(발 맛사지 업소 전경)

발 맛사지는 기대완 다르게 별 볼일 없다.
가냘픈 소녀가 성의껏 주무르고 두들기는게 가여워 손짓 몸짓으로 나이를 물어보니 15살이
다.
우리 막내보다 두살이나 어린것이 땀을 비질비질 흘리는게
한편 가엽고 한편 이런 어린것에게 서비스를 받는 내가 양심에 걸려
도저히 인간이 할짓이 아니란 생각에 1시간 이상 앉아 있는 동안 바늘방석에 앉은듯 불편하
다.

다행히 소녀들은 이런 업소에 일하는 소녀치곤 활발하고 쾌활한데
대장금의 주제곡을 흥얼거리자 창을 해달라 졸라 한오백년과 도라지 타령 밀양 아리랑을 불
려주니
손뼉을 치며 아주 좋아하며 답곡으로 중국노래 한국을 합창으로 뽑아댄다.

맛사지 업소에 들릴때

AM 트레킹 이희선님이 요금에 팁도 포함됐으니 일절 팁을 주지 말라 했어도
1시간 이상 성심성의를 다하는 어린소녀들을 외면할수 없어 옆자리 친구 범승의 지갑을 털
어
천원의 팁을 손에 쥐어주고 맛사지 업소를 나왔다.

(발 맛사지집의 소녀)

맛사지 업소를 나온 일행 모두

그렇게 먹고도 소화기관은 왕성한지 뒷풀이를 위해
가이드의 안내로 위해시의 먹자골목의 꼬치집을 찾았다.

우리입맛에 맞는 이곳의 메뉴는 돼지고기와 양고기를 꼬치로 구워 각종 주류와 함께 판매한
다.

청도맥주와 중국 고량주등을 시키고 얼큰한 신라면까지 식탁에 올린 우리의 화려한 만찬에
모두들 입이 즐겁다.

배가 부르고 술이 올라 거나해지자

홀로온 언수님이 중국의 조선족 가이드에게 나 외로우니

짜을 하나 구해달라 농을 던지니 우리돈 십만원이면 얼마든지 하룻밤 여인을 구해주겠노라
말을 한다.

그러나 중국이란 나라에 오면 정말로 조심할게 여자다.

중국에는 부부임을 확인해주는 신분증인 일명 부부 신분증이라는 것이 있다.

남녀간 호텔에 들어갈 때 이 부부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 들어갈수 없다.(물론 외국인은 제외)

이런 사실을 모르고 중국여성과 함께 호텔에 투숙해서 잡혀가는 한국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재미 있는것은 밤 12시 이전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단다.

이런점을 노린 꽃뱀과 중국 공안이 짜고 여행온 한인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뒀야 한다.

중국이란 나라는 되는일도 안되는 일도 없다란 말은 뇌물을 쓰냐 안 쓰냐의 말과 같다.

간통죄가 없는 대신 밤 12시를 넘겨 중국여인과 투숙하다 잡힌 사람은 거액의 뇌물을 써야 풀려날수 있단 얘기다.

만일 매춘행위로 적발되어 여권이 압수됨은 물론公安국에 연행되어 처벌을 받고 처벌후엔 好色(호색)이란

도장이 찍히게 되어 다음부터 중국 출입을 금지 당하고 싶은 욕감무쌍한 인간이 있다면 말리진 않겠으니

한번 해보시라. 뿌리 한번 잘못 놀린죄 나라망신 폐가망신임을 해외여행자여 명심하라.

아무튼

먹자골목 꼬치집을 나오며 계산을 하니

그렇게 실컨 배터지게 먹고 마신값이 우리돈으로 2만 6천원이라 또 한번 놀랬다.

위해시 먹자골목의 파티로 이틀밤을 장식한 우린 3성급 소피아 호텔 2인1실에 들며 중국일정의 이틀째 밤을 아늑하게 보낸다.

(양고기 꼬치구이)

(중국 전통 고량주)

(꼬치집에서 대전팀 모두 위하여를 외치며~)

후편으로....

-사흘날-

깊은잠에 든 이른 아침 모닝콜에 잠을 깬다.

먼저 샤워를 하고 모든짐을 정리하여 베낭을 꾸려놓고 16층 식당으로 향한다.

이것저것 먹을것을 담아 자리에 앉아 산우들과 아침식사를 하는데 계란 삶은걸 입에 넣으니 완전 소금덩어리다.

그외 이것 저것 보기 좋아 담아온 음식이 하나같이 모두 짜다.

그나마 우리 입맛에 맞는건 만두 찐빵과 팔죽뿐...

나중에 우리곁에 온 가이드말이 이곳의 주식이 빵이라 우리가 가져온 반찬종류는 빵에 발라 먹는것으로 짜게 만든단다.

식사후 커피를 마시며 위해시 소피아 호텔 최고층에서 내려다 본 시내 풍광은 참 아름답고 청결하단 느낌이 든다.

(소피아 호텔 조식)

(호텔 레스토랑에서 내려다 본 위해 시내 풍광)

지난 한밤중 별들이 초롱초롱 했던걸 기억하는데

어느틈에 눈이 내렸나 아침식사후 철차산 등정을 위해 나온 시내 거리는 온통 빙판이다.

중국엔 무질서 속에 질서가 유지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의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교통문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역주행은 물론 사람 자전거 버스 자가용등이 뒤섞인 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완전 아수라장 이다.

중국인들은 그네들만의 독특한 본능적인 질서가 있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기다린다

공간이 비면 들어갈 줄 알며 뒤 따르는 사람은 양보할 줄 한다.

그러기에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사고로 사망하는 자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다니 참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이곳 위해시는 부자들이 사는 도시라 그런지 건물과 사람들이 세련됨을 알수가 있는데 작년 황산을 가기위해 13시간 버스로 이동하며 본 다른 도심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남을 금방 알수가 있다.

그때 황산을 가며 바라본 도시는 회색빛의 우울함이 깃든 마치 유령의 도시를 보는듯 했고 거리는 짐승과 사람 자전거가 함께 뒤섞여 아수라장을 연상케 했었다.

사람들 또한 몇년 씻지도 못한 듯 한 얼굴에 부시시한 머리와 남루한 옷차림 일색였는데 이곳 거리의 사람들은 우리 조국 한국 서울 도회지의 세련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볼 수가 있다.

위해시내는 온통 빙판길인데도

그곳을 운행하는 차량들은 체인하나 감지 않고도 번잡한 거리를 운행하고 있다.

차량들 틈새를 오토바이 자전거가 미끄러지지 않고 요리조리 잘도 빠져 나가는걸 보노라면 마치 묘기 대행진을 보는 느낌으로 운전기술이 최고로 좋은 나라는 중국이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중국의 거리엔 자전거가 아주 많은데

특이한것은 자전거마다 등록번호가 있으며 우리나라 자동차세 처럼 일년에 얼마씩 자전거 등록세를 내야 한단다.

(눈으로 빙판길이 된 위해시의 거리)

빙판길이 된 도로로 인해 예정된 시간보다 더 걸려

철차산 청량정을 향한 들머리에 버스가 도착하여 내려보니

뭐 이런곳을 다 데려왔나란 느낌이 우선 든다.

황량한 벌판 한 가운데서 바라본 청량정을 향한 들머리엔 눈에 거슬리는 채석장이 있다.

몇년전까지 돌을 캐내다 이곳 산을 찾는 한인이 늘고부터 상품적인 가치를 뒤늦게 인식한

중국정부가

전면 채석을 금지 했다 하니 자연적인 문화유산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일깨워준다.

철차산은 영성시 남부 해안가의 산이며 539.8 m 의 청량정이 주봉이다.

다엽정,봉황정,향로정,대도정,홍화정,용정정,낭호정,탁자정등 9개의 봉들이 해무가 끼면

망망대해의 뗏목이 떠있는 형상임으로 구정철차산이란 이름을 얻었다 한다.

철차산은 도교의 발상지로써

1991년 산동성 정부의 허가로 성급 관광 명승지로 지정됨과 동시에

영성시 인민정부에서 철차산 풍경관리처가 신설되어 등산과 관광이 시작됨에

1992년 국가 임업부에서 국가급 삼림공원으로 명명 되었다.

(철차산 들머리 풍광으로 우측 채석장을 지나야 본격적인 등로가..)

철차산의 등로는 진행방향 우측으로

채석장을 낀 계곡을 거슬러 올라 안부의 사거리에서 우측 암릉을 향해 오른다.

이곳 부터 터지는 조망은 붉은색 지붕이 일색인 마을풍광과 더불어 시원한 바다가 보인다.

조선족 산행가이드의 말로는 오징어 덕장이 산 아래 있어 꼬리꼬리한 냄새가 난다는데 바람이 그곳으로 불어 그런지 전혀 그런 냄새를 맡을수 없다.

철차산 청량정을 향한 길에서 조금 내려선 암릉의 아래엔

조그만 절 하나가 있어 들여보니 그곳의 관리인인지 주지인지 사람하나가 나와 입장료로 돈 천원을 요구한다.

차산 천불사란 이름의 그 절을 들어가 보니

동굴을 파고 석굴에 부처님상을 빼곡히 돌을 쪼아 만들었다.

차산 천불사란 이름으로 미뤄 짐작하건데 아마 그 부처상이 천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차산 천불사의 전경)

(차산 천불사의 석굴모습)

차산 천불사를 뒤돌아 나와 청량정으로 향한다.

청량정으로 향한 암릉은 잔설이 얼어붙어 미끄럽다.

마지막 정상을 향한 암릉을 타넘고 올라서자 일망무제로 펼쳐진 풍광이 장관이다.

이곳 정상에서 적산까지 암릉의 능선줄기가 이어진다니 석도항에 내려 바로 적산을 올라 이곳 청량정까지의 종주능선은 2박3일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정상에 올랐으니 하산이다.

날만 좋다면 릿찌코스로 원점회귀 산행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왔던길로 뒤돌아 가야 된다는 조선족 가이드말에 서운함이 왁각 밀려든다.

혼자라도 좀 그곳으로 하산하면 안되겠냐 물어보니

그냥 왔던길로 내리란다.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대전팀과 함께 하산하다 안부 사거리에서 아주 가까워 보이는
암릉을 가보려 나홀로 진행해 보지만 뻑뻑히 들어찬 소나무의 잔가지가 길을 막아 포기하고
뒤돌아 선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광)

(철차산 정상에서 아내와)

무사히 철차산 정상을 내린후

들판에 둘러앉아 김밥과 맥주를 곁들인 점심식사를 끝날때까지

오늘도 인천산악회팀의 하산이 늦어지고 있다.

Am 트레킹 이희선님은 적산 법화원 관광과 출국수속의 시간 때문에
조선족 가이드에게 핸드폰으로 어디쯤 오냐 통화를 하며 초조함을 보인다.

우리가 식사를 끝내고 30여분이 더 지난 뒤 모두들 하산이 완료됐다.

인천팀이 식사를 하는 동안 조선족 가이드가

버스의 짐칸에서 한보따리의 의류를 꺼내어 혹 필요한 등산 의류가 있음 사라 펼쳐놓는다.

이 세상에서 진짜는 어머니밖에 없다는 중국은 짝퉁의 본거지다.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전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

짜통으로 만든 외국의 고급 승용차가 중요 부품외 모든것이 순정품과 호환이 된다니
그네들의 기술이 놀랍다.

신기술이 그 정도니 의류는 당연 명품과 짜통의 구분은 전문가도 판별 불가다.

국내서 2-30만원대의 노스 페이스 윈드 스트퍼 자켓이 2만원만 달란다.

그중 우모자켓을 골라 가격을 물어보니 8만원이란다.

국내선 40만원대의 가격이니 헐값이 분명하나

이곳에선 너무 남겨먹는것 같아 깎아달라니 그건 1원 한푼 깎아줄수 없다하여

좀 껄씹한 생각이 드나 평소 갖고싶던 의류라 그냥 노스페이스의 라벨을 뜯어내어
걸쳐입곤 아내에게 돈을 주라곤 도망이다....

(하산 완료후 기다리는 버스로)

모든 일행이 철차산 등반후 곧바로 적산 법화원 장보고 유적지로 향했다.

일본 헤이안 시대 천태종 승려 엔닌 스님이 입당구법한 내용을 일기체로 쓴

입당구법 순례행기로 비로소 알려진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적산 법화원에 관한 이야기는
하버드 대학 아리샤워 교수가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늦어진 산행시간을 단축하려

이 희선님이 입장료를 더 지불하고 적산 명신의 동상 앞 주차장까지 차로 올랐다.

산동성 석도항이 시원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한 장보고 상은 명신으로서 바다의 풍랑을
잠재워 주는 신으로 이곳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무게만 300톤의 적산 명신상은 바라만 봐도 웅장하여 모든이를 압도한다.

명신상 아래엔 옥으로 세긴 장보고 활동부도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촬영금지다.

그곳을 둘러본후 걸어내려 오며 높이 8m 무게 6톤의 장보고 상이 자리한 박물관에 들린후 법화원에 들어선다.

지금은 조그만 사찰이나 장보고 시절엔 500여명이 기도 하던 대 사찰였단다.

장보고..

그는 신라시대의 극심한 신분제도에서 벗어나 당나라로 밀입국하여 장교로 입신한후엔 동북아 물류의 물꼬를 튼 대 선단을 이끌고 해상왕으로 이름 떨친인물이다.

820여년전 신라인을 위해 세운 절

적산 법화원에서 장보고의 업적과 기상을 온몸으로 느끼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귀국 수속을 위해 석도항으로 향한다.

(적산 법화원 유적지 풍광들...)

석도항에 도착하자 조선족 가이드가

우리에게 미리 주문받은 농산물을 나눠주며 돈을 받아 챙긴다.

검정깨,참깨,서리태,녹두,등 농산물은 우리네 시세로 봐선 완전 헐값이다.

올때는 빈손였는데 갈때는 모두들 농산물을 구입한 탓에 등엔 베낭 양손에 농산물 보따리를 들었다.

이들을 함께 보낸 조선족 가이드와 작별후

승선하여 처음 우리가 들었던 선실에 들어오니 떠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고향이 그립다.

마음이 고향을 향하는 조급한 마음과는 달리
설 명절을 한달여 앞둔 시기라 그런지 짐을 산적하느라 늦어진 출항은
예정시각에서 3시간을 늦게 고동을 울리며 서서히 어둠이 깔리 석도항을 벗어난다.

(저녁 노을에 잠긴 석도항)

무사 산행과 여행을 자축하는 선상파티로
대전팀이 한방에 모여 밤 늦도록 술과 안주를 비워내다 안주와 술이 바닥날쯤
얼큰한 라면이 생각난다 하여 자판기의 컵라면과 맥주를 빼먹기 위해 매점앞에 나가 지갑을
여니
잔돈이 없어 아랫층에서 밤세도록 마작과 노름을 즐기는 타이궁들에게 잔돈을 바꾸러 내려
간 비웠장 좋은
친구 범승을 윗층에서 내려다 보며 사진을 한방 찍자 타이궁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리를 질러댄다.
얼른 카메라와 몸을 숨긴다.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며 물건을 운송해주는 자들을 타이궁이라 하는데
거의가 다 거칠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네들의 비위를 상하게 할 필요는 없다.
특히나 중국인이나 조선족은 한국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해
한국사람을 한국 놈이라 부른다는걸 알아야 한다.
이런 원성은 중국을 먼저 다녀간 선배들의 훌륭한 업적(?) 때문인데
하나같이 여자들을 유린하고 사기를 친 사례가 너무 많고 한국에 돈벌러 다녀온 조선족들로
부터
학대와 멸시에 온갖 수모를 다 당했던 일을 전해 들은 탓이란다.

특히 조선족은 한국민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심한것은
1996년 6월달에 발생한 원양어선 페스카마호 15호 선상반란 사건 이후다.

중국 조선족 6명이 꿈을 이루기 위해 중국돈 15만원, 한화로 2500만원의 빚을 내서 북경을 거쳐 서울에 도착후 바로 사이판을 거쳐 파나안 섬으로 가서 한국해양수산 소속 원양어선인 페스카마호 15호에 승선 근로자로 일하게된 첫날부터 생전 배를 타 본적 없는 조선족들이 배멀미로 구토를 하자 무자비한 구타가 시작된다. 그래도 조선족은 최선을 다해 맞아가며 작업에 전력을 다한다. 그러나 폭언과 구타가 이어져 머리가 터지고 팔다리가 못 쓸 정도에 이르자 그냥 집에만 보내달라 하소연을 하는데 귀국시켜 줄테니 신청서에 지문을 찍어라 속인후 신청서 뒷장에 지금껏 숙식과 비용을 송금하기전까지 사모아 구류소에 구금시킨다는 내용으로 인해 출국을 위한 손해배상과 수속비용이 늘어 1인당 빚이 삼천만원으로 늘어나는데 그 비용은 그들이 100년을 갚아도 못갚을 어마어마한 돈이다. 말 그대로 절망속에 빠진 그네들은 어차피 죽을 바에야 그들을 이지경으로 몰아 넣은 선장을 죽이고 말자 결심후 선장과 갑판장을 비롯한 11명을 살해 바다에 던져 버린다. 6명의 조선족은 일본 해협에서 체포되어 12월말 한국에 이송되어 한국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조선족 사회에 일파만파로 번져 구명을 위한 모금이 시작되고 향소심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구명운동을 벌이나 그네들은 끝내 사형을 선고 받는데 한국의 수구언론들은 그런 전후사정은 뚝 자르고 야만적인 그네들의 살인행각만 집중보도하여 조선족에게 또 커다란 상처를 안긴다.

중국과 월드컵 예선 축구가 열리던 어느날 중국을 여행한 어느님이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하던 조선족 가이드가 한국에게 중국이 경기에 지자 난리 부르스를 치며 한국축구 대표팀에게 욕을 해대더라며

그새끼들 무늬만 한민족이지 중국놈들여 하던 말이 생각난다.

모든게 자업자득이다.

더이상 조국과 등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이 시점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게 아니가란 생각을 해본다.

(밤세도록 노름을 즐기는 타이궁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선상파티에

초록앞새 슬며시 나가고 뒤이어 친구 아내가 따라 나가며

시들해진 분위기는 파장으로 이어짐에 오늘은 원래 배정된 나의 선실인 2인1실 특실에
지친 몸을 누여 마지막 선상의 밤을 보낸다.

중국을 떠날때완 다르게

파도는 잔잔하여 배의 요동을 전혀 느낄수 없다.

늦게 잠든 탓에 아침식사를 알리는 안내방송에 눈을 뜬 우린

마지막 선식을 들며 입항을 기다린다.

아침식사를 끝낸후

갑판으로 나서자 해무를 뚫고

붉은빛의 아기햇살이 쏘옥 고개를 내밀어 어둠을 밀어내고 있다.

(갑판의 풍광)

(선상 일출 장면)

예정된 시간보다 30여분 늦게 도착한 배에서 내려
여객선 터미널을 빠져 나오며 3박4일 여정의 중국 해외트레킹을 끝낸다.

한중수교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찾고 있다.
거대한 나라 중국을 다는 알수 없으나
야릇한 매력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중국의 문화와 생활상을 얼핏 체험하고
내가 좋아하는 산들과 멋진 풍광을 접할수 있는 중국은
앞으로 두고두고 내가 찾아 가야할 매력적인 여행지임이 틀림없다.

3박4일 여정 동안
그림자 처럼 우리의 뒤를 돌봐주고 챙겨준
AM 트레킹 이희선님께 이글을 통해 감사를 드린다.

(인천항 제1 여객선 터미널에서 이 희선님과 헤어지며...)

산에서 건강을...산찾사

대원들은 다행 그러나 나에게 서운함을 안긴 일본 북알프스 종주 1 편

2008.08.07 13:42

어느날 : 2008년 8월 02일(토)~06일(수)

어디로 : 일본 북알프스 야리~호다카 종주

누구랑 : 울산에서 서울까지 나의 산우들 16명.

워째서 : 일본(日本)을 왓본(臼本)으로 맨들러...

으떻게 : 그네들이 뽐내는 명산을 꾸욱 발로 밟아 기를 눌러 日을--->臼로 변환

그래서 : 못했슈~

왜~? : 그네들에 비해 아직은 부족한 함량미달의 문화민족 한계 때문에....

-산행경로-

8월 02일 토요일 (맑음)

버스 대전 04:35 발 인천공항 07:20 착

oz 122 인천공항 09:15 발 나고야 11:20 착

버스 나고야 12:15 발 히루카노 고우겐 휴게소 13:33착 (중식)

휴게소 14:20 발 다카야마 전통거리 16:13착 (관광)

다카야마 17:08 발가미고지 주차장 18:25 착

고나시타라 롯지 1박.

8월 03일 일요일 (맑음)

-고나시타라 롯지 07:20

-명신(묘진관) 07:50 - 08:00

- 도쿠사와 산장 08:45 - 09:00
- 신천교(신무바라시) 09:12
- 요코산장 09:50 - 10:13
- 이찌노마다 두번째 지류 목재다리 11:00
- 수력발전소 11:17
- 야리사와 롯지 11:25 - 12:10 (중식)
- 바바 다이라 캠프장 12:25 - 12:30 (식수 보충)
- 텐구바라 분기점 13:50
- 야리산장 16:07 착 (숙소 배정) - 17:15
- 야리가다케(창봉) 17:30 - 17:50
- 야리산장 18:10 착 19:00 석식후 1박

8월 04일 월요일 (오전 비 오후 갬)

- 야리산장 06:36
- 오바미다케(3101m)
- 나카다케 (중악. 3084m) 07:30
- 미나미다케 가기전 갈림길 07:55
- 미나미다케(남악.3032.7m) 08:30
- 미나미다케 산장에서 라면과 커피로 추위를 달램.
- 오기렛토
- 기타호가다케 산장 13:40
- 기타호다카다케 (3160m) 14:00 - 14:15
- 가라사와 다케 (3110m) 16:45
- 호다카 산장 17:10착1박

8월 05일 화요일 (오전 흐림 오후 대체로 맑은날에 곳에따라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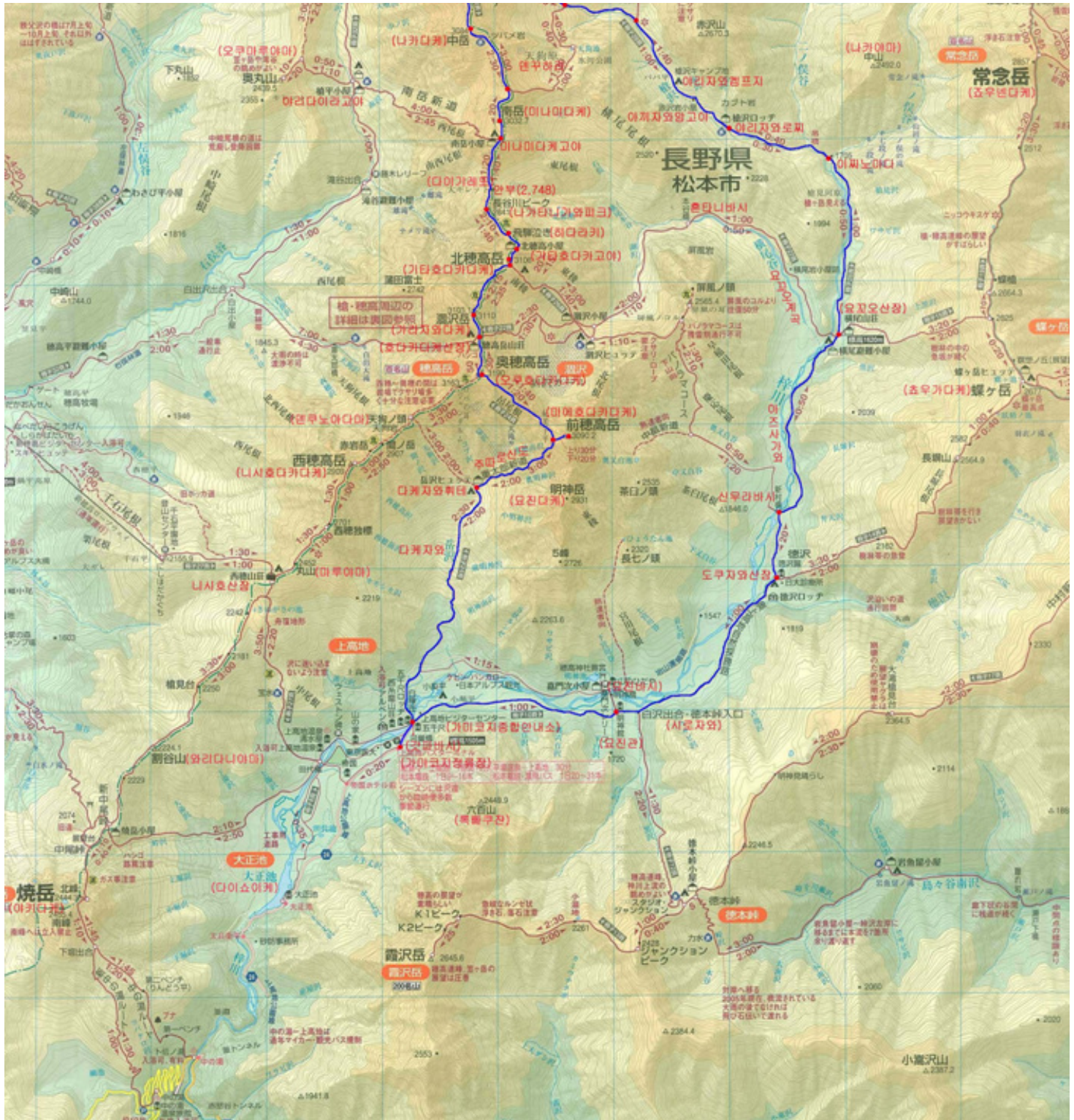
- 호다카 산장 06:15
- 오쿠호다카다케(3190m) 06:52 - 07:05
- 기미코 다이라 08:16 - 08:20
- 마에호 다카다케(3090m) 08:34 - ?
- 기미코 다이라 09:20
- 다케사와 산장 11:30 - 12:05 (중식)
- 갓파바시(하동교) 13:40 착 산행 종료.
- 가미고지 주차장 14:15
- 히라유 온천 14:40 - 15:50
- 나고야 사카에로 이동하여 등산 장비점 견학후 한식당에서 석식.
- 도오코인 호텔 1박

8월 06일 수요일 (맑음)

- 09:30 나고야 공항으로 이동
- 12:00 나고야 중부공항 출발
- 14:00 인천공항 도착
- 14:40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출발
- 17:20 대전청사앞 착.

(산행지도)





-산행후기-

나는 도시인이다.

직장도 집도 도시에 있기에

도시를 떠나선 살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러기에...

난 더욱 더 자연을 동경하며

자연속 삶의 진실과 철학을 얻고자 몸부림을 치대는건 아닌지 ?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산업사회속에서 미련 곰탱이 같이

원리원칙만 고집하는 나의 성격으로 인해

이래저래 상처받은 내 영혼의 저 밑바닥 아웅성 울림은 단하나

속세의 관습이나 규율 따위를 무시한 방랑과 자유분명한 삶을 사는 보헤미안 이다.

광통신 인터넷 정보와 함께

신화속 페가수스보다 빠른 비행기와 자동차가 세상을 지배할수록

도심속 나의 삶엔 촉촉한 감수성이 메말라 가뭄의 논바닥 갈라지 듯 쓰라림만 남았다.

회색빛 도심의 삶에

새로운 삶으로 채움의 탈바꿈 계획을 세운다.

방법은 숨가쁜 일상을 벗어난 일탈....

일상탈출을 계획하는 동안

함께 할 산우를 모집하는 과정의 이런저런 사연 끝에

최소한의 걱정인원으로 팀이 꾸러지고 가슴 설렘만이 남은 전날..
필봉님 아우의 전화한통에 정신이 번쩍든다.

"넌 너른쑤 형님 생신인데 으떨할규~?"

난 참말로 무심한놈이다.

이런저런 모든일 항상 세심히 챙겨주는 형님의 생일을 잊다니....

저녁 만남을 정해놓고

떠나기전 오늘 반드시 처리할 일이 있어

주차장에 티코를 후진하는데 작은 충격에 머리끝이 쭈뼛 일어선다.

얼른 나가보니 오래된 써금써금한 엘란트라에 운전석 옆 부분과 스쳤다.

운전석엔 젊은 여인이 나와

후진하는거 봤는데 천천히 나오길래

얼른가도 될것 같아 들어왔다며 무척 미안해 한다.

우야튼

원인제공이야 그녀가 했지만 나의 과실이다.

차 수리만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날 저녁 모임에 한통의 전화를 받는다.

티코 후미 시그널 조금 깨진 정도의 충격인데 여기저기 아파 병원에 들어 눕겠단다.

참말로 무서운 세상이다.

얼마전 훌쩍제 운행이 불편해 아내에게 투산을 내준날

투산의 뒷범퍼가 주저앉을 정도의 사고를 당한 아내는 몸 멀쩡한데

뭘라 병원가느냐 며 차 수리만으로 사고처리를 끝냈는데 한결같이 주위사람들은

편하게 돈 벌 기회를 놓?다며 우릴 이상하게 봐 의야하게 생각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고방식이 어둡한 우리부부만 몰랐지 모두 다 이런가 보다.

숨막히는 살벌함이 감도는 이 도심이 정말 싫다.

그냥 떠나려 했는데 반드시 떠나야 할 필연의 사연이 또 생겼다.

캄캄한 야밤 아파트를 나섰다.

대전 청사앞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정류장에 이르자

먼저 도착한 산우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미리 예매한 버스표를 나눠준후 시간에 맞춰 도착한 버스에 오른다.

일본 북알프스를 추진하자

주위분들 한결같이 우리땅 독도를 지네들 땅이라 우기는

싸가지없는 놈들 나라엔 뭐라 가냐 비난조로 물어올때마다 나는 이런말로 응대했다.

날일(日)자로 시작되는 일본을 나의 두발로 조근조근 밟아 쭈그러뜨려 말왈(曰)자 왁본으로

만들어 주둥이만 살아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거창한 나의 거사에 합류한

울 사무소 최고참 오 백영 형님의 결의에 찬 근엄한 얼굴 뒤로

처음 이국을 향한 첫경험이 걱정스런 이 흥식 사모님이 마중 나왔다.

이흥식 사모님의 근심과 걱정이 담긴 끈끈한 시선을 뒤로 이윅고 최신식 시설의 리무진 버스는 어둠을 가르며 인천공항을 향한 질주를 한다.



설핏 잠든 나를 깨우는 전화...
먼저 공항에 도착한 나의 산우들이다.
M 카운터에 가 기다리라 말해 준다.

휴가철이라 그런가 ?
M 카운터 앞 아시아나 항공 OZ 122 티켓팅을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다.
좀 늦게 도착한 나쁜 본 이팀장님께 얼른 여권부터 건넨다.

짐을 붙이고

티켓을 받아들고 보니 16석중 14석이 비즈니스석이다.

일반석만 팔린 좌석권을 할수없이 배정하다 보니 늦게 도착한 우리팀이 재수 좋게 당첨됐다.

오~예~!!!!

출국 수속후

비행 탑승까지 비로소 여유가 생기자 배가 고프다.

아내와 함께 스낵코너에서 간단하게 빵두개와 우유 하나를 시킨후

돈을 지불하는데 이거 완존 도둑놈들 아냐?

맛도 별로 읊는것이 비싸긴 오라지게 비싸다

을매나 하냐고여~?

만 삼천 오백냥.....

이글을 읽는분 나중에 이런 경우

배고파도 찜 참았다가 기내식으로 드시길...

(인천공항에서 나고야로 향한 비행항로)



(이륙직전 인천공항 전경)



드디어 탑승이 허용되고...

비즈니스석이 앉자 은근히 기분 좋다.

16명중 재수없게 일반석 티켓에 당첨된 바커스님께 미안하지만..

한차례 작은 요동과 함께 뒤로 쓸림을 느낀 순간

인천공항이 저 아래 장난감이 되어 우릴 올려다 본다.

잠시후

이쁘장하고 상냥한 스튜디어스의 기내식을 받아들자 시장기가 돈다.

기내식은 그런대로 맛도 좋고 깔끔하다.

거기다 비지니스석엔 맥주도 제공되고 원하면 리필도 된다.

흐미~!! 좋거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식사를 끝내자

입국서식을 작성하라며 내준 서류양식엔 죄다 영문을 써 넣어야 한다.

그간 가방끈 짧아도 불편한거 못 느끼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 못배움과 배움에 대한

땀가를 툭툭히 치른다.

옆사람 컨닝하고 물어 물어 겨우 작성한 서류는 정작 출국장을 나설땐
출입국 관리원 아가씨에게 영문 알파벳 틀린곳을 지적받고 다시 써야만 했다.

우이씨~! 쪽팔려~!!

(기내에서 바라본 하늘 풍경)







1시간 30여분만에 나고야 중부공항에 도착.

입국수속후 공항을 빠져 나오자 미리 나와 있을거라 생각했던
예약한 버스회사 직원이 안 보인다.

통역으로 함께 간 지열군에게 전화로 알아보라 하니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전화받고 올라 오는중 이란다.

(공항 버스 주차장 출입구)



(일본내 모든 일정을 예약한 BA투어 회사 버스)



공항내에서 잠시
국제 미아가 되는거 아닌가란 불안감은
버스에 올라타며 자연 해소가 되고 모두들 이국을 향한
첫 일정의 기대감으로 버스안은 술렁인다.

16명을 태운 28인승 버스의
맨 뒷자석은 탁자까지 갖춘 룸싸롱 시설의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데 깔끔하고 정갈한 노신사의 운전 또한 암전하다.

이 양반 얼마나 운전규정을 잘 지키는지

80 K/H 속도의 고속도로를 달릴땐 앞에 앉은 올 마눌 초록앞새는

속도지시계가 80 K/H 에 고정되어 있어 속도계가 고장난 줄 알았을 정도다.

(이동중 버스안에서)





공항 출발후 얼마되지 않아
고속도로 휴게소로 차가 들어선다.
휴게소 식당에 미리 전화로 점심 예약을 확인하고 들어 왔는데
손님들이 밀려있어 10여분 휴게소를 산책하다 자리를 배정 받아 점심을 먹었다.

음식명은 쇼우가 야끼라 하는데
밥과 된장국에 돼지고기 삶은거와 야채로 그런대로 먹을만 하다.

식당에선 산행가이드와 기사는

따로 다른 메뉴의 식사가 공짜로 제공된다.

원래 내가 그 메뉴를 먹어야 하는데 막상 나온 음식을 보니

돼지고기가 들어간 라면과 볶음밥인데 탁자에 내려놓는 순간 돼지 냄새에 비위가 확 상한다.

통역가이드로 데려온

이 지열군은 일본유학의 경험이 있어

그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기에 그럼 바꾸어 먹자니 종단다.

후의 얘기지만 탱크님은 그 라면을 꼬옥 먹고 싶었는데 이번 북알프스 일정기간 내내 기회가 없어 못 먹어 서운해 했는데 진작 알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날그날 오늘의 메뉴 음식만 제공하는 관계로

처음 우리가 계약한 음식값에 다소 얼마의 초과 비용이 발생한

휴게소의 음식을 그런대로 맛나게 먹은후 소화도 시킬겸 휴게소 상점을 구경하는데 음식점 종업원이 나를 찾아와 언제 떠날거냐 묻는다.

10분후에 갈거다 하니

그때 전장과 함께 환송을 해 준단다.

그런데

예쁘장한 여종업원의 한국말씨가 너무 유창하여

어디서 우리말을 그렇게 잘 배웠냐 물어보니 자기도 한국인이란다.

황 미경이란 그 여성은

일본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아르바이트중 이란다.

이렇게 이쁜 여성을 일본놈한테 빼앗겨 넘 억울하다며

울나라 총각놈들 뭐 하느지 모르것다고 너스레를 떨었더니

그 아가씨 안절부절 진짜로 미안해 하는것 같아 농담이라니 그 아가씨 씨익 미소를 짓는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총각들 장가 못가 이국의 처녀들과 짝을 짓는 요즘의 현실을 생각하면
내 속 마음은 진짜로 서운하다.

(히루까노 고우겐 휴게소)



(휴게소 식당 메뉴들)





(기사와 TC에게 제공되는 돼지 비계가 잠수한 라면..)



(우리가 먹은 중식 쇼우가 야끼)



(일본인과 결혼한 음식점 종업원 황 미경 양)



(휴게소의 전경)





휴게소를 떠난 버스가

두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다카야마의 옛 전통 거리다.

옛모습 그대로 건축물과 각종 먹거리 기념품 그리고 박물관과 공원이 자리한

다카야마 전통거리의 이정표엔 한국사람이 얼마나 많이 찾는지(?)

일본말 안내문 아래엔 한글이 표기돼 있다.

(다카야마 철도역사)



(한글이 표기된 거리의 이정표)



(다카야마 전통거리의 풍광들...)









(다카야마 전통거리를 운행하는 인력거)





















(무료로 개방된 박물관)



병일리와 흥식형님은

마치 국민학생이 소풍을 나온 듯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맥주와 음료수를 사와 나보고 맛 보라 내밀더니 어느순간 내 시야에서 사라진다.

뭘 살게 있을까란 나의 생각과는 달리

산우님들은 각종 악세사리와 손부채등을 들고 약속된 시간에 버스에 올라선다.

일본 첫날 모든일정은 이것을 끝으로 숙소를 향해 가미고지로 향한다.

계속 고도를 높일수록 길게 이어지는 터널을 지나 구불구불 산고개를 넘고 넘자
체감온도가 뚝 떨어짐이 느껴질 쯤 가미고지 주차장에 도착한다.

버스에 내리자

관리사무소에서 산행가이드를 찾는다.

관리사무소 안내인을 따라 사무실에 들어가

예정된 산행코스와 인원수 그리고 대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적고나자

비로소 가미고지 공원의 입장을 허용한다.

짐을 챙겨 숙소를 향하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고나시타라 산장 원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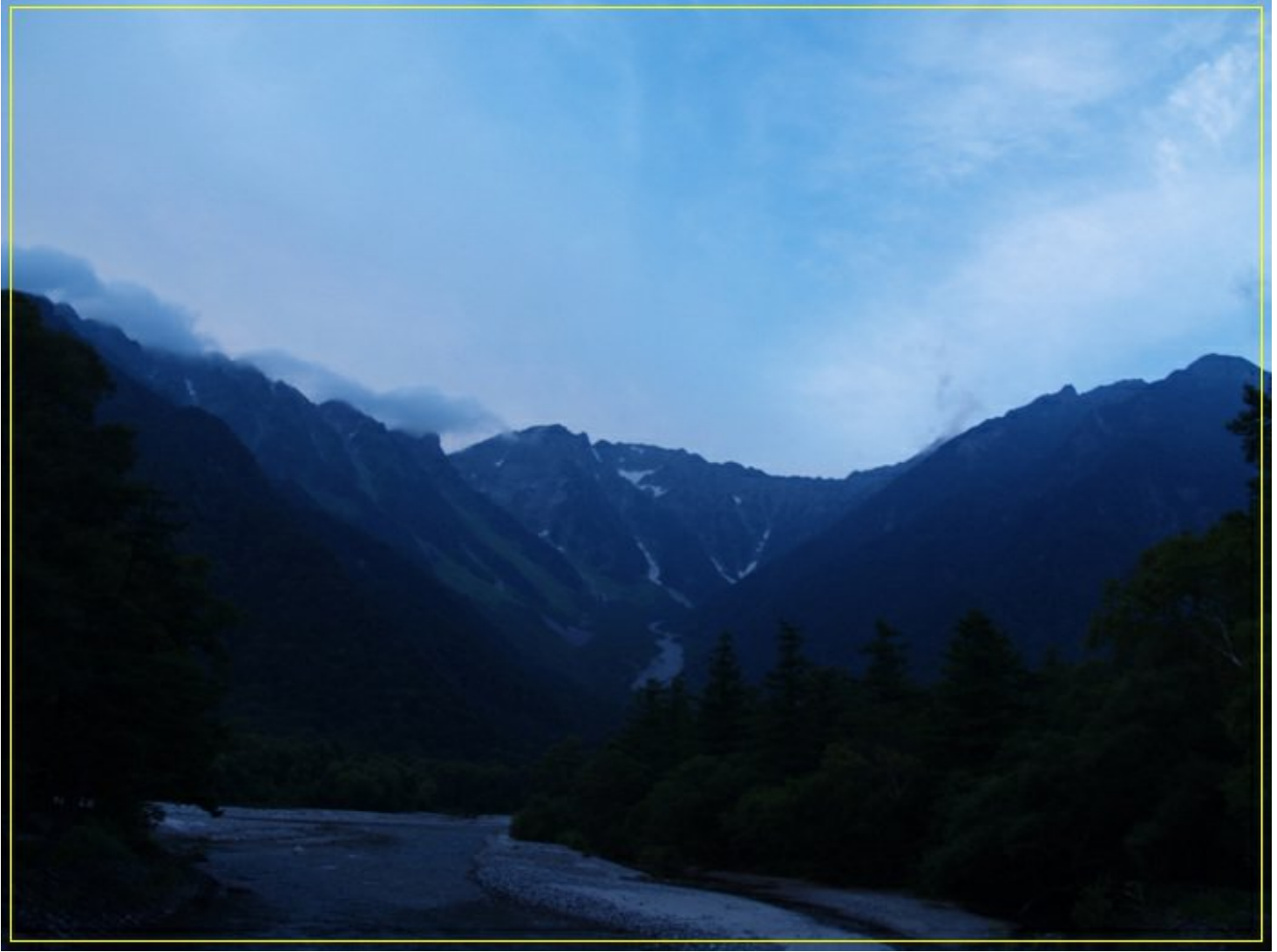
조그만한 경차 픽업을 끌고 내려와 짐을 날라다 준다.

(가미고지 주차장)



(숙소를 향한길)





가미고지 주차장에서 고나시타라 롯지로 향해
얼마쯤 걸어 들어가자 아주사와천이 흐르는 강을 건너는 갓바바시(하동교)가 나온다.

하동교에 올라서자
이미 해는 저물어 어둠에 잠기기 시작한 북알프스의 연봉이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다가와 숙소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잡는다.

(고나시타라 롯지의 숙소를 앞에 둔 하동교)



(하동교에서 단체사진)



하동교에서 단체사진으로 증명을 남긴후
고나싯타라 롯지에 들어 숙소를 배정받고 식사를 하는데
음식도 푸짐하고 맛도 그 정도면 수준급이다.

저녁 식사후
서로 처음인 팀원들 인사도 시킬겸
숙소 한곳에 모이게 한 후 쇠주와 양주가 함께 하니
자연 화기애애한 자리가 된다.

이번 북알프스 종주팀은

내가 개인적을 알게된 전국적인 산우들을 불러들인 관계로

지역이 울산,대전,공주,천안,서울에서 모였기에 팀이름은 자연스레

산찾사 지역구가 아닌 산찾사 전국구 팀이 됐다.

(산장의 저녁식사)







적당한 취기가 올라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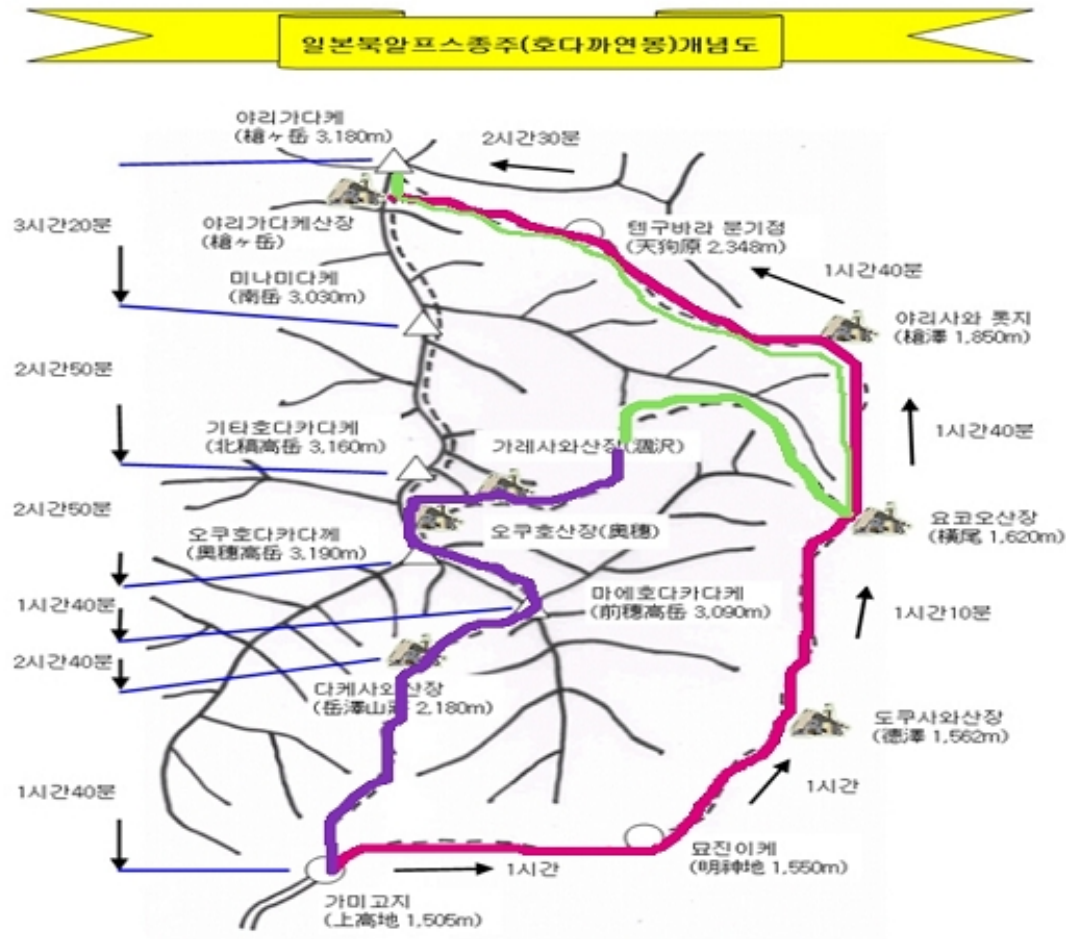
내일을 위해 각자 숙소로 돌아가 일본 북알프스 종주의 첫 여정을 위한 숙면에 든다.
4인1실의 산장 롯지와 달리 난 산장에서 제공하는 독방에 들어 잠을 청한다.

(산행대장에게 제공된 독방)



2편으로...

- 산행일자 : 2008. 8. 02(토) ☒ 8. 06(수) - 4박5일
- 산행위치 : 일본 기후현(岐阜縣), 나가노현(長野縣)
- 산행장소 : 일본 북알프스 최고봉 오쿠호다카다케(奥穂高岳 3,190m)



8월 03일 일요일 (맑음)

-고나시타라 롯지 07:20

- 명신(묘진관) 07:50 - 08:00
- 도쿠사와 산장 08:45 - 09:00
- 신천교(신무바라시) 09:12
- 요코산장 09:50 - 10:13
- 이찌노마다 두번째 지류 목재다리 11:00
- 수력발전소 11:17
- 야리사와 롯지 11:25 - 12:10 (중식)
- 바바 다이라 캠프장 12:25 - 12:30 (식수 보충)
- 텐구바라 분기점 13:50
- 야리산장 16:07 착 (숙소 배정) - 17:15
- 야리가다케(창봉) 17:30 - 17:50
- 야리산장 18:10 착 19:00 석식후 1박

한밤중 목이 말라

잠에 깨어 창밖을 보니 날은 관창아 보인다.

다시 설핏 잠들었나 싶은데 저절로 눈이 떠진다.

그냥 누워있자니 답답하여 시계를 보니 새벽 4시다.

이층 본관의 산행가이드 숙소를 걸어나와

동료들이 잠든 숙소를 돌아보니 모두들 깊은잠에 든것 같다.

(고나시타라 롯지의 숙소 전경)



(비교적 깨끗한 롯지의 화장실)



동료들이 잠자는 숙소를 내려와
고나싯타라 산장 본관의 앞마당 들어서자 원숭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
나에겐 야생원숭이가 처음이다.
신기해 디카를 들이대자 슬며시 일어나 숲속으로 사라진다.

고녀석
모델 좀 하면 안되나~?

못 생긴게 텅기기는...



고나시타라 산장을 벗어나 하동교쪽으로 내려서자
아주사가와 강의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건너편의 북알프스 연능이
허연눈을 이고 아침햇살에 그 웅장한 자태을 들어내 뽐내고 있어 그 아름다움에 잠깐 정신
을 놓는다.





아주사와강을 낀 야영장엔

일본인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중이다.

아직 이른 새벽인데 일본인 노 부부가 텐트를 걷어 베낭을 꾸린후

다정스레 산행을 나서는 모습에서 부부간 애뜻함이 진드감치 묻어나는 사랑이 느껴진다.

(산행에 나서는 일본인 노 부부)





전날 저녁 이슬이와 맥주를 쓰러트린 여파로
늦게 일어날줄 알았던 산우들이 하나 둘 일어난다.
이왕 일어난거 예약한 아침식사가 가능하면 좀 땡겨 먹으려
산장전장을 찾아가 물어보니 제 시간에 주문한 식사가 배달되는 거라 안된단다.

(고나시타라 산장 전장과 함께)



모두들 이른시각 일어남에
산행에 필요한 배낭만 꾸리고 나머지 짐들은
산장에 미리 맡긴후 조반을 들자마자 도시락을 받아들고
북알프스 종주의 대장정에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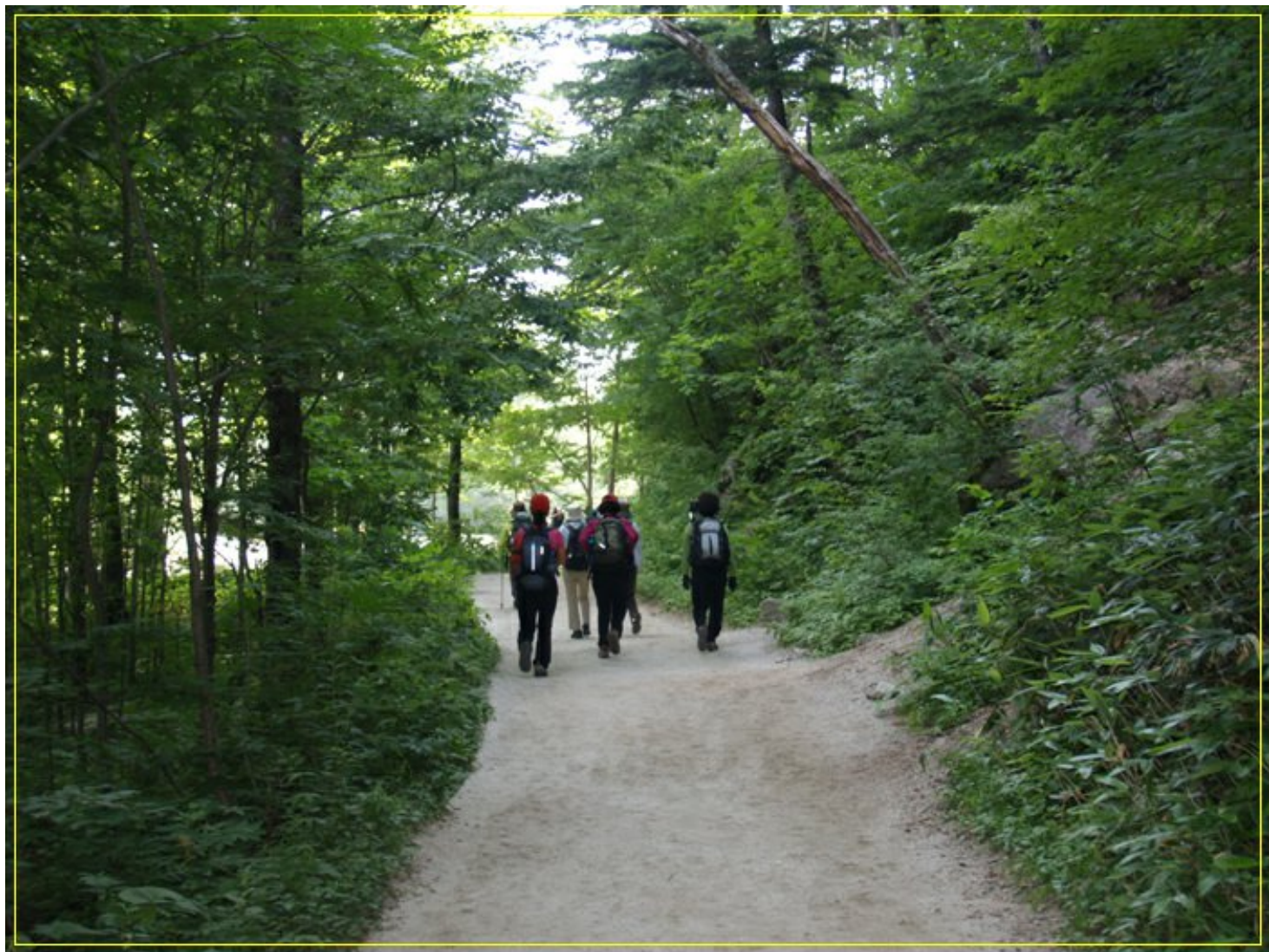
(산장을 떠나며 무사산행을 기원하는 화이팅~!!)



아주사와강을 끼고 이어지는 등로는
반짝 반짝 윤이 나는 조릿대숲이 빼곡하고
키다리 전나무가 쭈~욱쭈쭈 뻗어있는 원시림의 오솔길이
길게 이어지는 최고의 산책로가 반겨줄에 걷는 내내 힘든줄을 모른다.

가급적
힘들게 이국의 명산에 든 만큼
속도산행을 지양하고 함께 걷는 향아리 산행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나의 부탁은 쓸데없는 걱정였다.
모두들 느긋한 걸음으로
멋진 풍광에 감탄하고 구경하느라 그 속도가 참으로 더디다.







산장을 떠난지 30여분만에 묘진관에 도착 휴식에 든다.
이정표엔 명신지까지 0.7km 라 적혀 있다.
그곳으로 가고 싶은분 얼른 갔다 올 사람 있냐 물어보니
거기 연못밖에 더 있겠냐며 다들 그냥 진행한단다.





(뭘 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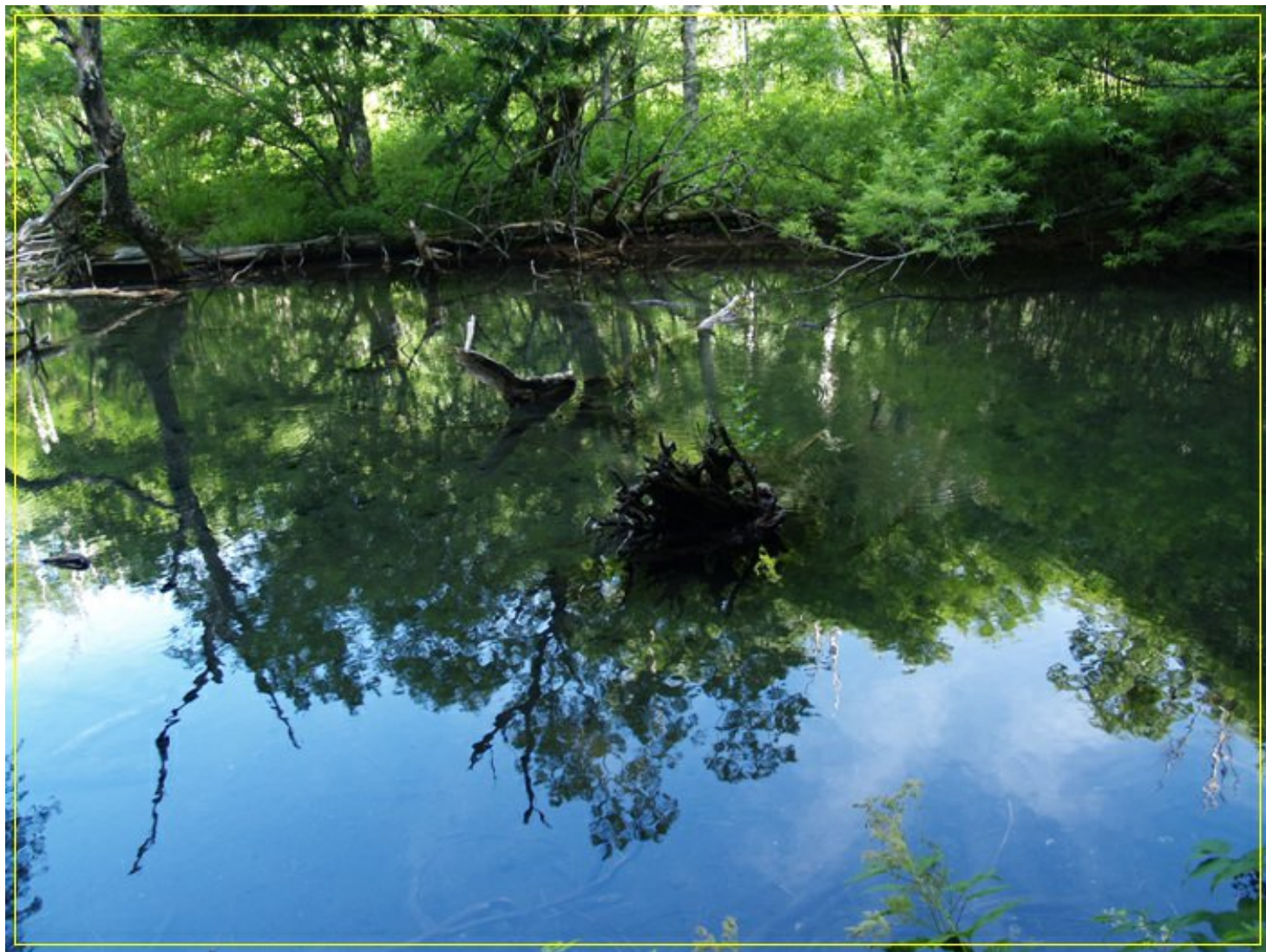
다음 목적지 도쿠사와 산장까지 가는길엔

하늘빛과 나무와 풀들을 고스란히 담아낸 습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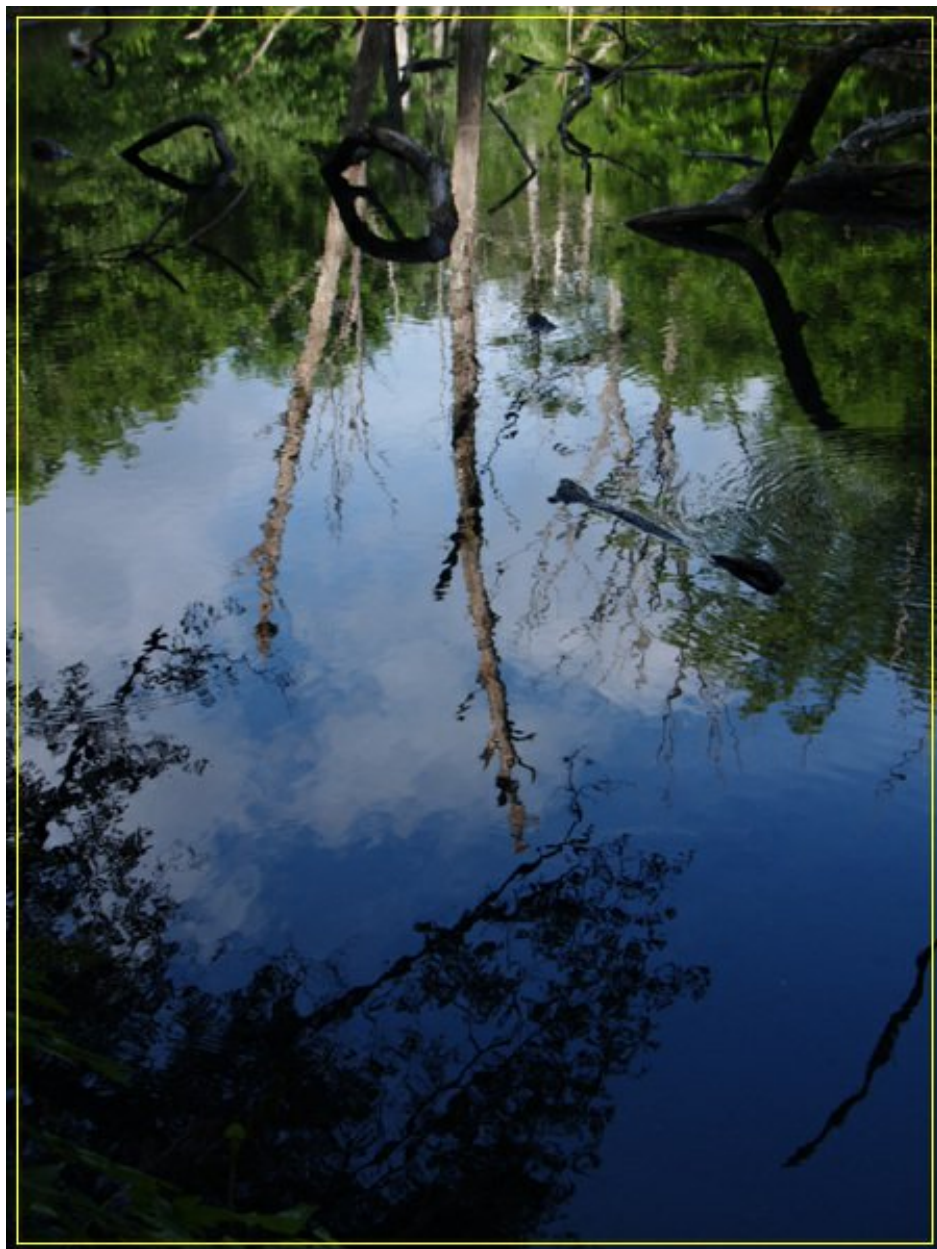
그 물빛이 얼마나 깨끗하고 고운지 디카에 담고 쳐다보는 사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 나의 산우들은 멀찌감치 사라지고 나홀로임을 뒤늦게 깨닫는다.

(습지의 아름다움)







바쁘게 켜 걸음을 옮기자

이내 앞선 나의 산우들 뒷모습을 잡았다.

일본 통역을 위해 함께 산행에 나선 지열군의 걸음과 거의 같은 수준인
일본인 여성에게 말을 붙여 어느 코스로 가냐 물어보니 도코사와 산장에서
가라사와 능선을 탈거라 말한다.

그 여성과 말문이 트인 지열님은

다정한 길벗이 되어 도코사와 산장까지 길동무가 되었다.

(지열님과 일본여성)



(강건너 우뚝 솟은 묘우진 다케의 모습)





맑은물이 흐르는 강을 낀

그림같은 산책로를 따라 걷는 걸음이 어느새 도쿠사와 산장에 이른다.

산장앞 캠프장엔 알록달록 텐트가 여러동 설치돼 있는데 그 켜장들은 대게가 다 일본의 어린이가 함께한 가족단위다.

해가 중천인데

그제사 일어나 아침을 지으며 산행준비중인

그네들의 여유로움과 평화로움이 산행의 즐거움으로 들뜬
내 마음까지 고요히 진정시켜 잠 재우는 마력을 발휘한다.



(텐트를 걷어 산행을 준비중인 노인장)



(도쿠사와 산장 전경)



도쿠사와 산장을 지난 얼마후

갈림길이 되는 강을 건너는 목책다리가 나온다.

쇼와 초기 명 등산가인 신무라 쇼이치의 이름이 붙여진 신무라바시교다.

신무라바시교에서 정면으로 마에호다카 다케와 기타오네의 능선이 웅장하게 다가선다.

이 다리를 건너면 병풍암 안부를 지나

가라자와 산장을 거쳐 오쿠호다카케로 오를 수 있다.

지열군과 함께 온 그 일본여성은 이 등로를 택해 오르며 지열님께

야리능선의 위험스러움을 몇번이고 강조하며 무사산행을 빌어 줬다는데

은근히 겁을 준 느낌이 더 강하단 생각이 든다.

그렇게 겁을 주면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나 ?

신무라바시교에 잠시 들렀다 가려

발길을 그리 옮기자 산우들이 목소리가 소란스럽다.

웬 영문인가 얼른 다가가니 다리 밑의 원숭이 가족을 보고 신기해서 내지른 소리다.

ㅋㅋㅋㅋ

난 이미 이른 아침 산장마당에서 봤는데...

(신무라바시교에서)



(신무바라시교의 이정표)



신무바라시교(신촌교)를 뒤로한 채 맑고 깨끗하여 투명한
아즈사가와의 강줄기를 따라 오르는 등로는 한마디로 환상의 산책로다.
진행방향 왼쪽의 암봉 묘진다케 오른쪽으로 병풍암의 모습이 선을 보이자
이내 요오코 대교와 함께 산장이 나타난다.
먼저 도착한 산우들이 반겨주는 요코산장에서
간식과 함께 식수를 보충하며 그간 산행의 피로를 달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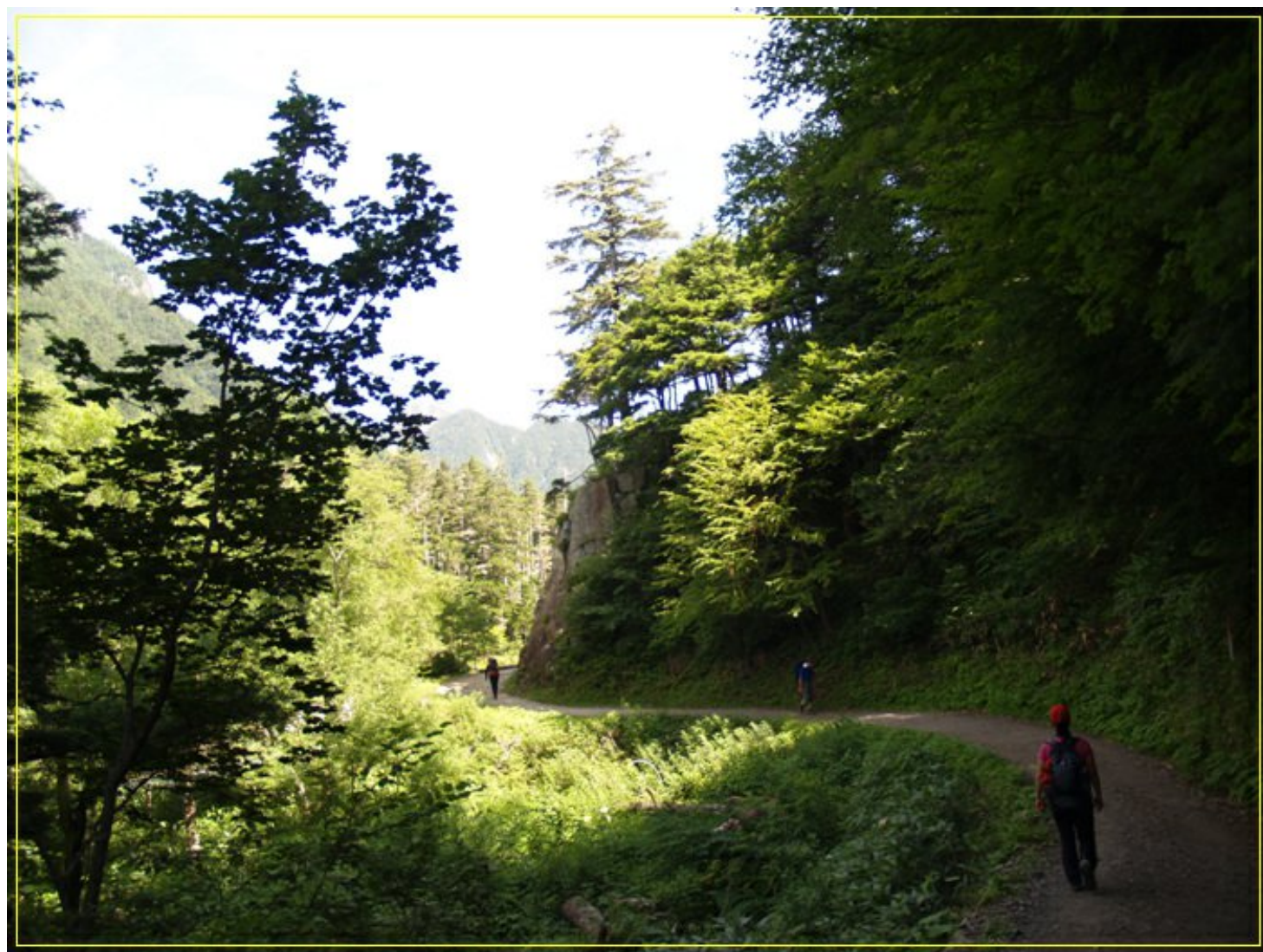
가미고지에서 요오코 산장까지는 고도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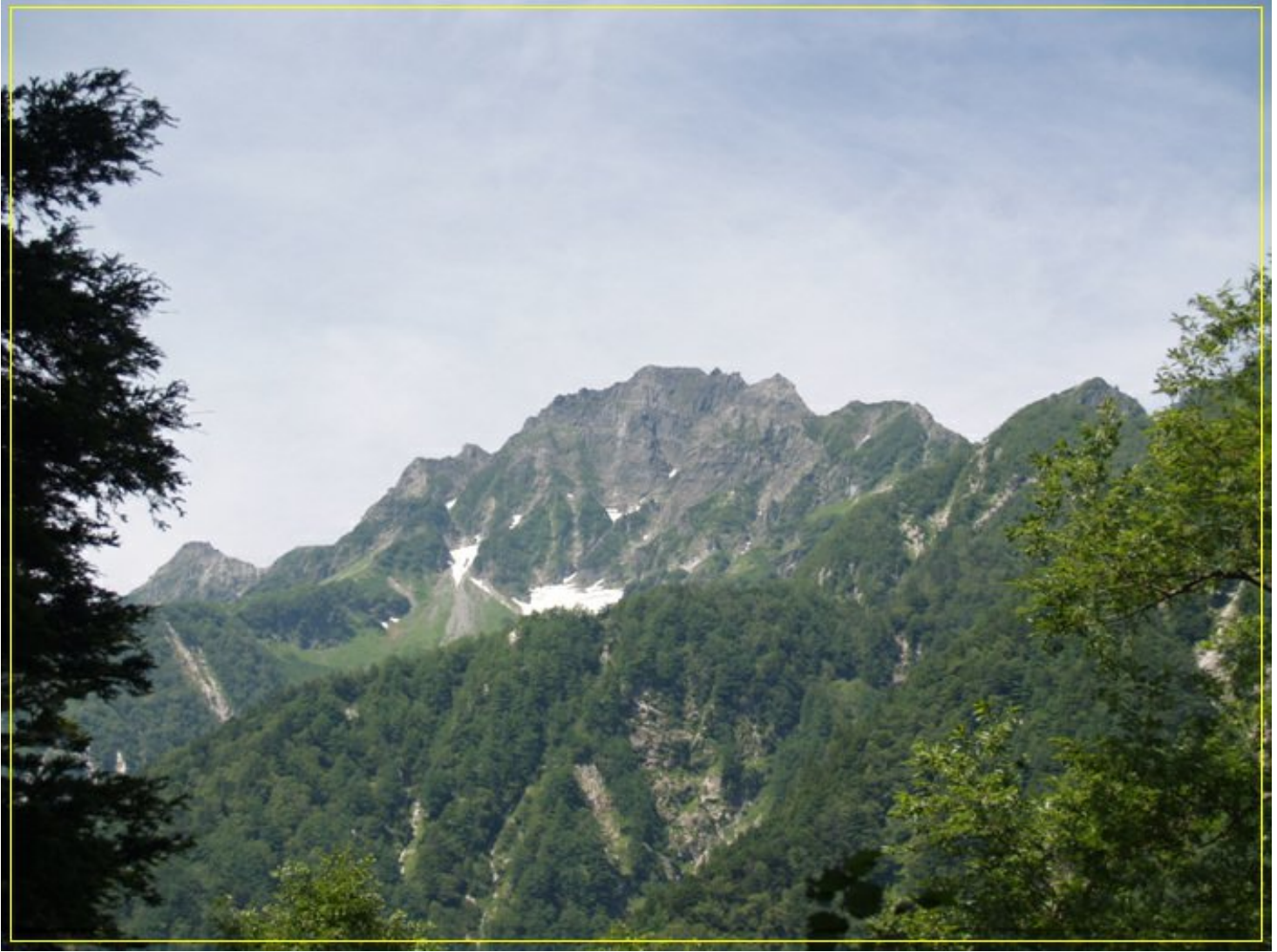
거의 느낄수 없는 환상의 오솔길로 이런 훌륭한 산책로가 한국에 있다면
매일 조깅코스로 손색이 없을거란 생각이 불현듯 든다.

요오코 산장은 북알프스 산행의 분기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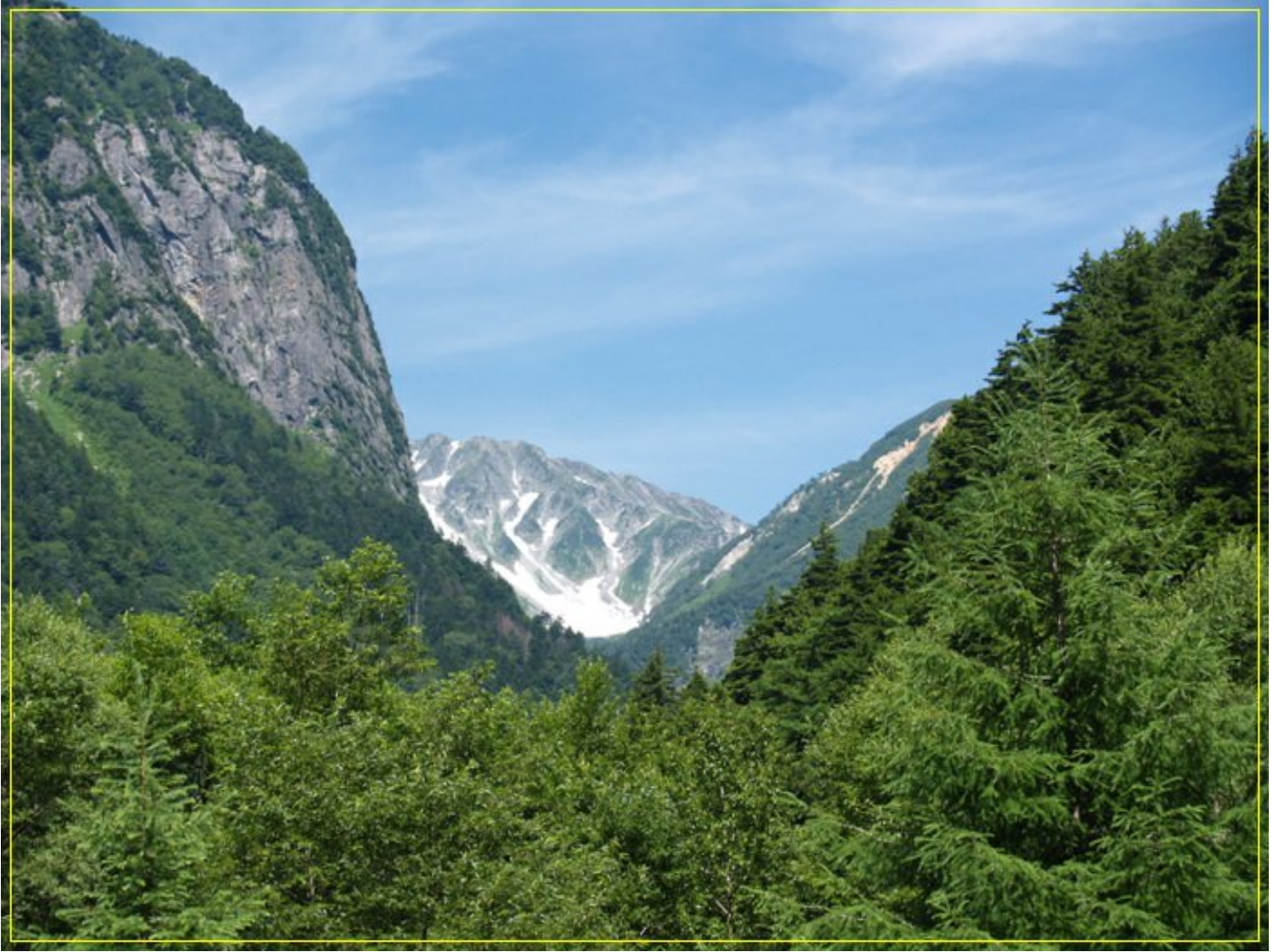
아즈사가와를 건너는 요오코 대교를 넘어 계곡을 따라
혼타니바시를 건너 가라사와 산장을 거쳐 기타호다케와 오쿠호다케를
연결하는 등로는 이번 북알프스 등정을 계획하게 만든 황태자님이 밟은 코스로
예전 그의 산행기를 읽어가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가슴 뛰던 기억이 새롭다.

(요오코 산장 가는길...)









(산행 분기점 요오코 대교)



(요오코 산장 전경)





요오코 산장에서 충분한 휴식으로
힘을 비축한 우린 야리사와 롯지로 향한다.
등로는 지금껏 완만함과는 달리 서서히 고도를 높이기 시작한다.



(야리사와 상류의 맑은 계곡물)



야리사와 계곡 상류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던 등로가
첫 지류인 이찌노마다를 지난 얼마후 두번째 지류와 만나는 니노마다를 건너는
원목다리를 넘어 상류의 완만한 오름길을 오르자 자그만한 수력발전소가 나온다.

(니노마다 원목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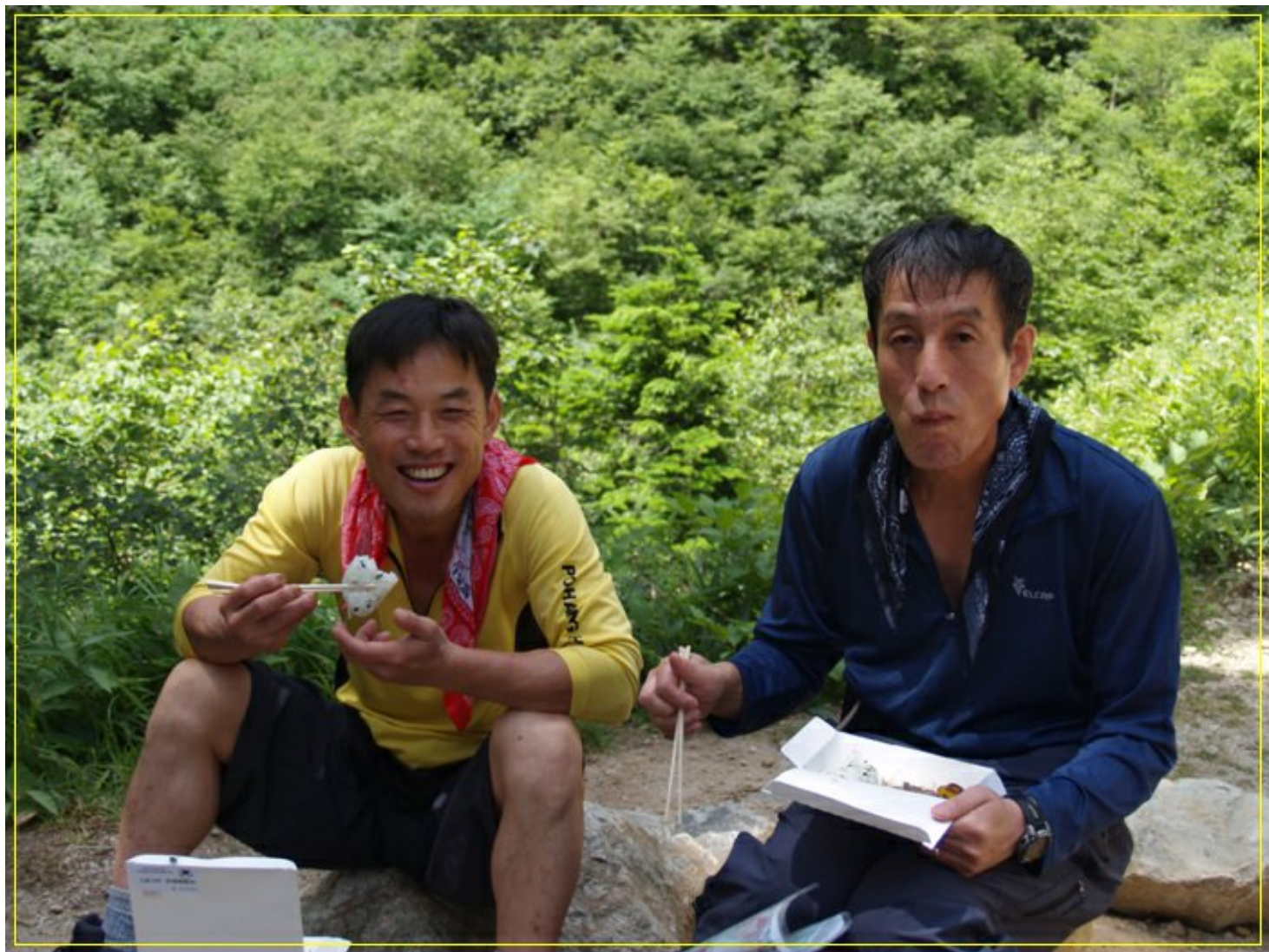
(수력 발전소)



(야리사와 룯지의 전경)



고도 1850m 의 야리사와 산장에 도착하자 배가 고프다.
고나시타라 산장에서 싸준 도시락을 펴보니 주먹밥이다.
부지런한 바커스님과 공구리님이 벌써 라면을 끓였다.
주먹밥과 함께 라면국물의 중식은 꿀맛처럼 달고 맛나다.





야리사와 산장에서 먹은 만큼

몸물을 빼려 화장실에 들리자 100엔을 내고

빠라는 안내문과 함께 페티병의 요금통이 눈에 띈다.

100엔이면 한국돈 천원이다.

그냥 오자니 참기 힘들고 볼일 보고 그냥 오자니 양심에 꺼린다.

그래도 어찌라

볼일은 봐야 하겠기에 초록앞새와 함께 200엔을 집어 넣고 시원하게 갈겨 버렸다.

야리사와 산장을 떠나며

일본 주재원으로 삼년을 지낸 고교 3년 선배 공구리 형님께
원놈의 몸물 한 대롱값을 천냥이나 받는대유 했더니

"응~ 그거~ 큰거 볼때만 내는 거~"

우잉~!!!!

진즉 갈켜주징~!

무식하면 손 발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일본에 와 보니 금전적인 손해까지 입는다....

(화장실 유료 안내문과 요금통)



야리사와 롯지를 떠나면서 등로는
 서서히 좁아지며 가파른 오름이 시작된다.
 일본의 산들은 수해를 입어 흘러내린 상흔들을 그대로 둔다.
 자연의 재해는 자연이 치유하게 그대로 두는것이 분명한것 같다.
 흘러내린 토사와 돌더미속에 죽어 넘어진 나무들 사이로 새 생명이 움트는게 보인다.

(산사태로 흘러내린 상흔들...)



서서히 고도른 높이던 등로가
숲을 벗어나자 제법 너른터의 야영장이 나타난다.
이정표엔 한글로 현재 위치가 바바다이라 캠프장이라 일러준다.
캠프장엔 시원한 물줄기가 연신 솟아 흐르고 있다.

캠프장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지금껏 정다운 오솔길이 아닌 흰눈을 이고 있는
이국적인 풍광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눈이 황홀하다.

(바바다이라 캠프장 전경)







캠프장을 뒤로 야리산장을 향한 본격적인 오름길이 시작된다.
계곡은 점점 깊어지고 흰눈을 담고 있는 능선들은 양편으로 도열한 채
힘든 오름길을 오르는 우리 부부를 내려다 보고 있다.

(텐구바라로 향한 오름길 풍광)















오름이 점점 더 힘겨워 진다.

온갖 식물과 나무 야생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끝없이 우리부부에게 이어지던 원타이정님의 강의가 어느 순간 끝 나더니

이내 왕성하던 체력도 바닥권으로 접어 들었나? 점점 더 우리부부와 멀어진다.

국내의 오지산행만 뺄시게 다니는 골수 산꾼도 고산앞엔 별 수 없나 보다.

(힘겨워 하는 원타이정님)



2348m 의 텐구바라 분기점을 지난다.

진행방향 왼쪽 위 빙하공원 텐구바라에서 낙하하는 작은 폭포가 장관을 이룬다.

힘든 오름길은 지그재그로 이어지며 그 힘든길을 감쇄 시켜주나
고소의 영향인지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다.

첫번째 설계구간을 밟아 통과후

두번째 설계구간을 오를땐 등로가 제법 미끄러워 조심스럽다.

무사히 눈길을 밟고 오르자 창봉이 아주 가깝게 느껴진다.

어림잡아 20여분이면 오를수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드나 그건 나의 착각....

아주 가까워 보이는 야리다케 산장을 향한 오름을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오르는데도
참으로 이상한건 여전히 그 모습은 그자리다.

(텐구바라 분기점 이정표)















중국에만 산에 등짐을 지고 오르는
인부가 있는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짐꾼이 있다.
지게에 무겁게 짐을 지고 오르는 그 사람과 함께 샘터에 이르러
잠시 쉬는 사이 아내가 초코파이를 건네자 사람좋은 미소로 연신 고마움을 표한다.

(야리산장으로 향하는 짐꾼)













야리산장으로 향한 오름길의 너덜길에 조그만한 동굴이 눈에 띈다.

야라가다케를 처음 등정한 반류(1780~1840)라는 승려가 다섯번 오르던 중 네번째인 1843년에 53일간 이 동굴에서 참선을 했다는 곳인데 입구엔 설명판과 함께 조그만한 상이 모셔져 있다.

(반류 승려 동굴)











창봉이 가까워 온다.

어느덧 진행방향 우측의 샷쇼붓테와 캠프장을 발아래에 둔 위치까지 올랐다.

이젠 몇 걸음만 옮기면 오늘의 안식처 야리산장에 도착할 수 있단 생각에 새로운 힘이 솟는다.

(샷쇼붓테의 전경)















드디어 올랐다.

오늘의 안식처 야리산장이다.

야리산장은 일본 북알프스 산장중

두번째 높은곳으로 6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산장 접수는 맨 후미에서 오르고 있는 통역담당 거브기님 조카

지열님이 와야 할 수 있기에 산장의 평상에 앉아 힘겹게 오르고 있는 등산객을
내려보며 여유를 부려 보는데 산장을 이제 막 올라서는 일가족이 눈에 띈다.

할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의

3세대가 나란히 야리산장에 올라섰는데
세상에~!!!

3대째 할아버지 손자의 나이를 물어보니 5살이다.

아빠의 허리에 카리비너로 연결된 로프에 달려 올라서는 아기의 표정이 아주 밝다.
넘 이쁘고 기특하여 덤썩 안고 기념사진 한장을 남겼다.

(3대가 함께 오른 야리산장)









산장의 주위를 이리저리 배회하며
시간을 죽이는 사이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바커스님과 공구리님이 벌써 야리가다케를 다녀와 산장에 들어선다.
유창한 일어능력을 가진 공구리님을 불러 접수처에 가 예약을 확인을 하는데
때맞춰 거브기님이 조카를 데리고 산장에 들어선다.

이번 팀을 꾸리며 비용절약을 위해
일어능력이 되는 사람을 구하다 보니 거브기님이
조카를 추천하여 개인 경비의 절반만 받고 통역업무를 맡기로 했으나

산행능력을 내심 걱정했는데 오늘보니 순발력은 떨어지나 한국민 특유의
은근과 끈기가 있어 별 걱정은 들지 않아 다행스럽다.

야리산장의 접수는 좀 까탈스럽다.

팀원 전원의 신상을 조목조목 적어 내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야리종주 증명서 발급증을 주기 위해서다.

접수완료 뒤엔 산행대장은 따로 1인실 숙소를 배정해 주고

음료나 맥주를 바꿔 먹을 수 있는 티켓을 따로 내어 준다.

티켓은 통역담당 지열군에게 주고

1인실 숙소는 남녀 합방인 다인실 숙소 사용이 불편한

우리 여성팀에게 그방을 쓰라 내준 후 숙소에 짐을 풀곤 야리다케 정상을 향했다.

정상가는 길은 직벽에 가까울 정도의 가파른 암릉이다.

야리가다케는 3180m 로 일본 제5위의 고봉으로 창끝과 같다 하여

창봉으로 불리며 일본의 마터호른이란 애칭도 함께 갖고 있다.

(야리가타케의 전경)



(야리가다케 정상을 향한 오름길 풍경들..)









야리가다케 정상에 서자
운무가 넘실대는 산의 연능이 넘 아름답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
말문이 막힌 선경앞에 그간의 힘듦과 고달픔을 잊었다.
이미 때를 넘긴 주린배도 선경앞엔 신경이 마비된 듯 아무 느낌이 없다.

空....

마음도 몸도 순간 비워진듯한 느낌이다.

(야리가다케 정상에서 내려본 풍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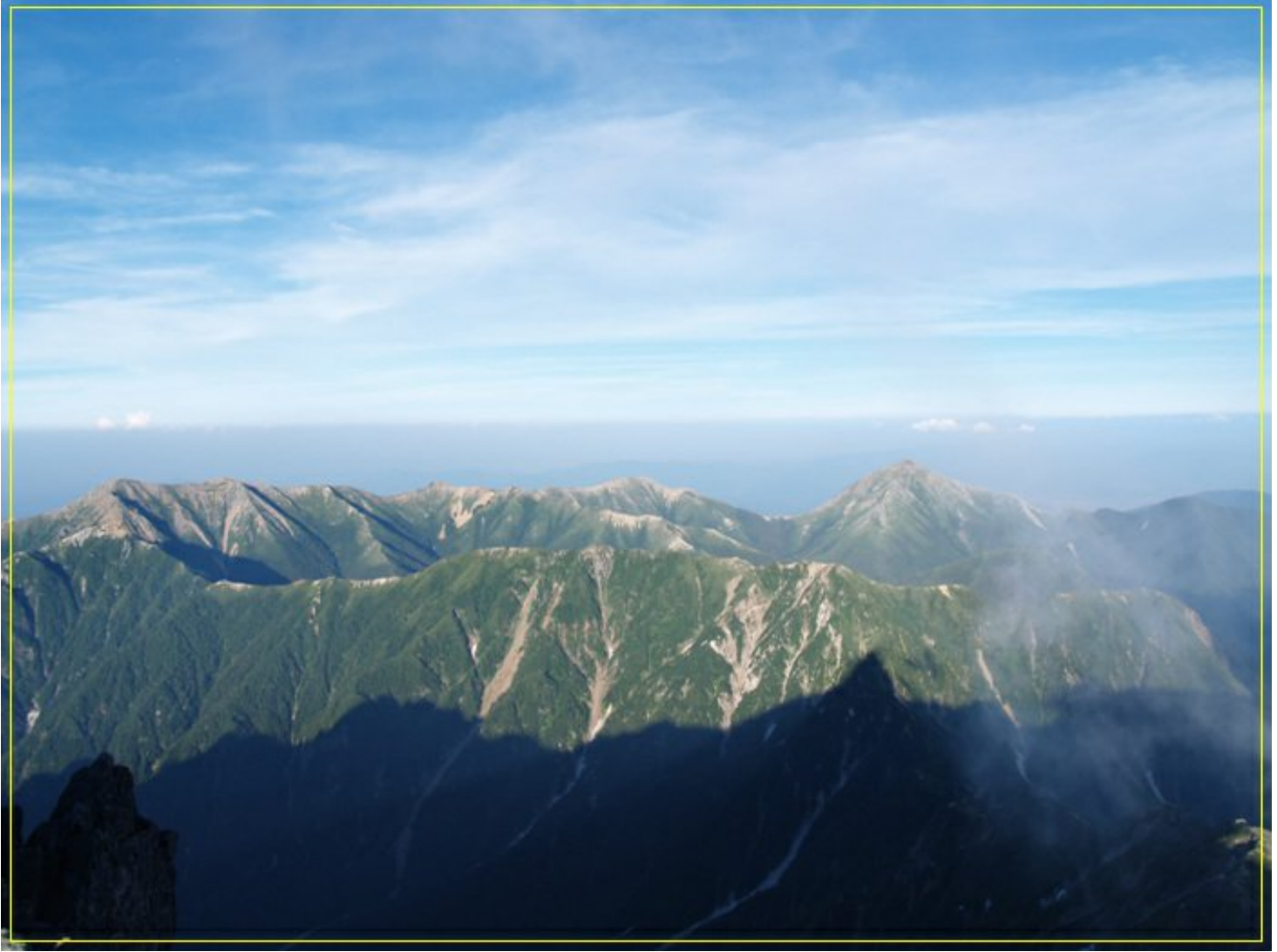


(정상에서 아내 초록앞새랑)





(정상에서 바라본 왼쪽의 오텐쇼우다케(2921.9M)와 조넨다케(2857M)의 전경)







(하산중 내려 본 야리산장)



(일몰을 기다리는 산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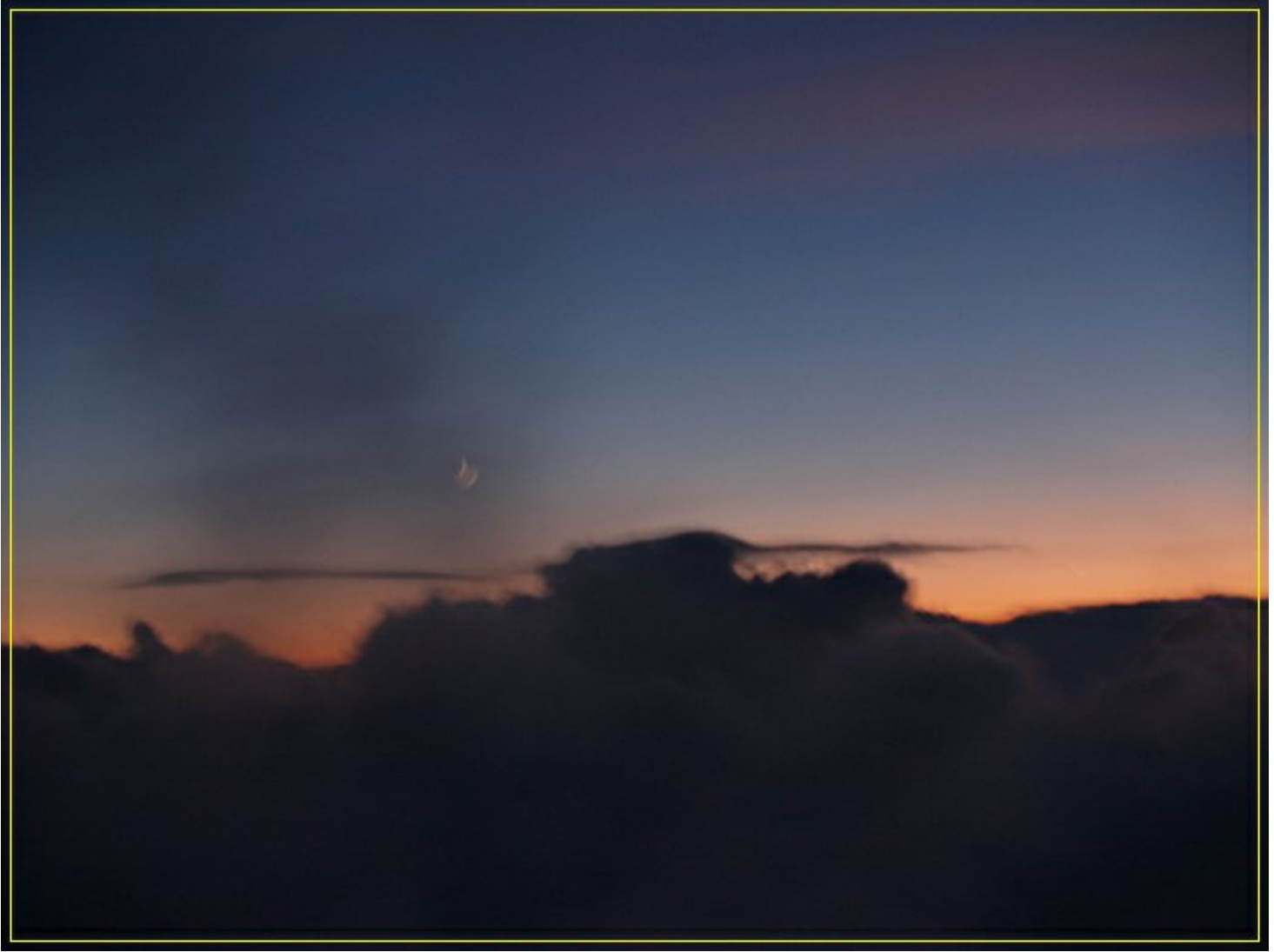
끈적한 미련을 못 버리고
버티다 버티다 내려선 정상을 바라보니
다시금 운무에 휩싸여 그 모습이 더욱 신비스럽다.
물이 아주 귀한 야리산장에서 저녁식사후 수건에 물을 적셔
땀만 씻은후 간단하게 피로를 달래는 술잔이 몇순배 돌아간후
어느새 깊은잠에 빠져든다.

(야리산장의 석식)





(산장의 저녁노을)



(기압차이로 톱톱 불어버린 믹스커피)



(산장에서 산우들...)



3편으로...

- ▣ 산행일자 : 2008. 8. 02(토) ☒ 8. 06(수) - 4박5일
- ▣ 산행위치 : 일본 기후현(岐阜縣), 나가노현(長野縣)
- ▣ 산행장소 : 일본 북알프스 최고봉 오쿠호다카다케(奥穂高岳 3,190m)

8월 04일 월요일 (오전 비 오후 갬)

- 야리산장 06:36
- 오바미다케(3101m)
- 나카다케 (중악. 3084m) 07:30
- 미나미다케 가기전 갈림길 07:55
- 미나미다케(남악.3032.7m) 08:30
- 미나미다케 산장에서 라면과 커피로 추위를 달램.
- 오기렛토
- 기타호가다케 산장 13:40
- 기타호다카다케 (3160m) 14:00 - 14:15
- 가라사와 다케 (3110m) 16:45
- 호다카 산장 17:10착1박

(산행 개념도)



첫날 1인실 숙소와는 달리

야리산장의 1인실 숙소를 여성들에게 양보한 혜택이 다양하다.

우선 여기저기 다양한 주류와 안주등을 맛볼수 있고

다양한 인물들의 산행 무용담이 흘러 넘치니 사람사는 냄새가 진동한다.

물론 꼬리꼬리한 발냄새도 함께....

못하는 술 몇잔 얻어먹고

술꾼들이 켈 싫어하는 안주만 축내는 나를 그래도

산행대장 이랍시고 대우를 해 주는건지 아님 모두들 인간성이

비단결같이 고운건지(하긴 산꾼들 맘은 다 비단결이다) 바커스님과 공구리님은

개꿈이라며(이분들은 전국 마라톤 58 개트라 회원) 연신 안주로 가져온 육포와 오징어를 건넨다.

적당히 마신술은

초반 숙면에 도움이 되나 새벽녘 갈증이 문제다.

새벽 1시쯤 갈증에 잠이 깬 뒤론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다.

화장실을 두번째 다녀 온 뒤 여기저기 들려오는 드르렁 콜콜의

산중 오케스트라 화음 + 야리산장을 때리는 살벌한 바람소리가 어느정도

적응이 됐는지 새벽녘 살짝 잠들었는데 주위의 소란스럼에 잠이 깬다.

부지런한 바커스님은 벌써 기침 후 바깥은 다녀온 듯

(하간 멍은 멍이다. 부지런 + 바지런함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일기불순한 날씨 소식을 전한다.

"안개가 잔뜩 혀~"

"한치 앞도 안 보이는구먼~"

새벽일출은 틀렸다.

외국에 올때 마다 산찾사의 100% 일출 보장 신화가 오늘로 깨진다.

아침식사후

모두들 느긋하게 산행준비를 하라 이른다.

좀 늦은 시간 출발하면 안개가 걷힐까란 바람으로

이미 반 정도 빠져나간 인원으로 다소 여유가 생긴 화장실을 들린다.

이곳 야리산장은

물도 귀하지만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철저하게 본인이 회수하여 처리하게 한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 보는 순간 쓰레기통안의 뭔가가 눈에 거슬린다.

쓰레기 통엔 밑 닦은 화장지외엔 다른게 있슴 안된다.

하이얀 화장지 위에 유난히 반짝이는 비닐봉지...

지미럴~!!!

세계에서 제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자랑스런 우리의 한글이 똥간에서 빛을 낸다.

동서식품....아이스 커피....

이왕 버릴거면 그냥

똥통에 빠트려 버리지 여기다 버릴게 뭐여~?

죄다 좇어 모아 화장지 돌돌말아 군시절 학실히 배우고 익힌

은폐와 엄폐를 시행했다.

왜~?

쫄빠리한티 쫄 팔리잖아~!

마냥 기다릴 순 없다. 다행히 단순한 안개비다.

전날 산장 휴게실 TV 에 나온 일기예보엔 오전 흐림 오후 맑음 옅음을
기억하고 있는 난 모든 대원을 모아 놓고 산행의 주의점을 주지 시키고 출발을 시킨다.

오늘 산행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개인의 산행능력을 떠나 무조건 단체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행동 일체 불허가 나의 요구사항이다.

선두 산행대장은

암벽등반의 경험이 풍부한 원타이정님께 일임하고
나는 맨 후미에서 모든 인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한다.





야리다케 산장 남쪽 방향으로 발을 옮긴다.

산행 시작 전 부터 짙은 개스에 묻힌 등로는 앞선 동료들 삼켜버린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되는 등로를 울바로 찾아 진행할 수 있는건 순전히
개스에 잠긴 망망대해의 반짝이는 등대처럼 바위에 표시된 진행 화살표와 O, X 표시 덕분
이다.

우리는 산행시작 얼마후

일본에서 가장 높은 고개인 3020M 히다 노리코시에 닿는다.

히다 노리코시에서 오오바미다케의 오르막은 비교적 완만하다.

천천히 올라선 일본에서 10위의 고봉인 오오바미다케(3101M)를 짙은 개스속에 그냥 통과한다.

오늘 우리는

오오바미다케를 시작으로 북알프스를 대표하는

3000M 가 넘는 봉오리를 8개나 넘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다.

오바미다케와 나카다케 사이 안부에 내려서서

히다쪽 능선을 따라 2단 사다리를 올라서면 나카다케 정상이다.

3084M 나카다케를 지나며 안개비가 내리더니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며 급격히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한다.

나카다케를 지나

미나미다케로 향하던 중 앞선 일행의 환호가 터진다.

나만 뭘일인가 궁금한데 내 곁의 아내가 안경을 벗어 보란다.

짙은 안개에 서린 김으로 바로앞의 사물을 제대로 확인 못한 내가

안경을 벗고 보니 등로 사면의 만년설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한여름의 눈길 산행이 신기하고 신비롭다.

점점 더 굵어지는 빗방울에 벌써 온몸이 젖어든다.

이내 걷힐거란 나의 생각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 현실은 냉정하다.

할수 없이 베낭 커버를 씌우고 오버트러우저 하나론 감당이 안되는 몸뚱아릴 판초우의를 꺼내 몸을 감싼다.

짙은 개스속에 텐구바라로 향하는

갈림길을 지나 미나미다케 정상에 올라선다.

정상은 협소하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그대로 맞으며 그래도 증명사진은 남겼다.

(미나미다케 정상에서)



(미나미다케 정상 증명사진)



미나미다케를 얼마 지나지 않아
뿌연 개스속에 조그만 건물이 나타난다.
미나미타케 고야 산장이다.

안개가 걷힐거란 기대속에 진행한 산행이라
처음부터 옷차림이 허술하여 모두들 폭 젖어 버렸다.
산장에 들어 추위가 어느정도 가시자 모두들 살것 같은 표정이다.
불을 지펴 뜨끈한 라면과 커피를 끓여 나눠 마신후 이것저것 간식으로
영양보충을 하며 젖은옷을 갈아입고 우의를 챙겨입어 복장을 재 정비후 다시 산행길에 나섰

다.

(미나미다케 산장에서 커피로 몸을 녹이는 투리님)



미나미다케에서 기타호다카까지는 V 협곡이 자리한 구간으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위험구간이다. 산장을 출발한지 얼마안돼 철제사다리와 쇠사슬이 설치된 직벽에 가까운 바위벽을 내린후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한 암릉구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완전 설악의 용아를 연상케 하는 구간이다.













폭 1~2미터의 급사면은 내려서자
카르형태로 넓어진 최저 안부에 닿는다.
이곳이 해발 2748M의 오기렛토다.
여기부터가 최대의 위험지대로 직벽의 급경사길을 300여미터 올라야 한다.



(기렛토 구간을 통과하며...)





























극악스럽게 쏟아지던 빗줄기가

가늘어 지며 기렛토 구간을 통과 할땐 다행히 비는 그친다.

짙은 안개 덕분인지 고도감을 완화시켜 준 덕분에 회원중 약간의 고소공포증을 가진
투리님이 의외로 씩씩하게 진행하고 산행경험이 별로 없는 통역담당 지열군도 의연히 잘 버
터준다.

다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김 영환님이 걱정스럽다.

그냥 봐도 한발 한발이 천근만근인데 아직도 갈길은 멀다.
더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선두와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짐에
전체적인 산행속도 조절에 신경을 써가며 기렛토 구간을 무사히 통과한다.



기렛토 구간을 통과하면서 나의 디에세라 디카가 맛이 갔다.
언제 다시오냐 있을때 박아보자며 비 내리는 우중에 계속 촬영을 한 관계로
디카 최대의 적 습기에 너무 노출된 탓인 듯 하다.
할수없이 베낭안에 갈무리하여 보관후 보조로 가져온 똑딱이 디카를 꺼낸다.

오늘 점심은 기타호다카 산장에서
먹기로 계획했는데 산장을 불과 50여 미터
남짓 남기고 모든 대원들이 배고파 도저히 못 가겠다 만세를 부른다.
비교적 넓은 장소를 골라 그대로 도시락을 까먹고 가기로 했다.

배를 불리고 나니
모두들 힘이 나는지 금방 산장에 올랐다.
특히 그간 힘들게 산행을 이어온 김영환님이 원기를 회복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김영환님은 아주 지독한 고소공포증을 가진 분였는데
기렛토구간을 만나 고소의 공포로 다리가 풀려 그랬단다.

뿌연 개스가 고도감을 줄여줘
김영환님에겐 그나마 아주 다행한 날씨다.

그러나
돌아보면 야리가다케의 창끝처럼
쏘아오른 봉에서 부터 이어지는 환상의 연능을 기대한 난
아주 실망스런 날씨였는데 그런 날씨가 대원들의 안전산행에 일조했다니
난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산장에서 잠시 휴식후
산장 바로 뒤 50여 미터를 오르자 기타호다카 정상이다.
기타호다카 다케는 눈물없이 오를 수 없다는 뜻으로
히다나미(히다산맥의 눈물)라 불린단다.

(기타호다케 산장)



(기타호다카 정상)



(기타호다카 정상에서 단체사진...석 진호님 촬영)

















기타호 다케에서 호다카 산장가는길도

V 기렛토 구간 못지 않는 위험 구간의 연속이다.

좁은 능선의 릿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양옆은 낭떠러지에 경사는 가파르다.

우리팀의 바로 앞에 선 팀들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던 중 어느순간 낙석이란 외침과 함께

돌무더기가 굴러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질은 안개속에 발생한 상황이라

어떤일이 생긴지는 알수 없으나 불상사가 없기를 바랄뿐인데
잠시후 안개가 걷힌 뒤 살펴보니 다행이 별 이상이 없는것 같다.

잠시의 소란은 모든이를 긴장시킨다.

특히 산행 리더의 신경이 날카로와진 탓인지
우리앞의 리더가 소리소리 지르며 팀원들을 주의시킨다.

안전을 위해 우리팀의 진행을 중지시킨후
잠시 쉬며 앞의 일행이 모두 사라진 뒤 뒤를 따라 오르는데
한발 한발 떼어놓을때 마다 잔돌이라도 굴러 내리지 않게 주의를 준다.

(낙석이 발생했던 위험스런 암릉구간)









가라사와다케로 향하던 중
까탈스런 암릉을 만나며 우리 일행들의 진행속도가 많이 지체된다.
뒤 따르던 다른 단체팀의 불만이 쏟아진다.

가지는 않고 사진만 왜 저리
찍어대며 늘정거려 피해를 주냐는 둥,
도대체 왜 저리 꾸무럭 거리며 못 가냐는 둥....
뒤에서 듣기가 넘 거북스럽다.

그 팀의 산행리더에게

먼저 가도록 해주겠다 말하자 괜찮으니 그냥 진행 하란다.

좀더 산행을 이어가다

적당한 장소를 골라 우리팀의 진행을 정지 시키고

휴식에 들게한 후 뒷팀을 추월하도록 했다.

하루아침에 그 버릇을 고칠수야 없겠지만

한국민의 빨리 빨리 산행 스타일이 오늘따라 더욱 밍살 스럽다.

그렇게 잘난척 하던 팀들이

직벽구간을 앞에 두고 우리팀에게 꼬리를 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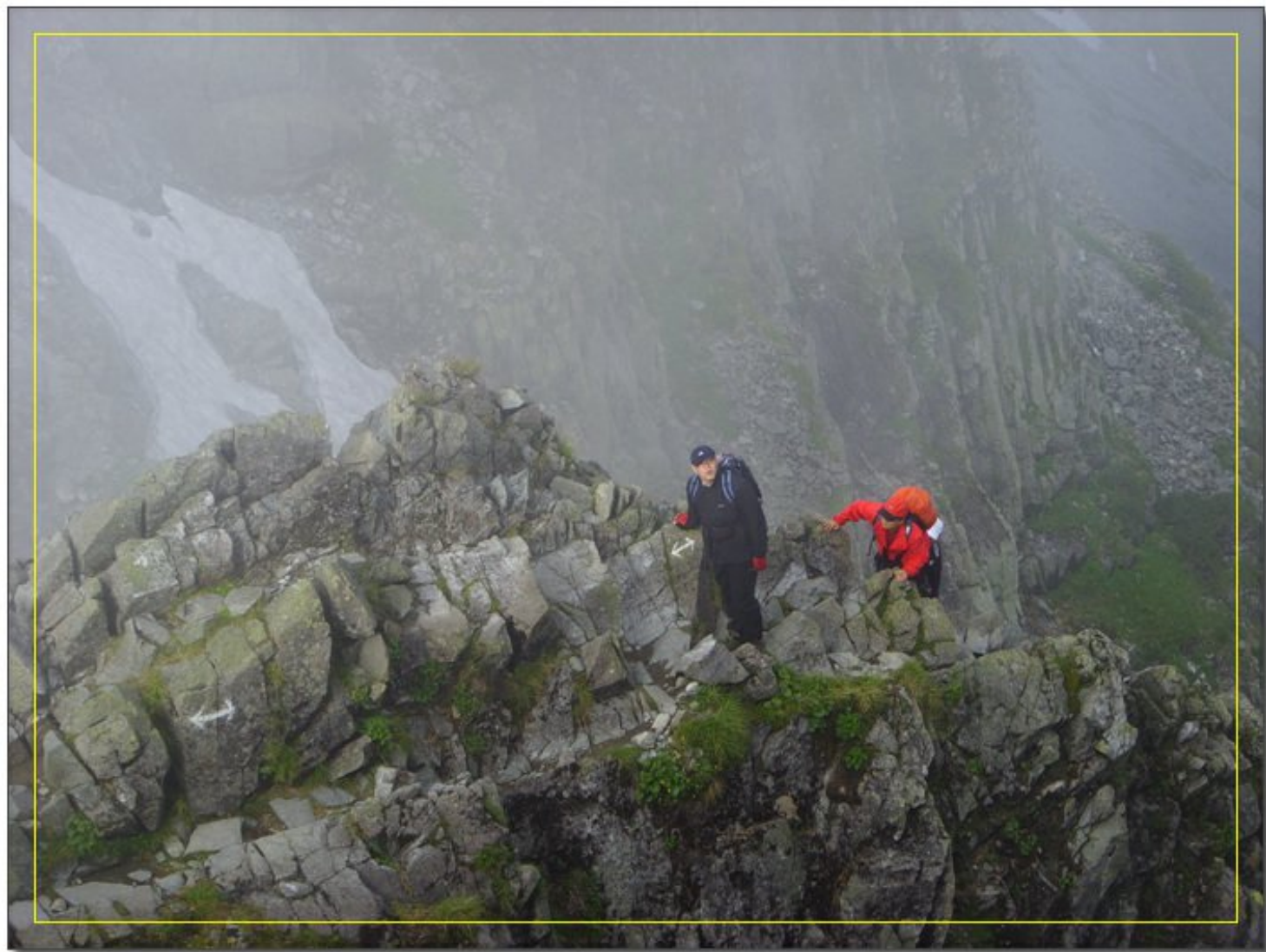
나를 흘깃 쳐다보던 불만투성이 님들이 은근슬쩍 고개를 돌린다.

가라사와다케를 향하는 내내 자연스럽게 걷는 걸음임에도

빨리 진행할 수 없는 험악한 등로로 인해 우리는 그팀의 똥구녁을 쑤셔대는 형상이 내내 지속됐다.

ㅋㅋㅋㅋㅋ

그넴들 가면서 을매나 뒷 꼭지가 뜨거☒을까 ?











가라사와 다케로 향한 암릉의 날등에서
진행방향 좌측의 가라사와 산장이 운무속에 그 모습이 드러난다.
넓게 퍼진 흰눈속에 고즈넉한 산장의 모습이 한폭의 그림이다.
운무속에 펼쳐진 연능을 바라보며 걷는 걸음은
이내 3110 M 가라사와다케에 이른다.

가라사와다케의 정상은 일망무제의 풍광을 자랑한다.
바로 아래의 호다카 산장과 코앞에 우뚝 솟은 3190m의 웅장한
오쿠호다카다케의 위용이 변화무쌍한 운무속에 숨박꼭질을 한다.

오늘 산행은 이젠 끝이다.

지금껏 긴장속에 진행하느라 굳어있던 마음에

여유로움을 찾으며 비로소 모든 역경을 헤치고 무사산행을 해준

우리팀에 대한 고마움과 대견함에 가슴이 뻐뚱하다.

호다카 산장을 내려다 보며

가라사와다케의 정상에서 한껏 여유와 게으름을 피워본다.

아직 한낮으로 굳이 일찍 내려갈 이유가 없기에....

(가라사와 다케에서)



(호다카 산장을 넘어 오쿠호다케 정상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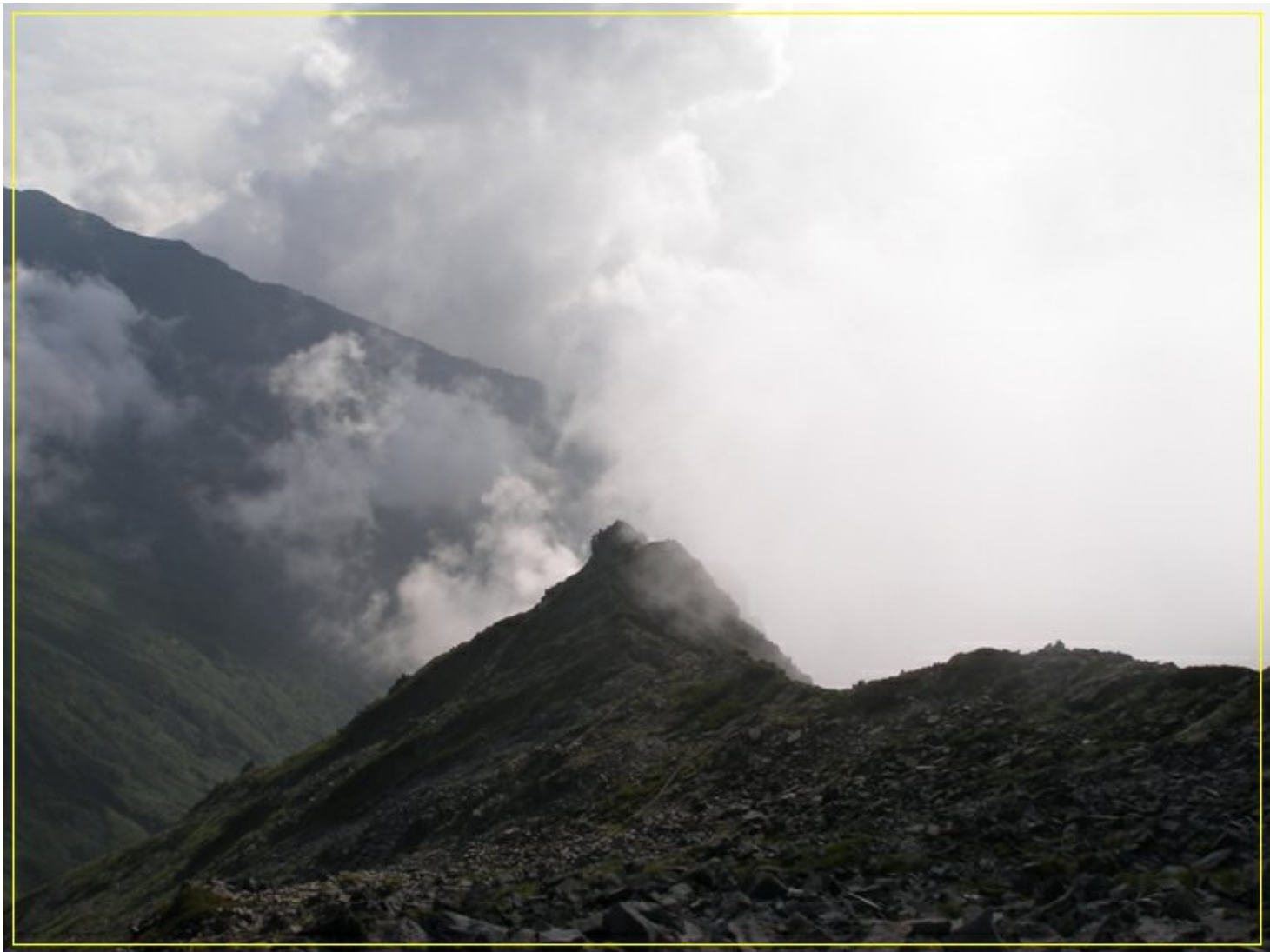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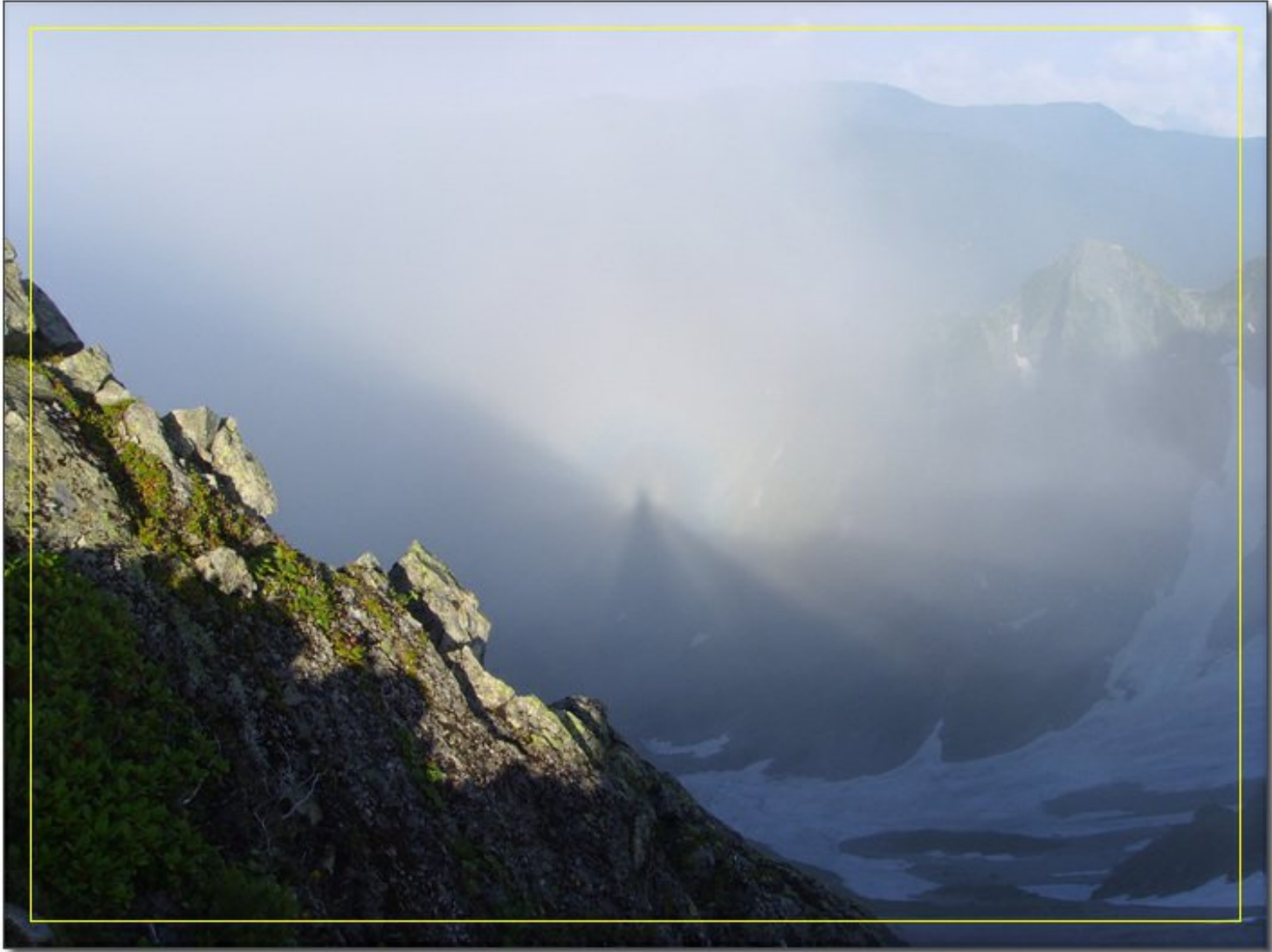


변화무쌍한 운무의
화려한 공연을 관람하는데
거브기님이 갑자기 큰소리로 나를 부른다.
무슨일인가 얼른 뛰어가 보니 묘우진 다케 연봉 아래에 빛의 화려함이 펼쳐진다.
무지개도 아닌 원형의 화려한 레이저 빛이 시간에 따라 색깔과 모양을 변화시키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걸 브로켄 현상이란다.

맑고 깨끗한 하늘과
서늘한 공기가 흐르는 가라사와 다케를 내려서기 싫다.

그러나 먼저 내려선 산우들을 위해 산장의 숙소를 잡아줘야 하기에
억지로 발길을 돌려 너널길의 내림길을 내려 산장에 도착했다.

(브로켄 현상)









가라사와다케와 호다카 정상사이 3050 m 의
 안부에 세워진 호다카 산장은 개인소유 산장으로 100년이 넘었다.
 예약확인후 숙소를 배정받은 후 지갑을 열어 경비를 지급하려 엔화를 꺼내 보니
 이런~!!!
 돈이 흠뻑 젖어 있다.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지갑의
 제일 깊은곳에 간직한 경비와 여권까지 습기가 침범했다.

호다카 산장도

산행대장을 위한 숙소를 따로 배정해 주는데
야리산장과는 달리 4명이 함께 묵어야 하는 다인실이다.
32명이 함께 묵는 다인실에 비해 그래도 아늑함이 풍긴다.
이번엔 육중한 체중에 힘겹게 산행을 이어온 젊은 청년 통역담당 지열군을 위해
나의 숙소를 양보해 주고 남녀 함께 묵어야 하는 다인실 한켠 아내옆에 나의 보금자리를 잡
았다.

숙소에 짐을 풀자
건조실로 향해 바닥에 주저앉아
조심 조심 엔화를 하나 하나 분리해 널어 돈부터 말려야 했다.
우리팀의 먹고 자야하는 거금의 엔화를 말리는 동안
부지런한 바커스님과 공구리님은 벌써 오쿠호다케의 정상을 다녀와
풍광 끝내줬다며 3190m의 북알프스 최고봉 등정의 감격을 풀어놓는다.
흐미~ 부러운거....
돈은 나중에 말리고 나두 갈걸.....

우선 돈을 수습후
카메라의 본체와 렌즈를 분리해
속을 들여다 보니 본체안에 습기가 잔뜩하다.
대충 훈풍에 말린후 작동해 보나 요지부동 완전 맛이 간 상태라
서비스를 받아야 할것 같다.

그러는 동안 우리팀의 식사 시간이 됐다.
식사후 밖을 나오니 저녁 일몰이 황홀하다.
노을이 저리 아름다우니 내일 날씨는 좋겠지란 바램을 안고
숙소에 들어 오늘 무사산행을 자축하는 우리들만의 파티시간을 갖는다.

각자 1000엔씩 거출해

맥주와 양주를 사고 가져온 안주와

버너로 뜨거운 국까지 끓여 차려논 뒷풀이가 흥겹다.

모두들 오늘 걸어온 기렛토구간과 최대의 화재가 된 낙석사건을 되세기며

시간을 보내는데 이젠 취침시간이라 식당의 불을 꺼야 된다는

산장 종업원의 말에 아직도 술이 고픈 주당님들은 세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산장밖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이 술이 무서운 난 슬그머니 숙소에 들어 잠을 청한다.

(호다카 산장의 일몰)









제 4편으로...

- 산행일자 : 2008. 8. 02(토) ☒ 8. 06(수) - 4박5일
- 산행위치 : 일본 기후현(岐阜縣), 나가노현(長野縣)
- 산행장소 : 일본 북알프스 최고봉 오쿠호다카다케(奥穂高岳 3,19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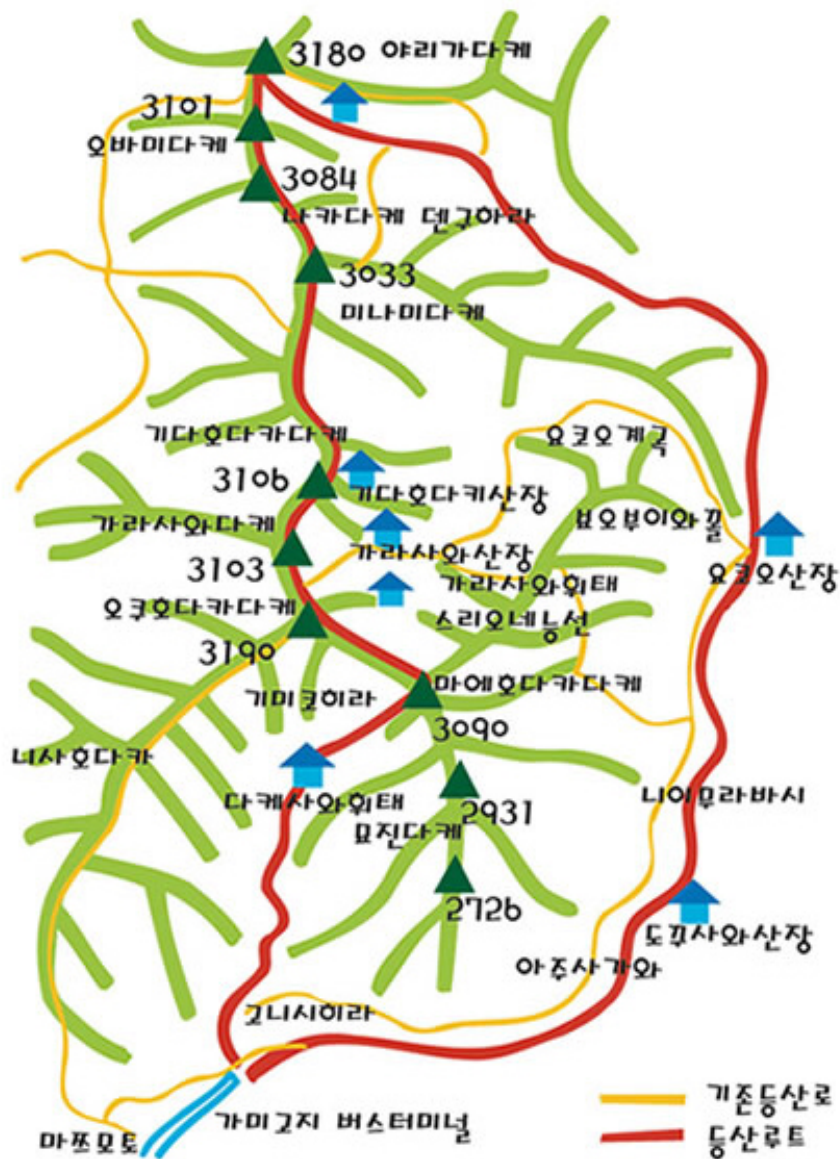
8월 05일 화요일 (오전 흐림 오후 대체로 맑은날에 곳에따라 비)

- 호다카 산장 06:15
- 오쿠호다카다케(3190m) 06:52 - 07:05
- 기미코 히라 08:16 - 08:20
- 마에호 다카다케(3090m) 08:34 - ?
- 기미코 히라 09:20
- 다케사와 산장 11:30 - 12:05 (중식)
- 갓파바시(하동교) 13:40 착 산행 종료.
- 가미고지 주차장 14:15
- 히라유 온천 14:40 - 15:50
- 나고야 사카에로 이동하여 등산 장비점 견학후 한식당에서 석식.
- 도오코인 호텔 1박

8월 06일 수요일 (맑음)

- 09:30 나고야 공항으로 이동
- 12:00 나고야 중부공항 출발
- 14:00 인천공항 도착

- 14:40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출발
- 17:20 대전청사앞 착.



**🌿 뽕주코스 : 가미고지 - 요코산장 - 아리다케 - 미나미다케
오루호다카다케(3190M) - 가미고지**

다인실 호다카 산장의 한밤은

4중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산중의 명곡 코골이 협연이 밤새 흐른다.

거기에 오늘은 새로운 악기로 박박 이를 가는 메뉴가 첨가되어

외롭게 보내는 나그네의 한밤을 위로한다.

그렇게 북알프스 일정 마지막 산장의 밤은 술이 깬 새벽녘부터 꼬박 음악감상으로 날을 지냈다.

새벽 4시를 넘기자

산장의 어둠을 밝히는 불이 자동적으로 일제히 점등된다.

부지런한 발발이 멍팀들 어느새 일어나 밖을 쏘다닌 후 상황보고를 하는데

바커스님 왈

"오늘도 안개가 캄캄혀~"

"일출은 오늘도 틀렸구만~"

어젯밤 그렇게 마시고

어찌 저리 멀쩡할수 있는지 연구감이다.

하긴 새벽녘까지 마신후 술 냄새 폴폴 풍기면서도

마라톤 서브 3를 하는 멍이니 오늘 같은날은 아무것도 아닌것이 당연한 일이긴 하다.

바커스님과 공구리님의 산장시찰은

쓰레기 수거로 끝을 냈다는 보고도 함께 한다.

전날 누가 마시고 먹었는지 세종대왕님의 위대한 창조물

한글이 자랑스럽게 인쇄된 신라면을 비롯한 맑은소린지 린이지 이슬인지

하간 조선의 술병과 각종 캔들이 산장뜰을 난무하기에 죄다 수거하여 분리 쓰레기통에 넣었다.

왜~?

쫄빠리놈들 한티 쫄 팔리잖아~

오늘도 무사히 내릴때 까지

안심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린 하산길이 기다린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행동 일체불허의 항아리 산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하며 단체사진으로 호다카 산장에 묵었음을 증명하는 사진을 남기고

호다카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호다카 산장뜰에서 단체사진)



일출을 볼 수 없슴에 모든팀들이

늦게 산장을 출발해 그런지 오쿠호다카로 향하는 등로가 복잡해 진다.

어제부터 산행중 만나는 팀들은 한국인이 대부분이다.
그냥 척 봐도 우리나라 트래킹을 대표하는 여행사가 인솔하는 팀들인데
한결같이 산행가이드가 맨 앞에서 리드를 하는데
가만 보니 선두 가이드만 있지 정작 제일 중요한 후미를 돌보는 대장은 없다.

사실 산행시 선두에 서는 산꾼들은
개인의 산행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굳이 리더가 필요치 않다.
간혹 산행코스를 이탈하는 사람을 잡아주며 지치고 힘들어 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구호하며 모든이를 추슬러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후미에 가장 능력있는 산행대장이 서야 한
다는게
평소 나의 생각인데 국내나 해외 트래킹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것 같다.
믿음이 가는 리더가 내 뒤를 따른다 생각해 보라
뭐가 겁이 나고 두렵겠나 ?

이번 북알프스 종주를 진행하며
후미를 내팽겨 두고 길 안내랍시고 쫓레쫓레 가버린 산행대장 뒤를
뒤늦게 따르며 혹 이런 이런 팀 가는거 못?냐 몇분쯤에 통과했냐 물어오는
산행인의 당혹스런 얼굴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다.

정상을 향한 가파른 오름길에 들어서자
호다카 산장을 금방 발 아래에 두게 되는데 풍력발전소가 눈에 띈다.
우리나라 설악의 중청이나 지리산 장터목,세석, 노고단등에도 저런
자연 친화적인 풍력 발전소로 전력공급을 하면 좋겠다란 생각을 해본다.



(오쿠호다카 정상 가는길)



(정상을 가는 길목에 설치된 특이한 모양의 이정표)



가파른 오름이 진정되자

북알프스의 최고봉이며 일본에서 3번째로 높은산 오쿠호다카에 이른다.

맑은날엔 후지산이 보인다는데 오늘은 안개의 심술로 몇걸음 앞의 산우도 보기 힘들다.

정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 증명사진을 남기려 혼잡스럽다.

정상을 넘어 바람이 잔 공터에서

사진을 찍고 오느라 지체된 산우들을 기다려 인원파악후

한적한 이곳에서 단체 사진으로 오쿠호다케 정상등정 기념사진을 대신한다.

(오쿠호 다케 정상 단체 기념사진... 뒤에 흐릿한 정상이 보인다.)



정상을 내려서는 등로가 가파르다.

자칫 발을 잘못 디더 잔돌이라도 굴린다면

커다란 인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구간의 연속인데

그나마 다행인건 급격한 내림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고도를 낮춰줌에
하산길이 생각보다 다소 수월하다.

마에호다카와 갈리는

기미코 히라로 향하는 암릉의 능선을

향하던 중 아들 딸을 데리고 외출한 뇌조 일가족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의 핑중 까투리와 거의 흡사한

뇌조는 새끼 또한 꿩의 새끼 꺼병이와 똑같이 생겼다.

사람을 별로 무서워 않는 듯 가까이 다가서도 아랑곳 없이 야생화와 풀잎을 연신 쪼아 먹고 있다. 요념들 지금은 풀잎을 먹는다 해도 한겨울은 뭘 먹고 살꼬~? (아시는 분 읊슈~?)

(뇌조의 일가족으로 엄마와 아들 딸)



(그리고 일가족 가장인 아빠 뇌조)



일본의 북알프스 능선은

꼭 집어 어디가 위험다고 말 할수 없을 만큼

전 구간이 우리나라 설악의 공룡이나 용아릉 처럼 위험천만의 등로다.

거기다 안전시설 또한 전무하여 더더욱 위험스런 등로인데 이곳 일본인들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곳을 올라온 사람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아마도

험한 세파에 세상을 살아가려면

보다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극기훈련차

데려온게 아닌가 추측되는데 따라온 어린애들도 당연한듯 투정을 부리는일 없이 의연한 자세로 산행에 임하는 모습이다.

하산길에 만난 어린애 부모를 향해

보디 랭귀지를 겸한 콩글리쉬 영어로 물어보니

내 뜻을 알아듣고 어린애 나이가 여섯살이라 손가락을 꼽아 가르쳐 준다.

(어린이를 동반한 일본인 가족 등산객)



마에호다카와 갈리는 기미코히라로 향한 능선길엔

발아래 저멀리 가미고지가 시원스레 내려다 보이고

오쿠호다케로 부터 연결된 2090m의 니시호다케 산줄기가 가미고지로

주저 앉는데 운무속에 벗겨졌다 가렸다 희롱하는 그 모습이 또한 장관이다.

(기미코히라 가는길의 풍광들)









(묘진다케와 니시호다케 사이 협곡의 강줄기 아래 가미고지 모습이 보인다)











마에호다카로 올라서는 갈림길 기미코 히라에 도착했다.

우리팀 모든 인원에게 각자 산행능력에 따라 올라서고 싶은 사람만 갔다오고
나머지 일행은 이곳에서 기다리라 한 후 베낭을 벗어 놓고 마에호다카로 향한 암릉에 올라
선다.

성미 급한 바커스님은 벌써 저만치 올라서고 있다.

지금껏 뽕뽕 묶인 족쇄가 풀린 나의 발걸음이 모처럼 활개를 친다.

곧바로 바커스님의 뒤를 따라 붙어 나란히 정상을 향한다.

가슴의 심장이 고동치자 숨이 턱까지 차며 다리통에 몰린 신선한 혈액에
순간 허벅지와 종아리가 팽팽해지며 기분좋은 고통이 몰려든다.

기관차의 만부하에 해당하는 속보산행에

뒤늦게 붙은 공구리 형님이 가세하여 셋이 거의 동시에
마에호 다카를 14분만에 올라섰다.

(마에호다카와 갈림길 기미코 히라)



(마에호다카 오름길 전망대에서 조망을 즐기는 산행인들)



마에호다케의 마에는 앞전(前)자를 뜻하는 단어로
 즉 북알프스 봉오리중 맨 앞의 봉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다.
 여기서 바라보면 어제 하루종일 걸어온 야리다카케의 뽕죽 솟은 봉에서
 오쿠호다케로 이어지는 연릉이 장엄하게 펼쳐진걸 볼수 있다하여 많은 기대를 품고
 단숨에 올랐건만 안개의 심술로 아주 가까이에 있는 북알프스 최고봉 오쿠호다케도 볼 수
 없다.

뒤늦게 올라서는 아내 초록잎새랑 함께 내려가려 기다리다
 정상에서 좀 벗어난 암릉에 다가가 참았던 몸물을 오쿠호다카 정상을 바라보며
 시원스레 갈겨 나의 영역 표시를 남겼다.

왜그리 지저분한 행동을 하시냐구여~?

지리산 섬진강변에서 초등학생을 가르키며 사는 시인 김 용택님이 그러길래 따라했다.

정말~?

당근이줘~!!!

지구에 사는 동물중 쓰레기를 남기며 사는건
유독 인간밖에 없다며 배설물이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나를 실험하느라
시인은 퇴근길 섬진강변 숲속에 똥을 싸놓은 후 관찰을 하신다.

불과 몇분사이 똥파리를 시작으로
각종 곤충 미생물이 각각의 적정한 시각에 나타나
분해를 함으로 몇일 지난후 찾아 갔을땐 그 자취조차 볼수 없었음을 확인후
인간의 배설물도 모든 생물의 먹이가 되고 자연으로 되돌려짐에 예전엔 아주 쓸모있는
거름으로 활용되던 배설물이 현대에선 처치곤란의 공해 오염물이 된 형편이라
그분은 숲속 방뇨와 방분을 적극 권장하시는 걸 책에서 본 기억이 있다.

그런데

똥도 아닌 오줌하나 갈긴건데....

일본애들 지들땅도 아닌 독도를 지땅이라 우겨대는 마당에
내가 할 수 있는건 아름다운 북알프스 연봉중 그 첫 시작이 되는 봉오리에
나의 영역을 표시함이 뭐 그리 대순가 ?

아무튼 난

일본이 자랑하는 북알프스 첫 연봉의 시작점이
나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음을 엄숙히 선포하는 바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마에호다케의 정상비)



(마에호다케와 이어진 묘진다케의 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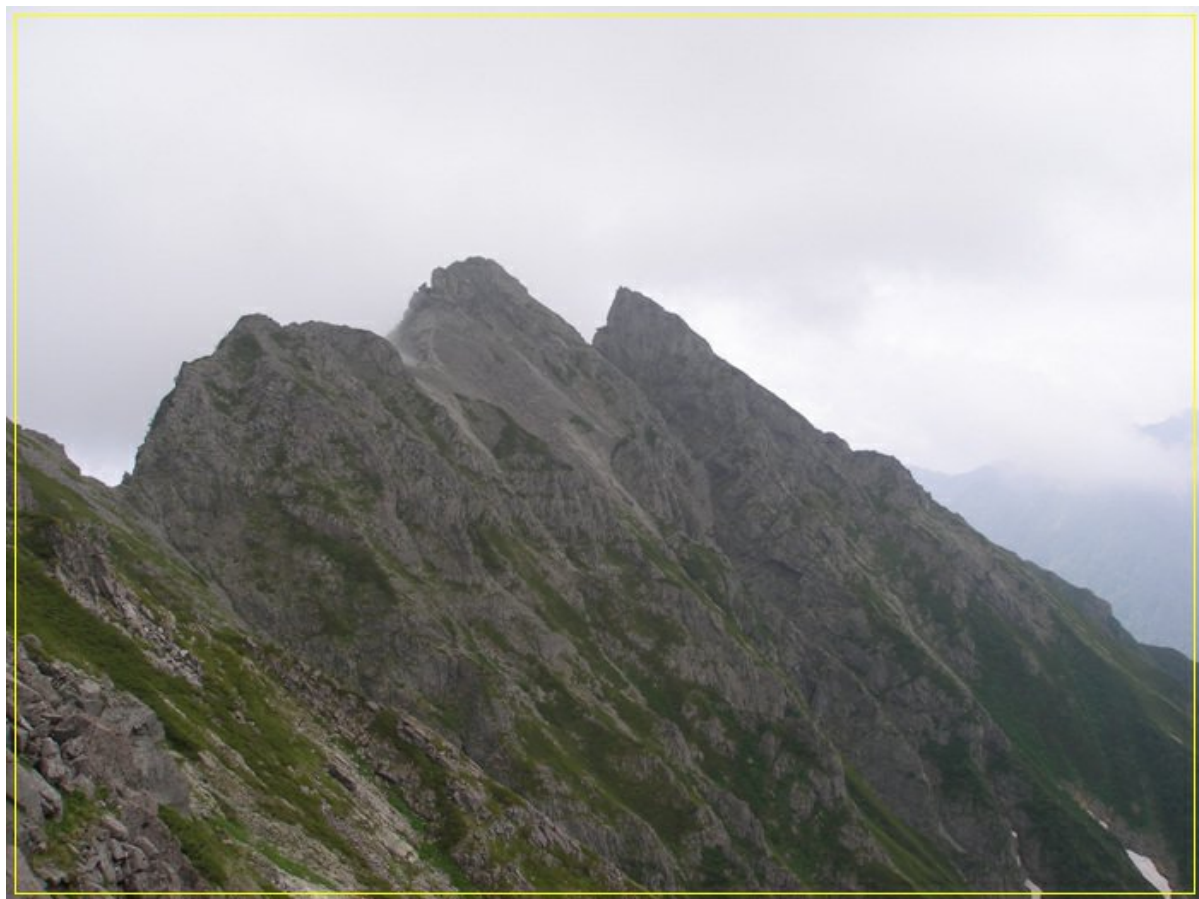
(마에호다케 내림길 풍광들..)



(내림길에서 바라 본 기미코 히라)



(진행방향 좌측의 묘진다케 위용)



모든 일행이 내려설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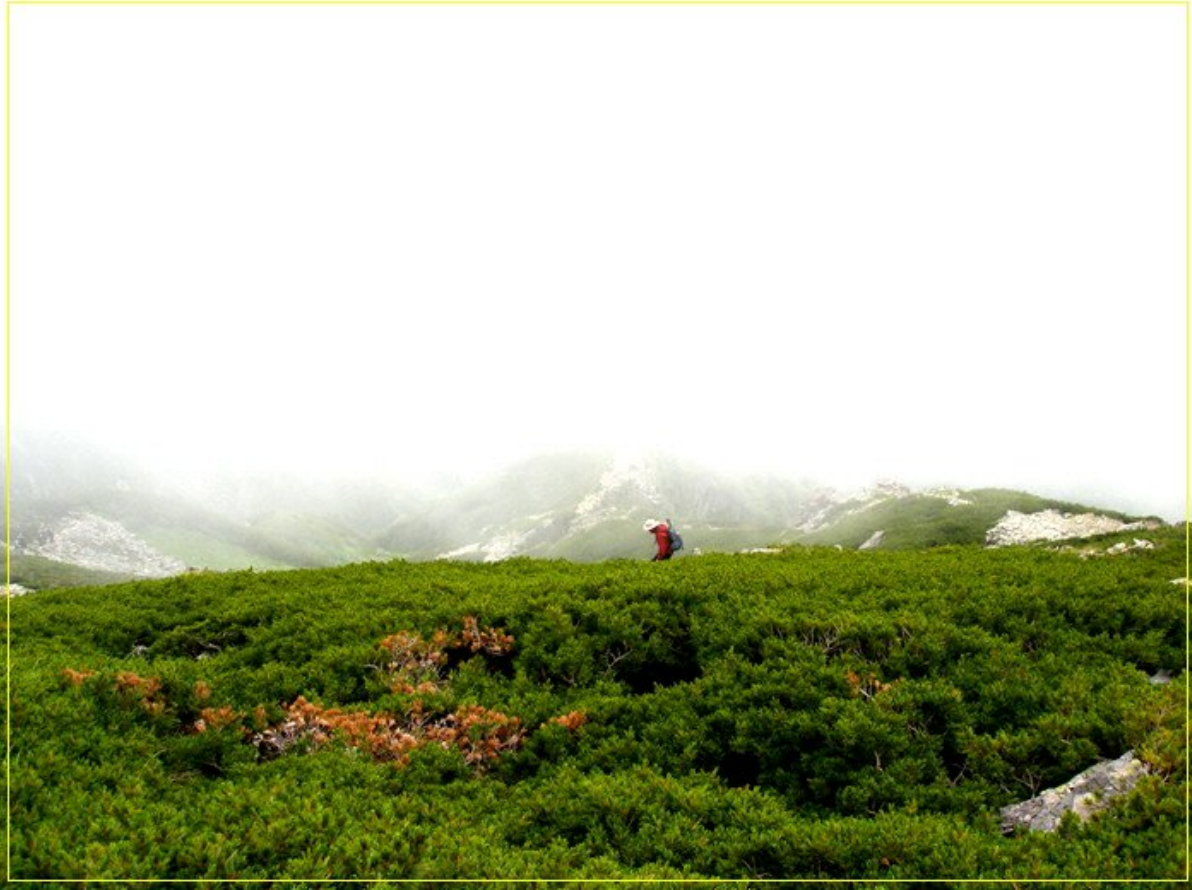
기미코히라에서 착실히 우릴 기다려 준 일행과 함께

이 등로를 개척한 사람의 이름을 붙인 일명 주타로신도를 따라 다케사와 휘테로 향한다.



다케사와 휘테를 향한 내림길로 고도를 낮출수록
암릉 투성이던 주위가 푸른 생명력을 자랑하는 나무들로 바뀐다.
그런데 모두들 하나같이 식물과 나무들은 땅바닥을 걷다.
모진 강풍에 견디며 살아가려는 저들이 택한 삶의 지혜다.
자연에 순응해야 살아갈 수 있음을 저들의 식물군에서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
?

(바싹 주저앉아 자연의 환경에 순응하며 삶을 이어가는 식물들)











다케사와 산장에 이를때 까지
지금껏 잘 견뎌준 이지열군이 힘겨워 한다.
아마도 한발 한발이 그에겐 고통의 연속일 거다.
그러나 고통이 클수록 그에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거다.

이 지열군과 다케사와 휘테에 도착하자
선등한 우리 일행들은 이미 도시락을 다 먹어가는 중이다.
눈사태로 이젠 그 흔적만 남은 다케사와 산장터에서 호다카 산장에서 받아온
대나무잎으로 싼 도시락을 꺼내어 먹는데 시장한 탓인지 아주 맛나다.

식사후 땀뻘은 그냥 숲에 버려도 무방할것 같아
숲속으로 던지려니 맘보(석 진호님)이 버리지 마라며

모든 쓰레기를 자기 베낭에 쑤셔 넣으며 하시는 말씀이 걸작이다.

"베낭은 큰디 들은게 없어 뽀다구가 나야지 원~"

그래 그런가 ?

그의 커다란 베낭의 반은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다.

다케사와 산장터에서 먹은 흔적들과 주위에 버려진 생수통까지
찌그러 트려 집어 넣고 나니 그의 말처럼 비로소 제법 뽀다구가 나는것도 같다.

자리를 정리후 내려서는데

올라서던 일본인 등산객이 맘보님 베낭을 보며

엄지 손가락 하나를 치켜 세우자 순간 맘모님 어깨가 으쓱 하더니

아주 기고만장 기분 캡이 됐다.

(다케사와 산장터에서)



주타로신도가 끝날쯤

울울창창한 전나무숲길이 이어진다.

코끝에 와 닿은 싱그런 숲냄새가 정말로 향기롭다.

피톤치드가 다량으로 내뿜는 숲속은 그간 지친 심신을 위로한다.

울퉁불퉁 너널길에서 포근한 육산을 밟는 느낌이 너무 좋는데 시원한 냉풍이 나오는 계곡을 지나자

이내 산행종점을 향한 갓파바시(하동교)로 인도하는 숲길이 반긴다.

(하동교로 향하는 숲길의 하천이 맑고 깨끗하다)



하동교에 도착하며

한국의 산찾사 전국구 산행팀의 무사산행을 끝낸다.

짐을 찾아 예약된 버스에 올라 히라유 온천에서 그간 산행하며 씻지 못해
피죤피죤한 물골들을 빠까번쩍 신사 숙녀로 변신후 나고야를 향한 머나먼 길을 떠난다.

나고야 향하는 길엔

변화무쌍한 날씨를 경험한다.

터널 통과전엔 윈도우 브러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더니

터널 통과후엔 언제 그랬냐 듯 일기화창한 날씨를 선보이더니 이내 다시 폭우가 쏟아지
고....

저녁식사전 나고야 사카에의 등산 장비점을 견학후

교민이 운영하는 한식당에 들러 늦은 저녁을 먹는데 그간 그런대로 우리의 입맛을 맞췄다고는 하지만 2% 부족한게 사실인 듯 제대로 된 우리의 맛을 맛보니 온몸이 개운하고 시원하다. 역시 조선인은 얼큰한 김치찌게에 고추장과 맛깔스런 짬지가 있어야 제대로 먹은것 같고 힘이 나는것 같다.

(하동교 근처의 일본 행락객들)



일본 북알프스 모든 여정의 끝인
도오코인 호텔에 도착 2인1실의 특급호텔에 여장을 풀 후.
다들 무사산행을 자축하는 조촐한 자리를 가졌다.

김영환님이 그간 아끼고 숨겨둔
17년산 와인이 나오고 우리가 거출했던 공금에서
남은돈으로 차려낸 술자리가 풍요롭다.

기분좋은 취기가 오를쯤 자리를 정리후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에 깔끔한 호텔방에 들어 숙면에 들었다.

다음날 이른아침
일어나 호텔로비에 나가보니
지난밤 그간 산행의 긴장감에 해방된 몇몇 산우들이
좀 과하게 마신 술로 작은 소동이 있었나 보다.

국내서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다른나라는 몰라도 일본에서의 행동은
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에 좀 야속한 생각이 드는건 사실이나
술마시며 대화하는 목소리가 좀 크기에 호텔 뒷편 바닷가로 자리를 옮겼다는 말에
술이란 놈이 어떤놈이지
한편의 시를 음미하며 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한다.

술을 양껏 마시고 나면

-이 윤재님-

**술을 양껏 마시고 나면
언제나 처럼**

단추가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샛별이 떨어지고

술을 양껏 마시고 나면
언제나처럼
양복이 찢어지고
목청이 찢어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술을 양껏 마시고 나면
언제나처럼
살가운 이들 멀어지고
처자식도 멀어지고
살날도 멀어지고

술을 양껏 마시고 나면
언제나처럼
밤만 깊어지고
시름만 깊어지고
그리움만 깊어지고

술을 양껏 마시고 나면
언제나처럼
소원만 많아지고
기도만 많아지고

기도처럼 널브러진 죽은 詩만 쌓이고

그렇다고 술을 끊자니

그나마 어디든, 언제든

사람 사랑하는 일마저 철따라 못하니

그래 다시 술 마시는

봄 눈 오는 밤

(나고야 중부공항에 들어서는 산우님들 고향을 벌써 그리워 하는것 같다.)





산행기를 끝내며 산찾사 한마디

일본의 북알프스 야리능선은 한번 더 찾고 싶은 명산이다.

어떤 제제나 제약없이 누구나 가고 싶을때 갈 수 있는 그네들의 공원관리가 맘에 든다.
편의시설 안전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본인에게 있음은 당연
하고

산 사태등 자연재해는 자연이 치유하게 그냥 방치 해 둔게 특히 기억에 남는다.

어쩔수 없는 편의시설은 자연을 그대로 살린 시설과 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올바른 자세 또한 돋보인다.

독도문제로 불거진 얄미운 이웃 일본의

명산을 찾으며 비록 우리가 그네들보다 경제적으로 뒤진다지만
그네들보다 문화적인 우월적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산행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것은
나의 바람과 너무 동 떨어진 한국인의 행태에 실망만 안겨 준 산행였다.

일본인....

그네들은 담배를 피워도 콩초는 기본이고
담배재까지 수거해 가는 기초수범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산행에는 여유와 느긋함으로 자연과 동화되는 스타일의 산행을 즐기는 걸
알수 있는데 반하여 우리 한국인은 속도산행을 은근히 빠기는걸 은연중 과시한다.

외국에 나가면

한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를 욕먹이는 짓이 된다는걸 인식하여
쓰레기 하나 함부로 버리는 짓거리나 술자리의 고성등은 지양해야 비로소
높은 경제적 수준에 걸맞는 문화국민으로 인정 받는다는 걸 알고 행동했습 하는 바램이 든
다.

만나고 스칠때 마다

친절하고 상냥한 미소 뒤에 얼마나 응큼맞은 생각과 사고를
간직하고 있는 민족인지 모르나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그네들의 장점은
배울건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본 산행을 하며 日本을 日本으로 만들고 오겠단

나의 결의는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언젠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네들을 앞질러

기필코 日을 찌그러 트려 日로 만들날이 올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일본 북알프스 야리~호다카 능선 종주를 함께 하며

함량미달인 산행대장을 끝까지 믿어주고 따라쫓에 무사산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산우님들께 감사합니다

또한

일본내 모든일정을 불편없이

예약해 주신 AM 트래킹 이팀장님께도 팀원을 대표하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산에서 건강을....산찾사.이용호

어느날 : 2008년 8월 02일(토)~06일(수)

어디로 : 일본 북알프스 야리~호다카 종주

누구랑 : 울산에서 서울까지 나의 산우들 16명.

위째서 : 일본(日本)을 왓본(曰本)으로 맨들러...

으떻게 : 그네들이 뽐내는 명산을 꾸욱 발로 밟아 기를 눌러 日을--->曰로 변환

그래서 : 못했슈~

왜~? : 그네들에 비해 아직은 부족한 함량미달의 문화민족 한계 때문에....

-산행경로-

8월 02일 토요일 (맑음)

버스 대전 04:35 발 인천공항 07:20 착

oz 122 인천공항 09:15 발 나고야 11:20 착

버스 나고야 12:15 발 히루카노 고우겐 휴게소 13:33착 (중식)

휴게소 14:20 발 다카야마 전통거리 16:13착 (관광)

다카야마 17:08 발가미고지 주차장 18:25 착

고나시타라 롯지 1박.

8월 03일 일요일 (맑음)

-고나시타라 롯지 07:20

-명신(묘진관) 07:50 - 08:00

-도쿠사와 산장 08:45 - 09:00

- 신천교(신무바라시) 09:12
- 요코산장 09:50 - 10:13
- 이찌노마다 두번째 지류 목재다리 11:00
- 수력발전소 11:17
- 야리사와 롯지 11:25 - 12:10 (중식)
- 바바 다이라 캠프장 12:25 - 12:30 (식수 보충)
- 텐구바라 분기점 13:50
- 야리산장 16:07 착 (숙소 배정) - 17:15
- 야리가다케(창봉) 17:30 - 17:50
- 야리산장 18:10 착 19:00 석식후 1박

8월 04일 월요일 (오전 비 오후 갬)

- 야리산장 06:36
- 오바미다케(3101m)
- 나카다케 (중악. 3084m) 07:30
- 미나미다케 가기전 갈림길 07:55
- 미나미다케(남악.3032.7m) 08:30
- 미나미다케 산장에서 라면과 커피로 추위를 달램.
- 오기렛토
- 기타호가다케 산장 13:40
- 기타호다카다케 (3160m) 14:00 - 14:15
- 가라사와 다케 (3110m) 16:45
- 호다카 산장 17:10착1박

8월 05일 화요일 (오전 흐림 오후 대체로 맑은날에 곳에따라 비)

- 호다카 산장 0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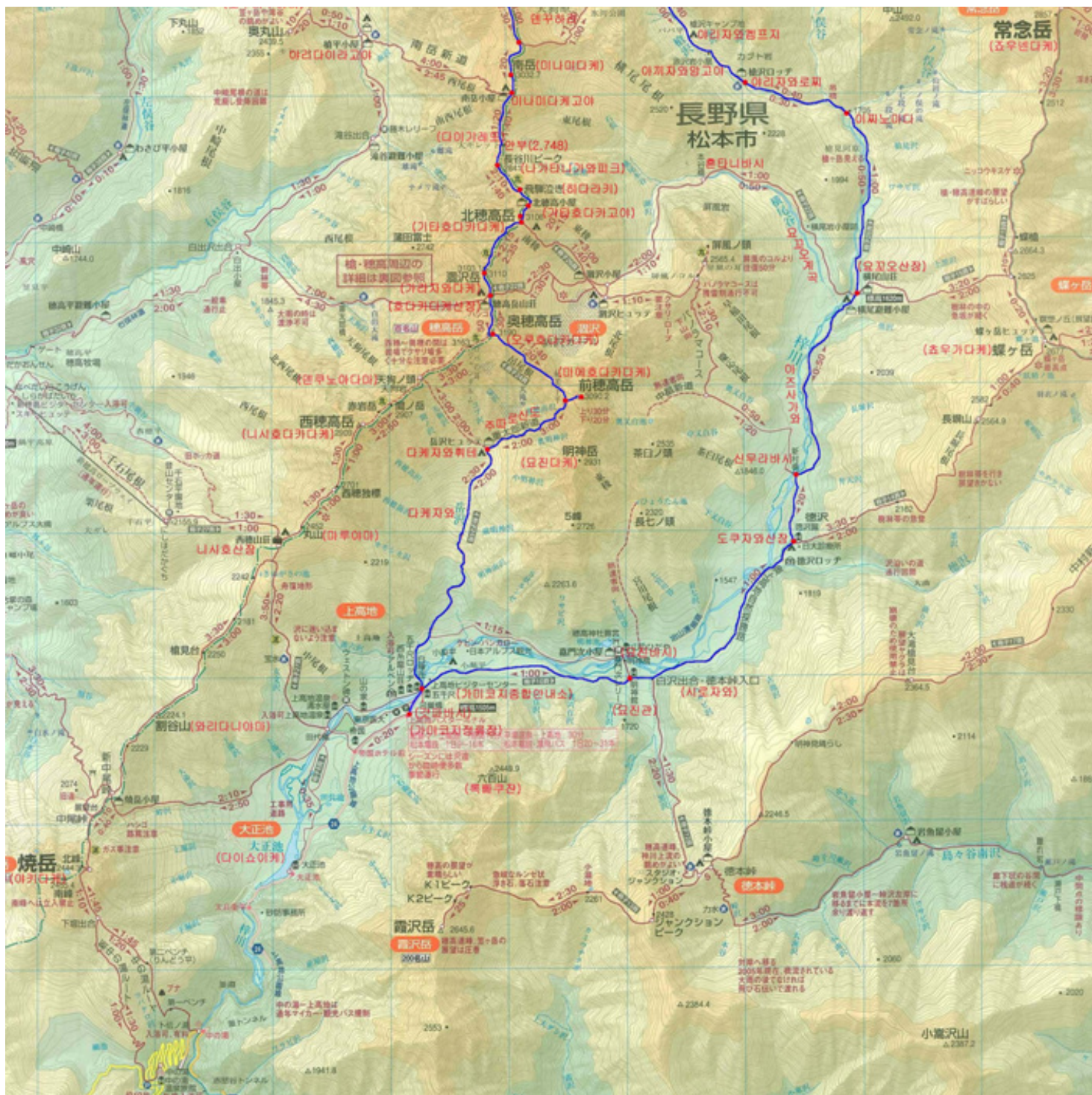
- 오쿠호다카다케(3190m) 06:52 - 07:05
- 기미코 다이라 08:16 - 08:20
- 마에호 다카다케(3090m) 08:34 - ?
- 기미코 다이라 09:20
- 다케사와 산장 11:30 - 12:05 (중식)
- 갯파바시(하동교) 13:40 착 산행 종료.
- 가미고지 주차장 14:15
- 히라유 온천 14:40 - 15:50
- 나고야 사카에로 이동하여 등산 장비점 견학후 한식당에서 석식.
- 도오코인 호텔 1박

8월 06일 수요일 (맑음)

- 09:30 나고야 공항으로 이동
- 12:00 나고야 중부공항 출발
- 14:00 인천공항 도착
- 14:40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출발
- 17:20 대전청사앞 착.

(산행지도)





-산행후기-

나는 도시인이다.

직장도 집도 도시에 있기에

도시를 떠나선 살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러기에...

난 더욱 더 자연을 동경하며

자연속 삶의 진실과 철학을 얻고자 몸부림을 치대는건 아닌지 ?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산업사회속에서 미련 곰탱이 같이

원리원칙만 고집하는 나의 성격으로 인해

이래저래 상처받은 내 영혼의 저 밑바닥 아웅성 울림은 단하나

속세의 관습이나 규율 따위를 무시한 방랑과 자유분명한 삶을 사는 보헤미안 이다.

광통신 인터넷 정보와 함께

신화속 페가수스보다 빠른 비행기와 자동차가 세상을 지배할수록

도심속 나의 삶엔 촉촉한 감수성이 메말라 가뭄의 논바닥 갈라지 듯 쓰라림만 남았다.

회색빛 도심의 삶에

새로운 삶으로 채움의 탈바꿈 계획을 세운다.

방법은 숨가쁜 일상을 벗어난 일탈....

일상탈출을 계획하는 동안

함께 할 산우를 모집하는 과정의 이런저런 사연 끝에

최소한의 걱정인원으로 팀이 꾸러지고 가슴 설렘만이 남은 전날..
필봉님 아우의 전화한통에 정신이 번쩍든다.

"넌 너른쑤 형님 생신인데 으떨할규~?"

난 참말로 무심한놈이다.

이런저런 모든일 항상 세심히 챙겨주는 형님의 생일을 잊다니....

저녁 만남을 정해놓고

떠나기전 오늘 반드시 처리할 일이 있어

주차장에 티코를 후진하는데 작은 충격에 머리끝이 쭈뼛 일어선다.

얼른 나가보니 오래된 써금써금한 엘란트라에 운전석 옆 부분과 스쳤다.

운전석엔 젊은 여인이 나와

후진하는거 봤는데 천천히 나오길래

얼른가도 될것 같아 들어왔다며 무척 미안해 한다.

우야튼

원인제공이야 그녀가 했지만 나의 과실이다.

차 수리만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날 저녁 모임에 한통의 전화를 받는다.

티코 후미 시그널 조금 깨진 정도의 충격인데 여기저기 아파 병원에 들어 눕겠단다.

참말로 무서운 세상이다.

얼마전 훌쩍제 운행이 불편해 아내에게 투산을 내준날

투산의 뒷범퍼가 주저앉을 정도의 사고를 당한 아내는 몸 멀쩡한데

뭘라 병원가느냐 며 차 수리만으로 사고처리를 끝냈는데 한결같이 주위사람들은

편하게 돈 벌 기회를 놓쳤다면 우릴 이상하게 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고방식이 어둡한 우리부부만 몰랐지 모두 다 이런가 보다.

숨막히는 살벌함이 감도는 이 도심이 정말 싫다.

그냥 떠나려 했는데 반드시 떠나야 할 필연의 사연이 또 생겼다.

캄캄한 야밤 아파트를 나섰다.

대전 청사앞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정류장에 이르자

먼저 도착한 산우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미리 예매한 버스표를 나눠준후 시간에 맞춰 도착한 버스에 오른다.

일본 북알프스를 추진하자

주위분들 한결같이 우리땅 독도를 지네들 땅이라 우기는

싸가지없는 놈들 나라엔 뭐라 가냐 비난조로 물어올때마다 나는 이런말로 응대했다.

날일(日)자로 시작되는 일본을 나의 두발로 조근조근 밟아 쭈그러뜨려 말왈(曰)자 왈본으로

만들어 주둥이만 살아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거창한 나의 거사에 합류한

울 사무소 최고참 오 백영 형님의 결의에 찬 근엄한 얼굴 뒤로

처음 이국을 향한 첫경험이 걱정스런 이 흥식 사모님이 마중 나왔다.

이흥식 사모님의 근심과 걱정이 담긴 끈끈한 시선을 뒤로 이윅고 최신식 시설의 리무진 버스는 어둠을 가르며 인천공항을 향한 질주를 한다.



설핏 잠든 나를 깨우는 전화...
먼저 공항에 도착한 나의 산우들이다.
M 카운터에 가 기다리라 말해 준다.

휴가철이라 그런가 ?
M 카운터 앞 아시아나 항공 OZ 122 티켓팅을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다.
좀 늦게 도착한 나쁜 본 이팀장님께 얼른 여권부터 건넨다.

짐을 붙이고

티켓을 받아들고 보니 16석중 14석이 비즈니스석이다.

일반석만 팔린 좌석권을 할수없이 배정하다 보니 늦게 도착한 우리팀이 재수 좋게 당첨됐다.

오~예~!!!!

출국 수속후

비행 탑승까지 비로소 여유가 생기자 배가 고프다.

아내와 함께 스낵코너에서 간단하게 빵두개와 우유 하나를 시킨후

돈을 지불하는데 이거 완존 도둑놈들 아냐 ?

맛도 별로 읊는것이 비싸긴 오라지게 비싸다

을매나 하냐고여~?

만 삼천 오백냥.....

이글을 읽는분 나중에 이런 경우

배고파도 찜 참았다가 기내식으로 드시길...

(인천공항에서 나고야로 향한 비행항로)



(이륙직전 인천공항 전경)



드디어 탑승이 허용되고...

비즈니스석이 앉자 은근히 기분 좋다.

16명중 재수없게 일반석 티켓에 당첨된 바커스님께 미안하지만..

한차례 작은 요동과 함께 뒤로 쓸림을 느낀 순간

인천공항이 저 아래 장난감이 되어 우릴 올려다 본다.

잠시후

이쁘장하고 상냥한 스튜디어스의 기내식을 받아들자 시장기가 돈다.

기내식은 그런대로 맛도 좋고 깔끔하다.

거기다 비지니스석엔 맥주도 제공되고 원하면 리필도 된다.

흐미~!! 좋거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식사를 끝내자

입국서식을 작성하라며 내준 서류양식엔 죄다 영문을 써 넣어야 한다.

그간 가방끈 짧아도 불편한거 못 느끼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 못배움과 배움에 대한

뎃가를 톡톡히 치른다.

옆사람 컨닝하고 물어 물어 겨우 작성한 서류는 정작 출국장을 나설땐
출입국 관리원 아가씨에게 영문 알파벳 틀린곳을 지적받고 다시 써야만 했다.

우이씨~! 쪽팔려~!!

(기내에서 바라본 하늘 풍경)







1시간 30여분만에 나고야 중부공항에 도착.

입국수속후 공항을 빠져 나오자 미리 나와 있을거라 생각했던
예약한 버스회사 직원이 안 보인다.

통역으로 함께 간 지열군에게 전화로 알아보라 하니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전화받고 올라 오는중 이란다.

(공항 버스 주차장 출입구)



(일본내 모든 일정을 예약한 BA투어 회사 버스)



공항내에서 잠시
국제 미아가 되는거 아닌가란 불안감은
버스에 올라타며 자연 해소가 되고 모두들 이국을 향한
첫 일정의 기대감으로 버스안은 술렁인다.

16명을 태운 28인승 버스의
맨 뒷자석은 탁자까지 갖춘 룸싸롱 시설의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데 깔끔하고 정갈한 노신사의 운전 또한 암전하다.

이 양반 얼마나 운전규정을 잘 지키는지

80 K/H 속도의 고속도로를 달릴땐 앞에 앉은 올 마눌 초록앞새는

속도지시계가 80 K/H 에 고정되어 있어 속도계가 고장난 줄 알았을 정도다.

(이동중 버스안에서)





공항 출발후 얼마되지 않아
고속도로 휴게소로 차가 들어선다.
휴게소 식당에 미리 전화로 점심 예약을 확인하고 들어 왔는데
손님들이 밀려있어 10여분 휴게소를 산책하다 자리를 배정 받아 점심을 먹었다.

음식명은 쇼우가 야끼라 하는데
밥과 된장국에 돼지고기 삶은거와 야채로 그런대로 먹을만 하다.

식당에선 산행가이드와 기사는

따로 다른 메뉴의 식사가 공짜로 제공된다.

원래 내가 그 메뉴를 먹어야 하는데 막상 나온 음식을 보니

돼지고기가 들어간 라면과 볶음밥인데 탁자에 내려놓는 순간 돼지 냄새에 비위가 확 상한다.

통역가이드로 데려온

이 지열군은 일본유학의 경험이 있어

그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기에 그럼 바꾸어 먹자니 종단다.

후의 얘기지만 탕크님은 그 라면을 꼬옥 먹고 싶었는데 이번 북알프스 일정기간 내내 기회가 없어 못 먹어 서운해 했는데 진작 알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날그날 오늘의 메뉴 음식만 제공하는 관계로

처음 우리가 계약한 음식값에 다소 얼마의 초과 비용이 발생한

휴게소의 음식을 그런대로 맛나게 먹은후 소화도 시킬겸 휴게소 상점을 구경하는데 음식점 종업원이 나를 찾아와 언제 떠날거냐 묻는다.

10분후에 갈거다 하니

그때 좌장과 함께 환송을 해 준단다.

그런데

예쁘장한 여종업원의 한국말씨가 너무 유창하여

어디서 우리말을 그렇게 잘 배웠냐 물어보니 자기도 한국인이란다.

황 미경이란 그 여성은

일본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아르바이트중 이란다.

이렇게 이쁜 여성을 일본놈한테 빼앗겨 넘 억울하다며

울나라 총각놈들 뭐 하느지 모르것다고 너스레를 떨었더니

그 아가씨 안절부절 진짜로 미안해 하는것 같아 농담이라니 그 아가씨 씨익 미소를 짓는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총각들 장가 못가 이국의 처녀들과 짝을 짓는 요즘의 현실을 생각하면
내 속 마음은 진짜로 서운하다.

(히루까노 고우겐 휴게소)



(휴게소 식당 메뉴들)





(기사와 TC에게 제공되는 돼지 비계가 잠수한 라면..)



(우리가 먹은 중식 쇼우가 야끼)



(일본인과 결혼한 음식점 종업원 황 미경 양)



(휴게소의 전경)





휴게소를 떠난 버스가

두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다카야마의 옛 전통 거리다.

옛모습 그대로 건축물과 각종 먹거리 기념품 그리고 박물관과 공원이 자리한

다카야마 전통거리의 이정표엔 한국사람이 얼마나 많이 찾는지(?)

일본말 안내문 아래엔 한글이 표기돼 있다.

(다카야마 철도역사)



(일본글 아래 영문과 한글이 표기된 거리의 이정표)



(다카야마 전통거리의 풍경들...)









(다카야마 전통거리를 운행하는 인력거)





















(무료로 개방된 박물관)



병일리와 흥식형님은

마치 국민학생이 소풍을 나온 듯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맥주와 음료수를 사와 나보고 맛 보라 내밀더니 어느순간 내 시야에서 사라진다.

뭘 살게 있을까란 나의 생각과는 달리

산우님들은 각종 약세사리와 손부채등을 들고 약속된 시간에 버스에 올라선다.

일본 첫날 모든일정은 이것을 끝으로 숙소를 향해 가미고지로 향한다.

계속 고도를 높일수록 길게 이어지는 터널을 지나 구불구불 산고개를 넘고 넘자
체감온도가 뚝 떨어짐이 느껴질 쯤 가미고지 주차장에 도착한다.

버스에 내리자

관리사무소에서 산행가이드를 찾는다.

관리사무소 안내인을 따라 사무실에 들어가

예정된 산행코스와 인원수 그리고 대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적고나자

비로소 가미고지 공원의 입장을 허용한다.

짐을 챙겨 숙소를 향하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고나시타라 산장 원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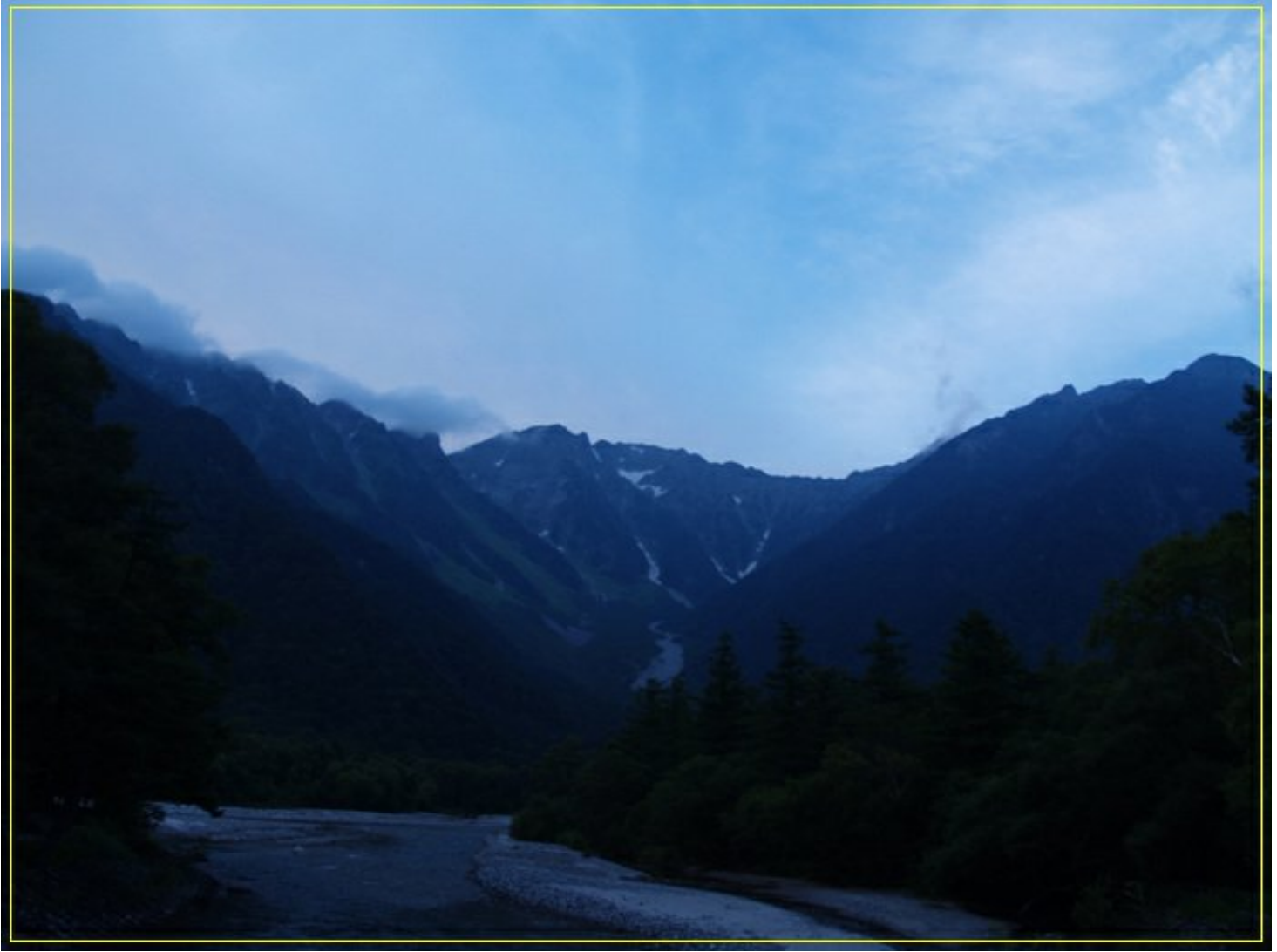
조그만한 경차 픽업을 끌고 내려와 짐을 날라다 준다.

(가미고지 주차장)



(숙소를 향한길)





가미고지 주차장에서 고나시타라 롯지로 향해
얼마쯤 걸어 들어가자 아주사와천이 흐르는 강을 건너는 갓바바시(하동교)가 나온다.

하동교에 올라서자
이미 해는 저물어 어둠에 잠기기 시작한 북알프스의 연봉이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다가와 숙소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잡는다.

(고나시타라 롯지의 숙소를 앞에 둔 하동교)



(하동교에서 단체사진)



하동교에서 단체사진으로 증명을 남긴후
고나싯타라 롯지에 들어 숙소를 배정받고 식사를 하는데
음식도 푸짐하고 맛도 그 정도면 수준급이다.

저녁 식사후
서로 처음인 팀원들 인사도 시킬겸
숙소 한곳에 모이게 한 후 쇠주와 양주가 함께 하니
자연 화기애애한 자리가 된다.

이번 북알프스 종주팀은

내가 개인적을 알게된 전국적인 산우들을 불러들인 관계로

지역이 울산,대전,공주,천안,서울에서 모였기에 팀이름은 자연스레

산찾사 지역구가 아닌 산찾사 전국구 팀이 됐다.

(산장의 저녁식사)







적당한 취기가 올라오자

내일을 위해 각자 숙소로 돌아가 일본 북알프스 종주의 첫 여정을 위한 숙면에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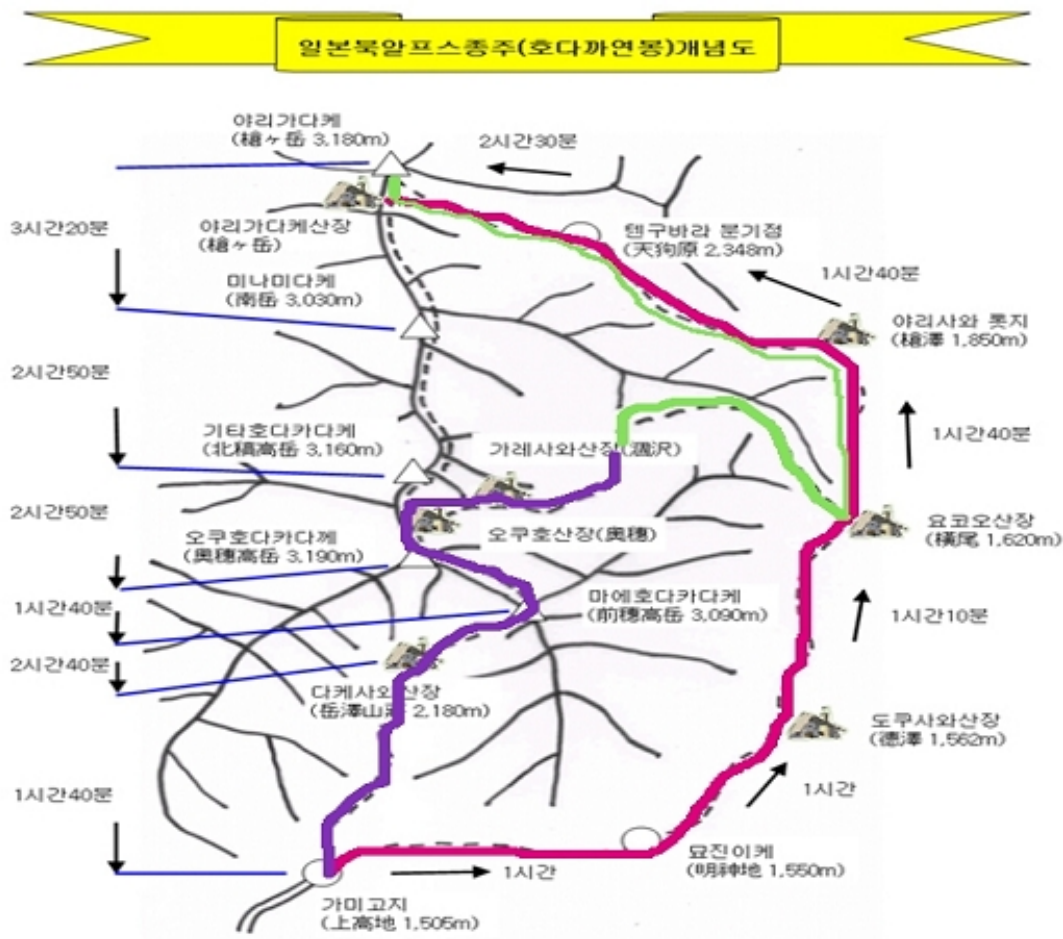
4인1실의 산장 롯지와 달리 난 산장에서 제공하는 독방에 들어 잠을 청한다.

(산행대장에게 제공된 독방)



2편으로...

- 산행일자 : 2008. 8. 02(토) ☒ 8. 06(수) - 4박5일
- 산행위치 : 일본 기후현(岐阜縣), 나가노현(長野縣)
- 산행장소 : 일본 북알프스 최고봉 오쿠호다카다케(奥穂高岳 3,190m)



8월 03일 일요일 (맑음)

-고나시타라 롯지 07:20

-명신(묘진관) 07:50 - 08:00

- 도쿠사와 산장 08:45 - 09:00
- 신천교(신무바라시) 09:12
- 요코산장 09:50 - 10:13
- 이찌노마다 두번째 지류 목재다리 11:00
- 수력발전소 11:17
- 야리사와 롯지 11:25 - 12:10 (중식)
- 바바 다이라 캠프장 12:25 - 12:30 (식수 보충)
- 텐구바라 분기점 13:50
- 야리산장 16:07 착 (숙소 배정) - 17:15
- 야리가다케(창봉) 17:30 - 17:50
- 야리산장 18:10 착 19:00 석식후 1박

한밤중 목이 말라

잠에 깨어 창밖을 보니 날은 관창아 보인다.

다시 설핏 잠들었나 싶은데 저절로 눈이 떠진다.

그냥 누워있자니 답답하여 시계를 보니 새벽 4시다.

이층 본관의 산행가이드 숙소를 걸어나와

동료들이 잠든 숙소를 돌아보니 모두들 깊은잠에 든것 같다.

(고나시타라 롯지의 숙소 전경)



(비교적 깨끗한 롯지의 화장실)



동료들이 잠자는 숙소를 내려와
고나싯타라 산장 본관의 앞마당 들어서자 원숭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
나에겐 야생원숭이가 처음이다.
신기해 디카를 들이대자 슬며시 일어나 숲속으로 사라진다.

고녀석
모델 좀 하면 안되나~?

못 생긴게 텅기기는...



고나시타라 산장을 벗어나 하동교쪽으로 내려서자
아주사가와 강의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건너편의 북알프스 연능이
허연눈을 이고 아침햇살에 그 웅장한 자태을 들어내 뽐내고 있어 그 아름다움에 잠깐 정신
을 놓는다.





아주사와강을 낀 야영장엔

일본인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중이다.

아직 이른 새벽인데 일본인 노 부부가 텐트를 걷어 베낭을 꾸린후

다정스레 산행을 나서는 모습에서 부부간 애뜻함이 진드감치 묻어나는 사랑이 느껴진다.

(산행에 나서는 일본인 노 부부)





전날 저녁 이슬이와 맥주를 쓰러트린 여파로
늦게 일어날줄 알았던 산우들이 하나 둘 일어난다.
이왕 일어난거 예약한 아침식사가 가능하면 좀 땡겨 먹으려
산장원장을 찾아가 물어보니 제 시간에 주문한 식사가 배달되는 거라 안된단다.

(고나시타라 산장 원장과 함께)



모두들 이른시각 일어남에
산행에 필요한 배낭만 꾸리고 나머지 짐들은
산장에 미리 맡긴후 조반을 들자마자 도시락을 받아들고
북알프스 종주의 대장정에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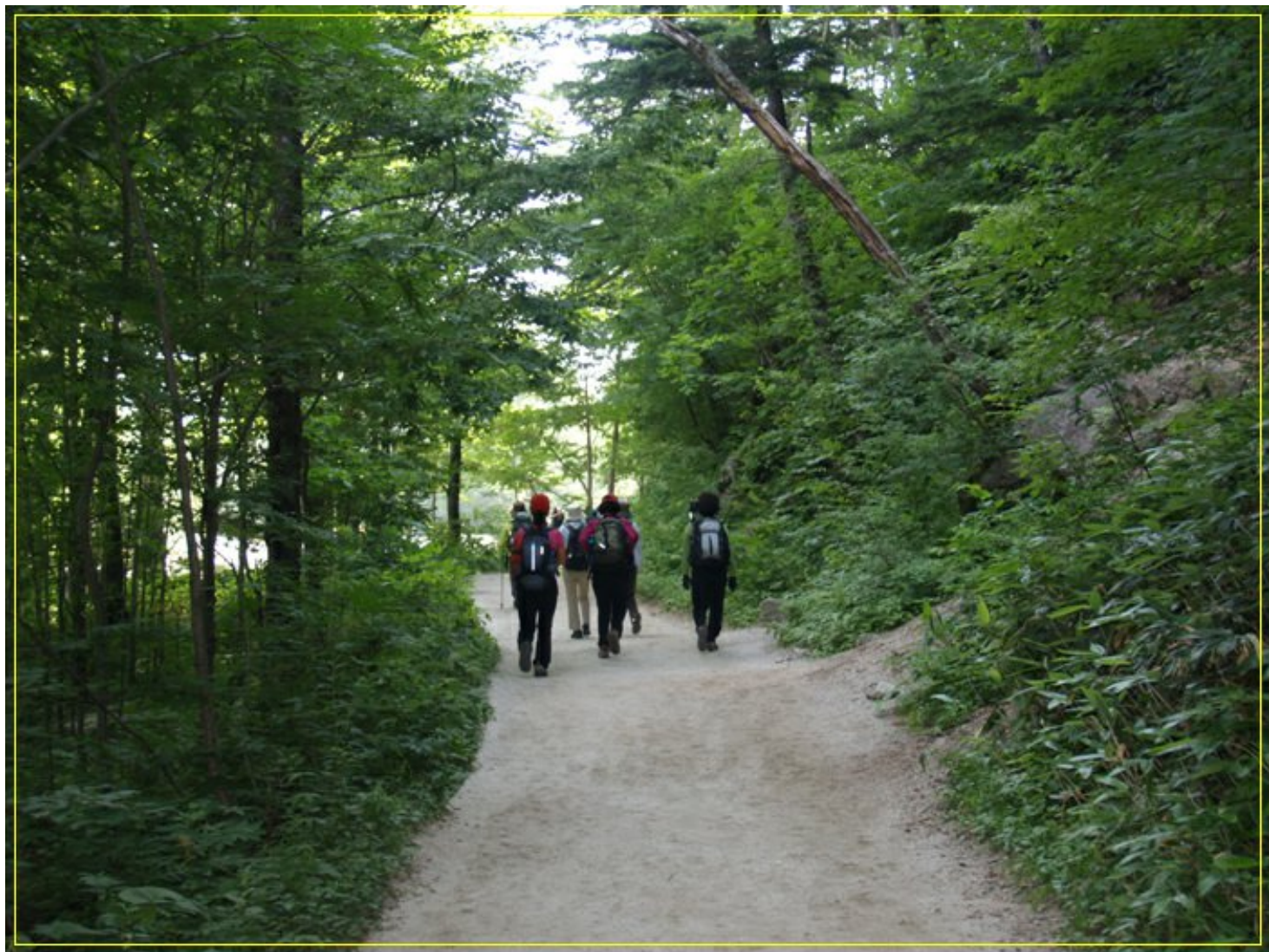
(산장을 떠나며 무사산행을 기원하는 화이팅~!!)



아주사와강을 끼고 이어지는 등로는
반짝 반짝 윤이 나는 조릿대숲이 빼곡하고
키다리 전나무가 쭉~욱쭉 뻗어있는 원시림의 오솔길이
길게 이어지는 최고의 산책로가 반겨줌에 걷는 내내 힘든줄을 모른다.

가급적
힘들게 이국의 명산에 든 만큼
속도산행을 지양하고 함께 걷는 향아리 산행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나의 부탁은 쓸데없는 걱정였다.
모두들 느긋한 걸음으로
멋진 풍광에 감탄하고 구경하느라 그 속도가 참으로 더디다.







산장을 떠난지 30여분만에 묘진관에 도착 휴식에 든다.
이정표엔 명신지까지 0.7km 라 적혀 있다.
그곳으로 가고 싶은분 얼른 갔다 올 사람 있냐 물어보니
거기 연못밖에 더 있겠냐며 다들 그냥 진행한단다.





(뭘 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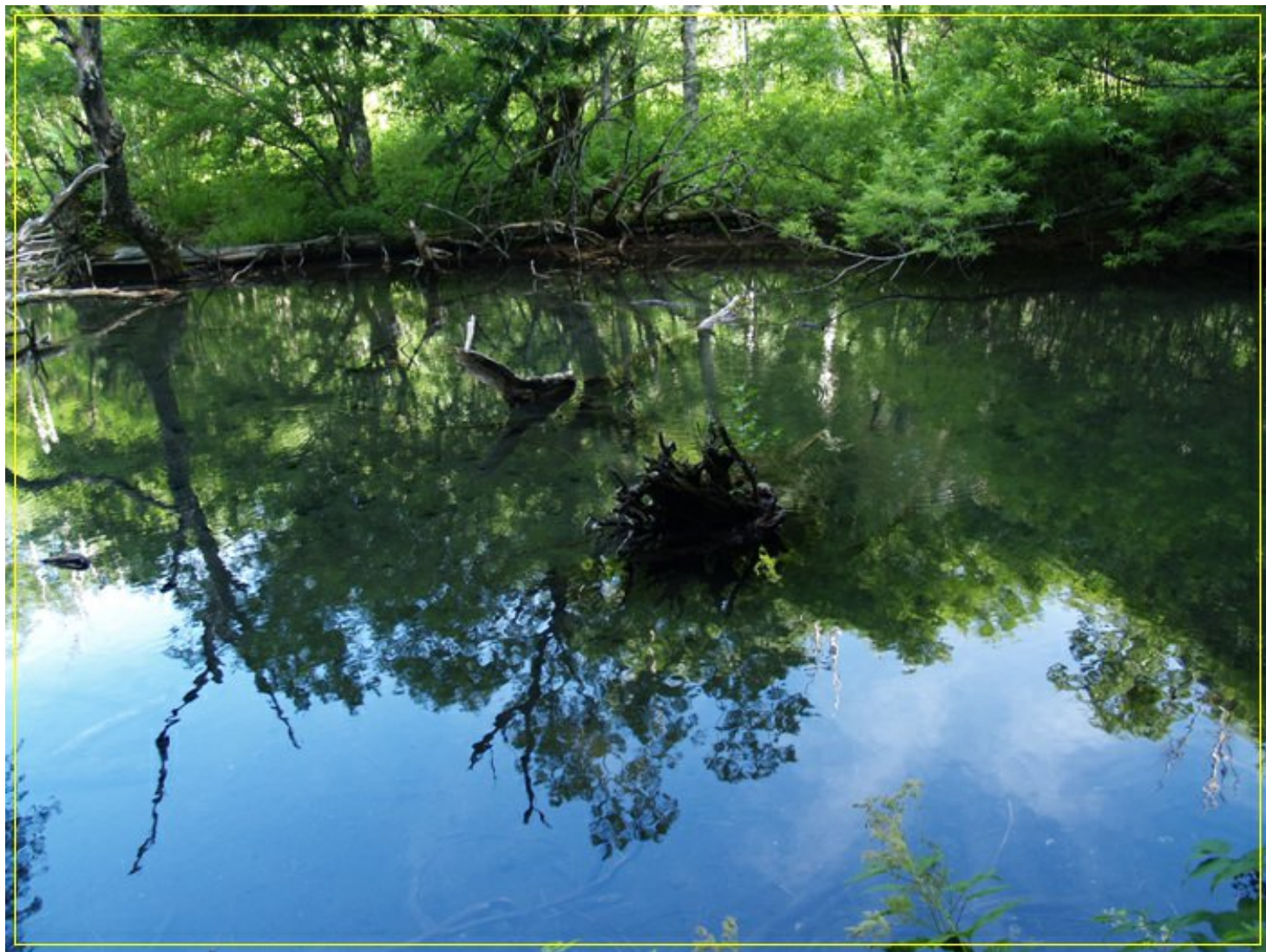
다음 목적지 도쿠사와 산장까지 가는길엔

하늘빛과 나무와 풀들을 고스란히 담아낸 습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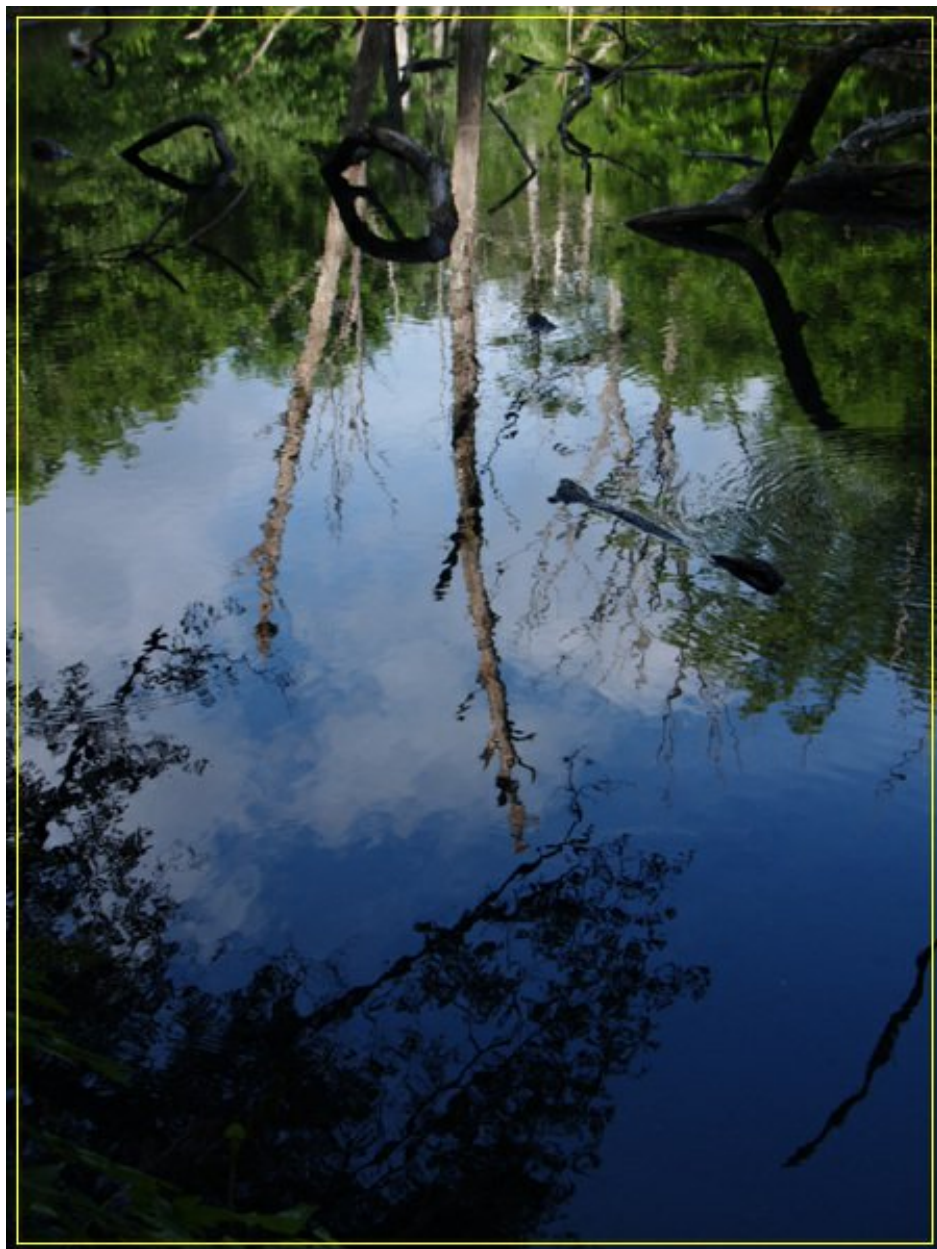
그 물빛이 얼마나 깨끗하고 고운지 디카에 담고 쳐다보는 사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 나의 산우들은 멀찌감치 사라지고 나홀로임을 뒤늦게 깨닫는다.

(습지의 아름다움)







바쁘게 켜 걸음을 옮기자

이내 앞선 나의 산우들 뒷모습을 잡았다.

일본 통역을 위해 함께 산행에 나선 지열군의 걸음과 거의 같은 수준인

일본인 여성에게 말을 붙여 어느 코스로 가냐 물어보니 도코사와 산장에서
가라사와 능선을 탈거라 말한다.

그 여성과 말문이 트인 지열님은

다정한 길벗이 되어 도코사와 산장까지 길동무가 되었다.

(지열님과 일본여성)



(강건너 우뚝 솟은 묘우진 다케의 모습)





맑은물이 흐르는 강을 낀

그림같은 산책로를 따라 걷는 걸음이 어느새 도쿠사와 산장에 이른다.

산장앞 캠프장엔 알록달록 텐트가 여러동 설치돼 있는데 그 켜장들은 대게가 다 일본의 어린이가 함께한 가족단위다.

해가 중천인데

그제사 일어나 아침을 지으며 산행준비중인

그네들의 여유로움과 평화로움이 산행의 즐거움으로 들뜬
내 마음까지 고요히 진정시켜 잠 재우는 마력을 발휘한다.



(텐트를 걷어 산행을 준비중인 노인장)



(도쿠사와 산장 전경)



도쿠사와 산장을 지난 얼마후

갈림길이 되는 강을 건너는 목책다리가 나온다.

쇼와 초기 명 등산가인 신무라 쇼이치의 이름이 붙여진 신무라바시교다.

신무라바시교에서 정면으로 마에호다카 다케와 기타오네의 능선이 웅장하게 다가선다.

이 다리를 건너면 병풍암 안부를 지나

가라자와 산장을 거쳐 오쿠호다카케로 오를 수 있다.

지열군과 함께 온 그 일본여성은 이 등로를 택해 오르며 지열님께

야리능선의 위험스러움을 몇번이고 강조하며 무사산행을 빌어 줬다는데

은근히 겁을 준 느낌이 더 강하단 생각이 든다.

그렇게 겁을 주면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나 ?

신무라바시교에 잠시 들렀다 가려

발길을 그리 옮기자 산우들이 목소리가 소란스럽다.

웬 영문인가 얼른 다가가니 다리 밑의 원숭이 가족을 보고 신기해서 내지른 소리다.

ㅋㅋㅋㅋ

난 이미 이른 아침 산장마당에서 봤는데...

(신무라바시교에서)



(신무바라시교의 이정표)



신무바라시교(신촌교)를 뒤로한 채 맑고 깨끗하여 투명한
아즈사가와의 강줄기를 따라 오르는 등로는 한마디로 환상의 산책로다.
진행방향 왼쪽의 암봉 묘진다케 오른쪽으로 병풍암의 모습이 선을 보이자
이내 요오코 대교와 함께 산장이 나타난다.
먼저 도착한 산우들이 반겨주는 요코산장에서
간식과 함께 식수를 보충하며 그간 산행의 피로를 달래본다.

가미고지에서 요오코 산장까지는 고도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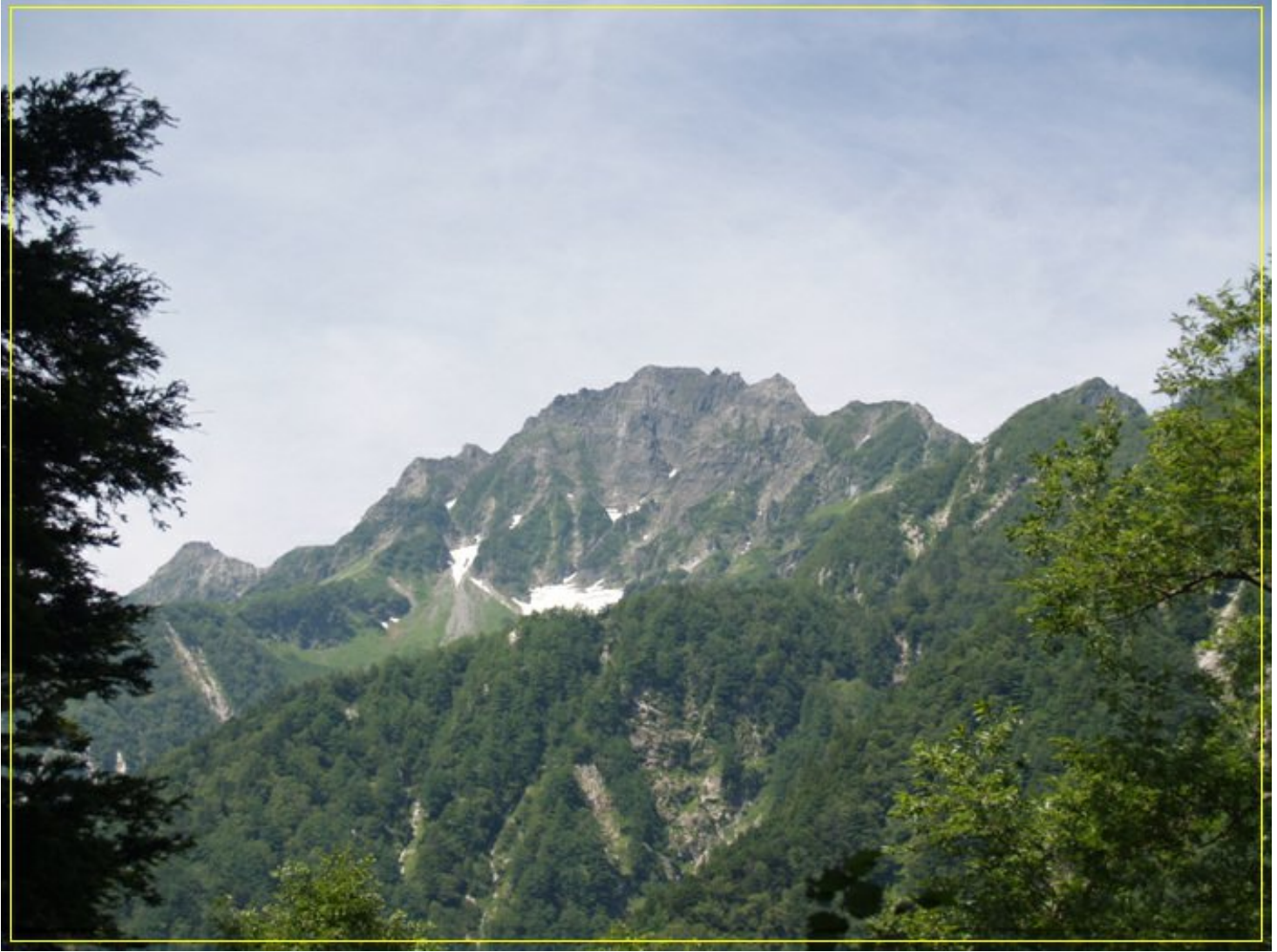
거의 느낄수 없는 환상의 오솔길로 이런 훌륭한 산책로가 한국에 있다면
매일 조깅코스로 손색이 없을거란 생각이 불현듯 든다.

요오코 산장은 북알프스 산행의 분기점이다.

아즈사가와를 건너는 요오코 대교를 넘어 계곡을 따라
혼타니바시를 건너 가라사와 산장을 거쳐 기타호다케와 오쿠호다케를
연결하는 등로는 이번 북알프스 등정을 계획하게 만든 황태자님이 밟은 코스로
예전 그의 산행기를 읽어가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가슴 뛰던 기억이 새롭다.

(요오코 산장 가는길...)









(산행 분기점 요오코 대교)



(요오코 산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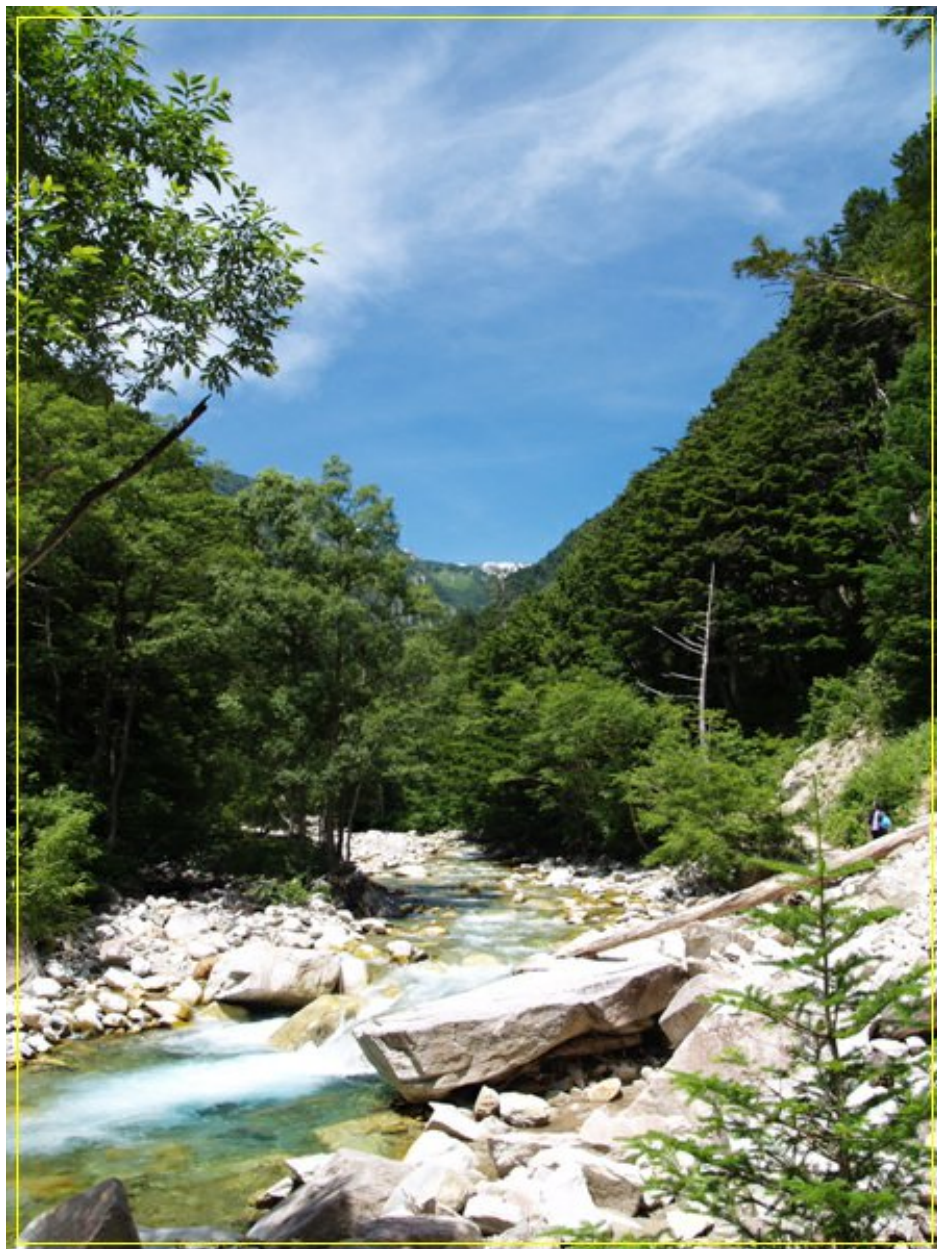




요오코 산장에서 충분한 휴식으로
힘을 비축한 우린 야리사와 롯지로 향한다.
등로는 지금껏 완만함과는 달리 서서히 고도를 높이기 시작한다.



(야리사와 상류의 맑은 계곡물)



야리사와 계곡 상류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던 등로가 첫 지류인 이찌노마다를 지난 얼마후 두번째 지류와 만나는 니노마다를 건너는 원목다리를 넘어 상류의 완만한 오름길을 오르자 자그만한 수력발전소가 나온다.

(니노마다 원목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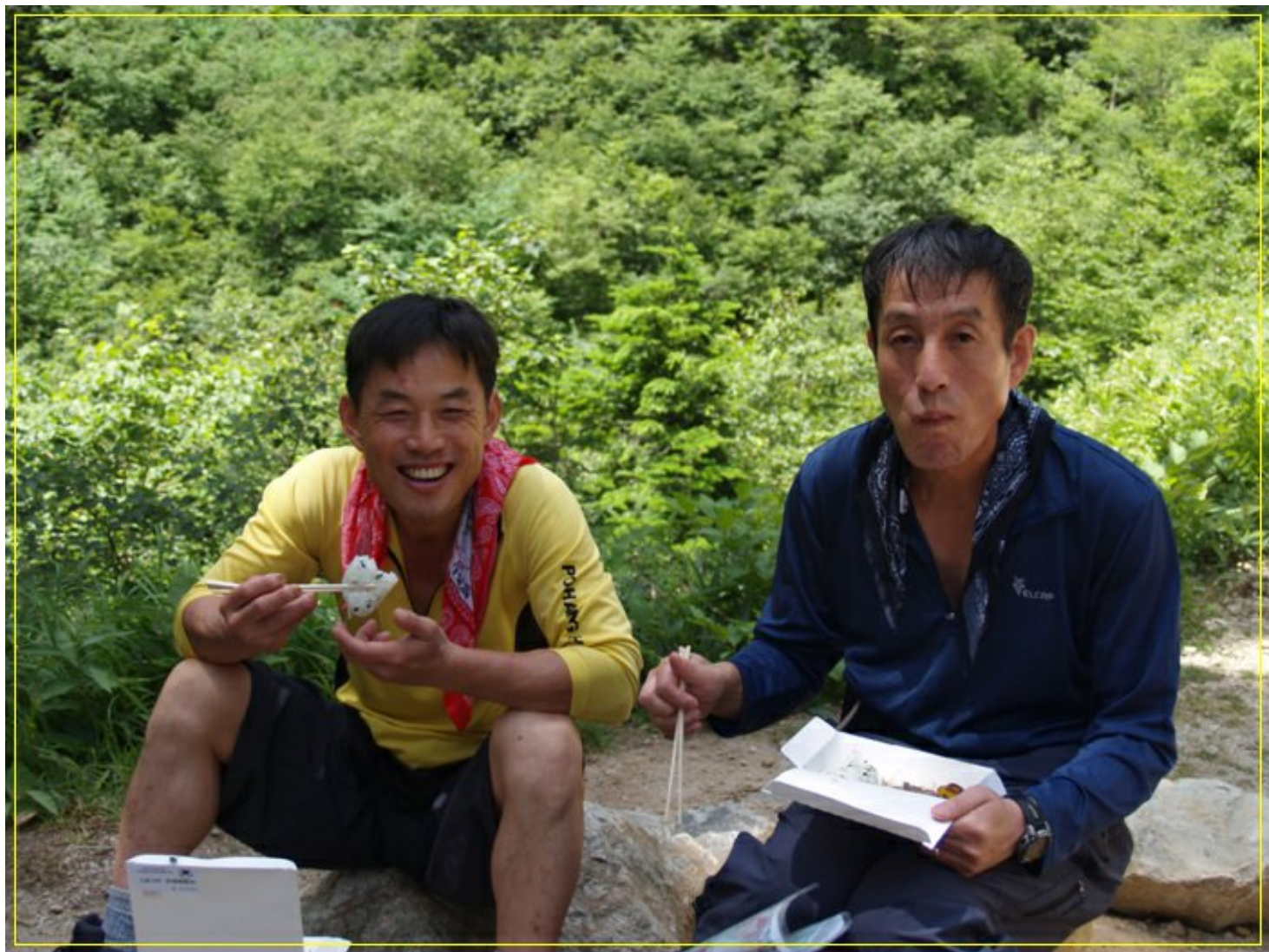
(수력 발전소)



(야리사와 롯지의 전경)



고도 1850m 의 야리사와 산장에 도착하자 배가 고프다.
고나시타라 산장에서 싸준 도시락을 펴보니 주먹밥이다.
부지런한 바커스님과 공구리님이 벌써 라면을 끓였다.
주먹밥과 함께 라면국물의 중식은 꿀맛처럼 달고 맛나다.





야리사와 산장에서 먹은 만큼

몸물을 빼려 화장실에 들리자 100엔을 내고

빠라는 안내문과 함께 페티병의 요금통이 눈에 띈다.

100엔이면 한국돈 천원이다.

그냥 오자니 참기 힘들고 볼일 보고 그냥 오자니 양심에 꺼린다.

그래도 어찌라

볼일은 봐야 하겠기에 초록앞새와 함께 200엔을 집어 넣고 시원하게 갈겨 버렸다.

야리사와 산장을 떠나며

일본 주재원으로 삼년을 지낸 고교 3년 선배 공구리 형님께
원놈의 몸물 한 대롱값을 천냥이나 받는대유 했더니

"응~ 그거~ 큰거 볼때만 내는 거~"

우잉~!!!!

진즉 갈켜주징~!

무식하면 손 발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일본에 와 보니 금전적인 손해까지 입는다....

(화장실 유료 안내문과 요금통)



야리사와 롯지를 떠나면서 등로는
 서서히 좁아지며 가파른 오름이 시작된다.
 일본의 산들은 수해를 입어 흘러내린 상흔들을 그대로 둔다.
 자연의 재해는 자연이 치유하게 그대로 두는것이 분명한것 같다.
 흘러내린 토사와 돌더미속에 죽어 넘어진 나무들 사이로 새 생명이 움트는게 보인다.

(산사태로 흘러내린 상흔들...)



서서히 고도른 높이던 등로가
숲을 벗어나자 제법 너른터의 야영장이 나타난다.
이정표엔 한글로 현재 위치가 바바다이라 캠프장이라 일러준다.
캠프장엔 시원한 물줄기가 연신 솟아 흐르고 있다.

캠프장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지금껏 정다운 오솔길이 아닌 흰눈을 이고 있는
이국적인 풍광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눈이 황홀하다.

(바바다이라 캠프장 전경)







캠프장을 뒤로 야리산장을 향한 본격적인 오름길이 시작된다.
계곡은 점점 깊어지고 흰눈을 담고 있는 능선들은 양편으로 도열한 채
힘든 오름길을 오르는 우리 부부를 내려다 보고 있다.

(텐구바라로 향한 오름길 풍광)















오름이 점점 더 힘겨워 진다.

온갖 식물과 나무 야생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끝없이 우리부부에게 이어지던 원타이정님의 강의가 어느 순간 끝 나더니

이내 왕성하던 체력도 바닥권으로 접어 들었나? 점점 더 우리부부와 멀어진다.

국내의 오지산행만 뺄시게 다니는 골수 산꾼도 고산앞엔 별 수 없나 보다.

(힘겨워 하는 원타이정님)



2348m 의 텐구바라 분기점을 지난다.

진행방향 왼쪽 위 빙하공원 텐구바라에서 낙하하는 작은 폭포가 장관을 이룬다.

힘든 오름길은 지그재그로 이어지며 그 힘든길을 감쇄 시켜주나
고소의 영향인지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다.

첫번째 설계구간을 밟아 통과후

두번째 설계구간을 오를땐 등로가 제법 미끄러워 조심스럽다.

무사히 눈길을 밟고 오르자 창봉이 아주 가깝게 느껴진다.

어림잡아 20여분이면 오를수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드나 그건 나의 착각....

아주 가까워 보이는 야리다케 산장을 향한 오름을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오르는데도
참으로 이상한건 여전히 그 모습은 그자리다.

(텐구바라 분기점 이정표)







(에델바이스 일명 솜다리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중국에만 산에 등짐을 지고 오르는
인부가 있는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짐꾼이 있다.
지게에 무겁게 짐을 지고 오르는 그 사람과 함께 샘터에 이르러
잠시 쉬는 사이 아내가 초코파이를 건네자 사람좋은 미소로 연신 고마움을 표한다.

(야리산장으로 향하는 짐꾼)









(바싹 땅바닥을 기며 살아가는 침엽수)



(두번째 설계구간을 통과하며)



야리산장으로 향한 오름길의 너덜길에 조그만한 동굴이 눈에 띈다.

야라가다케를 처음 등정한 반류(1780~1840)라는 승려가 다섯번 오르던 중 네번째인 1843년에 53일간 이 동굴에서 참선을 했다는 곳인데 입구엔 설명판과 함께 조그만한 상이 모셔져 있다.

(반류 승려 동굴)





(운무에 가린 야리정상)







창봉이 가까워 온다.

어느덧 진행방향 우측의 샷쇼붓테와 캠프장을 발아래에 둔 위치까지 올랐다.

이젠 몇 걸음만 옮기면 오늘의 안식처 야리산장에 도착할 수 있단 생각에 새로운 힘이 솟는다.

(샷쇼붓테의 전경)















드디어 올랐다.

오늘의 안식처 야리산장이다.

야리산장은 일본 북알프스 산장중

두번째 높은곳으로 6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산장 접수는 맨 후미에서 오르고 있는 통역담당 거브기님 조카

지열님이 와야 할 수 있기에 산장의 평상에 앉아 힘겹게 오르고 있는 등산객을
내려보며 여유를 부려 보는데 산장을 이제 막 올라서는 일가족이 눈에 띈다.

할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의

3세대가 나란히 야리산장에 올라섰는데
세상에~!!!

3대째 할아버지 손자의 나이를 물어보니 5살이다.

아빠의 허리에 카리비너로 연결된 로프에 달려 올라서는 아기의 표정이 아주 밝다.
넘 이쁘고 기특하여 덤씩 안고 기념사진 한장을 남겼다.

(3대가 함께 오른 야리산장)









산장의 주위를 이리저리 배회하며
시간을 죽이는 사이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바커스님과 공구리님이 벌써 야리가다케를 다녀와 산장에 들어선다.
유창한 일어능력을 가진 공구리님을 불러 접수처에 가 예약을 확인을 하는데
때맞춰 거브리님이 조카를 데리고 산장에 들어선다.

이번 팀을 꾸리며 비용절약을 위해
일어능력이 되는 사람을 구하다 보니 거브리님이
조카를 추천하여 개인 경비의 절반만 받고 통역업무를 맡기로 했으나

산행능력을 내심 걱정했는데 오늘보니 순발력은 떨어지나 한국민 특유의
은근과 끈기가 있어 별 걱정은 들지 않아 다행스럽다.

야리산장의 접수는 좀 까탈스럽다.

팀원 전원의 신상을 조목조목 적어 내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야리종주 증명서 발급증을 주기 위해서다.

접수완료 뒤엔 산행대장은 따로 1인실 숙소를 배정해 주고

음료나 맥주를 바꿔 먹을 수 있는 티켓을 따로 내어 준다.

티켓은 통역담당 지열군에게 주고

1인실 숙소는 남녀 합방인 다인실 숙소 사용이 불편한

우리 여성팀에게 그방을 쓰라 내준 후 숙소에 짐을 풀곤 야리다케 정상을 향했다.

정상가는 길은 직벽에 가까울 정도의 가파른 암릉이다.

야리가다케는 3180m 로 일본 제5위의 고봉으로 창끝과 같다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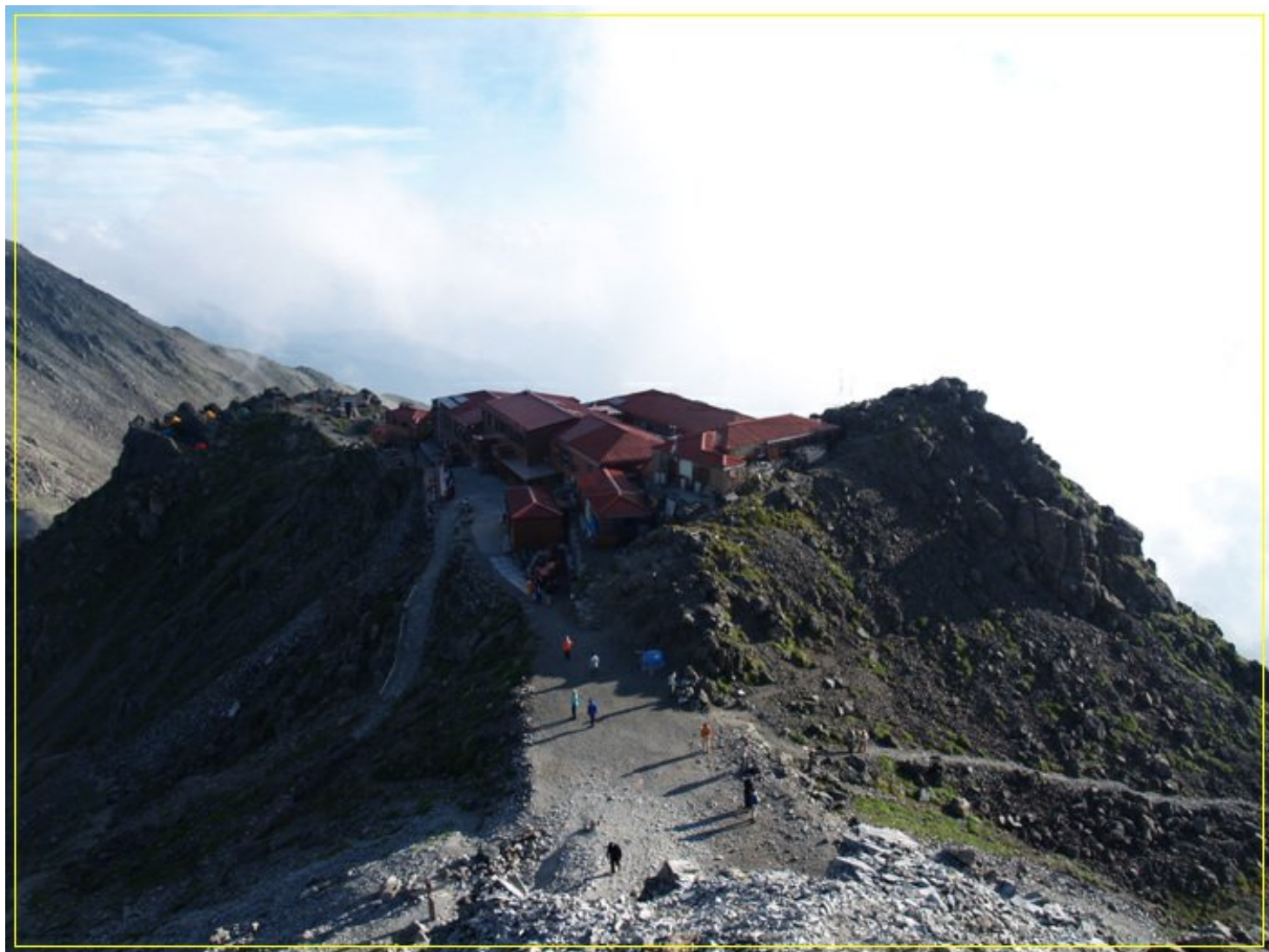
창봉으로 불리며 일본의 마터호른이란 애칭도 함께 갖고 있다.

(야리가타케의 전경)



(야리가다케 정상을 향한 오름길 풍경들..)









야리가다케 정상에 서자
운무가 넘실대는 산의 연능이 넘 아름답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
말문이 막힌 선경앞에 그간의 힘듦과 고달픔을 잊었다.
이미 때를 넘긴 주린배도 선경앞엔 신경이 마비된 듯 아무 느낌이 없다.

空....

마음도 몸도 순간 비워진듯한 느낌이다.

(야리가다케 정상에서 내려본 풍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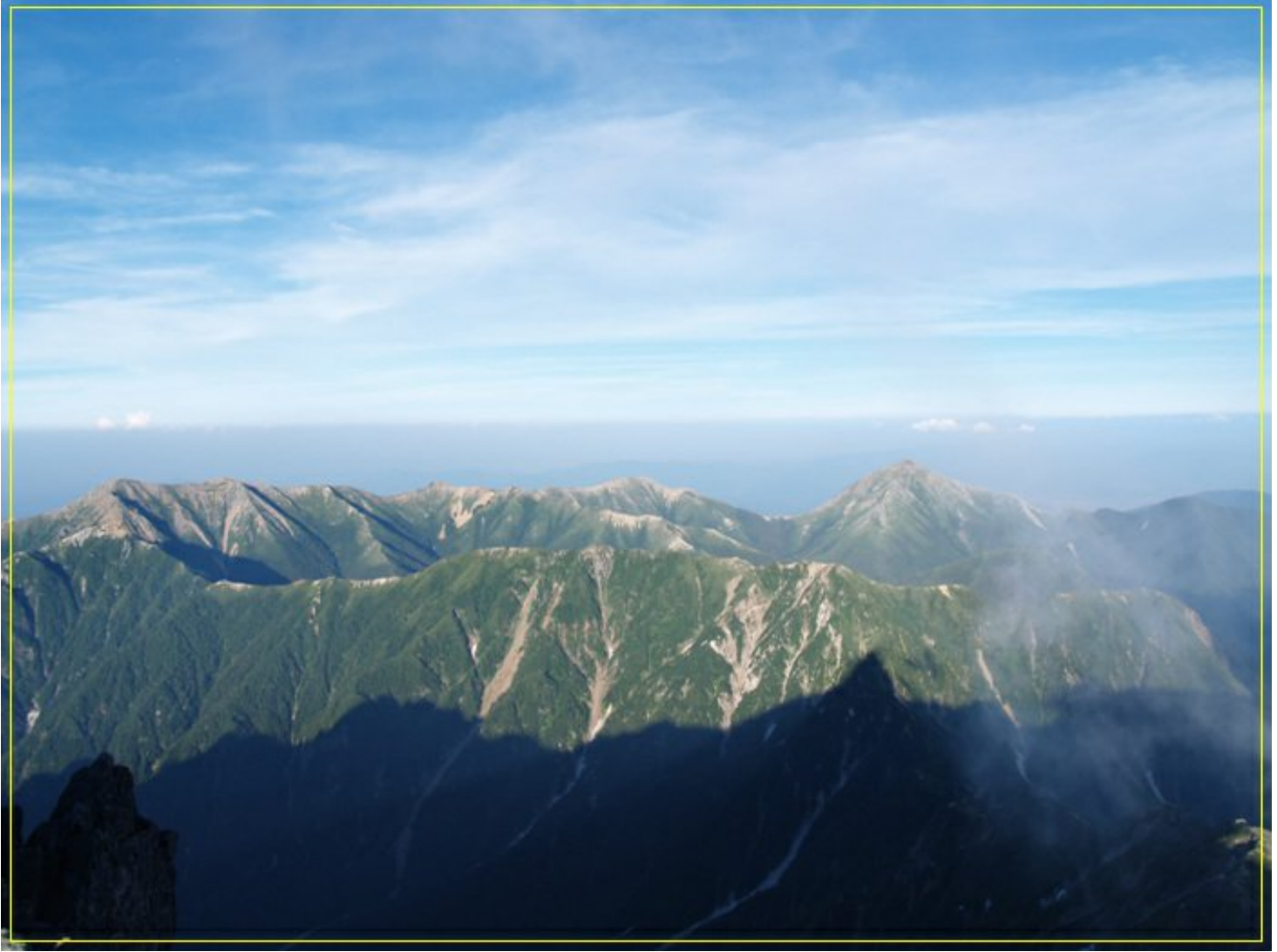


(정상에서 아내 초록앞새랑)





(정상에서 바라본 왼쪽의 오텐쇼우다케(2921.9M)와 조넨다케(2857M)의 전경)







(하산중 내려 본 야리산장)



(일몰을 기다리는 산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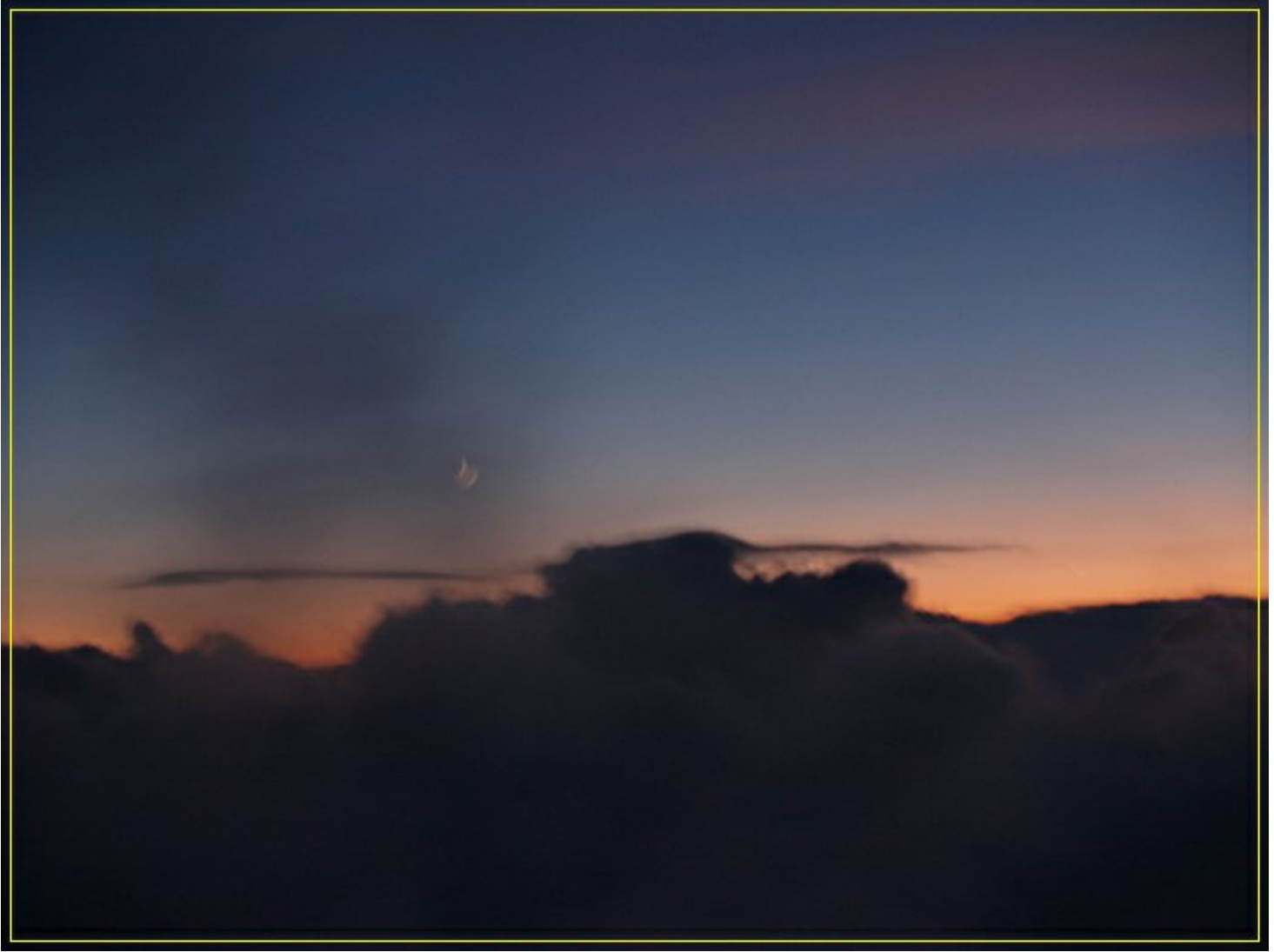
끈적한 미련을 못 버리고
버티다 버티다 내려선 정상을 바라보니
다시금 운무에 휩싸여 그 모습이 더욱 신비스럽다.
물이 아주 귀한 야리산장에서 저녁식사후 수건에 물을 적셔
땀만 씻은후 간단하게 피로를 달래는 술잔이 몇순배 돌아간후
어느새 깊은잠에 빠져든다.

(야리산장의 석식)





(산장의 저녁노을)



(기압차이로 톱톱 불어버린 믹스커피)



(산장에서 산우들...)



3편으로...

- ▣ 산행일자 : 2008. 8. 02(토) ☒ 8. 06(수) - 4박5일
- ▣ 산행위치 : 일본 기후현(岐阜縣), 나가노현(長野縣)
- ▣ 산행장소 : 일본 북알프스 최고봉 오쿠호다카다케(奥穂高岳 3,190m)

8월 04일 월요일 (오전 비 오후 갬)

- 야리산장 06:36
- 오바미다케(3101m)
- 나카다케 (중악. 3084m) 07:30
- 미나미다케 가기전 갈림길 07:55
- 미나미다케(남악.3032.7m) 08:30
- 미나미다케 산장에서 라면과 커피로 추위를 달랠.
- 오기렛토
- 기타호가다케 산장 13:40
- 기타호다카다케 (3160m) 14:00 - 14:15
- 가라사와 다케 (3110m) 16:45
- 호다카 산장 17:10착1박

(산행 개념도)



첫날 1인실 숙소와는 달리

아리산장의 1인실 숙소를 여성들에게 양보한 혜택이 다양하다.

우선 여기저기 다양한 주류와 안주등을 맛볼수 있고

다양한 인물들의 산행 무용담이 흘러 넘치니 사람사는 냄새가 진동한다.

물론 꼬리꼬리한 발냄새도 함께....

못하는 술 몇잔 얻어먹고

술꾼들이 켈 싫어하는 안주만 축내는 나를 그래도

산행대장 이랍시고 대우를 해 주는건지 아님 모두들 인간성이

비단결같이 고운건지(하긴 산꾼들 맘은 다 비단결이다) 바커스님과 공구리님은

개꿈이라며(이분들은 전국 마라톤 58 개트라 회원) 연신 안주로 가져온 육포와 오징어를 건넨다.

적당히 마신술은

초반 숙면에 도움이 되나 새벽녘 갈증이 문제다.

새벽 1시쯤 갈증에 잠이 깬 뒤론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다.

화장실을 두번째 다녀 온 뒤 여기저기 들려오는 드르렁 콜콜의

산중 오케스트라 화음 + 야리산장을 때리는 살벌한 바람소리가 어느정도

적응이 됐는지 새벽녘 살짝 잠들었는데 주위의 소란스럼에 잠이 깬다.

부지런한 바커스님은 벌써 기침 후 바깥은 다녀온 듯

(하간 멍은 멍이다. 부지런 + 바지런함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일기불순한 날씨 소식을 전한다.

"안개가 잔뜩 혀~"

"한치 앞도 안 보이는구먼~"

새벽일출은 틀렸다.

외국에 올때 마다 산찾사의 100% 일출 보장 신화가 오늘로 깨진다.

아침식사후

모두들 느긋하게 산행준비를 하라 이른다.

좀 늦은 시간 출발하면 안개가 걷힐까란 바람으로

이미 반 정도 빠져나간 인원으로 다소 여유가 생긴 화장실을 들린다.

이곳 야리산장은

물도 귀하지만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철저하게 본인이 회수하여 처리하게 한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 보는 순간 쓰레기통안의 뭔가가 눈에 거슬린다.

쓰레기 통엔 밑 닦은 화장지외엔 다른게 있습 안된다.

하이얀 화장지 위에 유난히 반짝이는 비닐봉지...

지미럴~!!!

세계에서 제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자랑스런 우리의 한글이 똥간에서 빛을 낸다.

동서식품....아이스 커피....

이왕 버릴거면 그냥

똥통에 빠트려 버리지 여기다 버릴게 뭐여~?

죄다 좇어 모아 화장지 돌돌말아 군시절 학실히 배우고 익힌

은폐와 엄폐를 시행했다.

왜~?

쫄빠리한티 쫄 팔리잖아~!

마냥 기다릴 순 없다. 다행히 단순한 안개비다.

전날 산장 휴게실 TV 에 나온 일기예보엔 오전 흐림 오후 맑음 옅음을
기억하고 있는 난 모든 대원을 모아 놓고 산행의 주의점을 주지 시키고 출발을 시킨다.

오늘 산행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개인의 산행능력을 떠나 무조건 단체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행동 일체 불허가 나의 요구사항이다.

선두 산행대장은

암벽등반의 경험이 풍부한 원타이정님께 일임하고
나는 맨 후미에서 모든 인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한다.





야리다케 산장 남쪽 방향으로 발을 옮긴다.

산행 시작 전 부터 짙은 개스에 묻힌 등로는 앞선 동료들 삼켜버린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되는 등로를 올바르게 찾아 진행할 수 있는건 순전히 개스에 잠긴 망망대해의 반짝이는 등대처럼 바위에 표시된 진행 화살표와 O, X 표시 덕분이다.

우리는 산행시작 얼마후

일본에서 가장 높은 고개인 3020M 히다 노리코시에 닿는다.

히다 노리코시에서 오오바미다케의 오르막은 비교적 완만하다.

천천히 올라선 일본에서 10위의 고봉인 오오바미다케(3101M)를 짙은 개스속에 그냥 통과한다.

오늘 우리는

오오바미다케를 시작으로 북알프스를 대표하는

3000M 가 넘는 봉오리를 8개나 넘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다.

오바미다케와 나카다케 사이 안부에 내려서서

히다쪽 능선을 따라 2단 사다리를 올라서면 나카다케 정상이다.

3084M 나카다케를 지나며 안개비가 내리더니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며 급격히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한다.

나카다케를 지나

미나미다케로 향하던 중 앞선 일행의 환호가 터진다.

나만 뭘일인가 궁금한데 내 곁의 아내가 안경을 벗어 보란다.

짙은 안개에 서린 김으로 바로앞의 사물을 제대로 확인 못한 내가

안경을 벗고 보니 등로 사면의 만년설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한여름의 눈길 산행이 신기하고 신비롭다.

점점 더 굵어지는 빗방울에 벌써 온몸이 젖어든다.

이내 걷힐거란 나의 생각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 현실은 냉정하다.

할수 없이 베낭 커버를 씌우고 오버트러우저 하나론 감당이 안되는 몸뚱아릴 판초우의를 꺼내 몸을 감싼다.

짙은 개스속에 텐구바라로 향하는

갈림길을 지나 미나미다케 정상에 올라선다.

정상은 협소하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그대로 맞으며 그래도 증명사진은 남겼다.

(미나미다케 정상에서)



(미나미다케 정상 증명사진)



미나미다케를 얼마 지나지 않아
뿌연 개스속에 조그만 건물이 나타난다.
미나미타케 고야 산장이다.

안개가 걷힐거란 기대속에 진행한 산행이라
처음부터 옷차림이 허술하여 모두들 폭 젖어 버렸다.
산장에 들어 추위가 어느정도 가시자 모두들 살것 같은 표정이다.
불을 지펴 뜨끈한 라면과 커피를 끓여 나눠 마신후 이것저것 간식으로
영양보충을 하며 젖은옷을 갈아입고 우의를 챙겨입어 복장을 재 정비후 다시 산행길에 나섰

다.

(미나미다케 산장에서 커피로 몸을 녹이는 투리님)



미나미다케에서 기타호다카까지는 V 협곡이 자리한 구간으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위험구간이다. 산장을 출발한지 얼마안돼 철제사다리와 쇠사슬이 설치된 직벽에 가까운 바위벽을 내린후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한 암릉구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완전 설악의 용아를 연상케 하는 구간이다.













폭 1~2미터의 급사면은 내려서자
카르형태로 넓어진 최저 안부에 닿는다.
이곳이 해발 2748M의 오기렛토다.
여기부터가 최대의 위험지대로 직벽의 급경사길을 300여미터 올라야 한다.



(기렛토 구간을 통과하며...)





























극악스럽게 쏟아지던 빗줄기가

가늘어 지며 기렛토 구간을 통과 할땐 다행히 비는 그친다.

짙은 안개 덕분인지 고도감을 완화시켜 준 덕분으로 회원중 약간의 고소공포증을 가진
투리님이 의외로 씩씩하게 진행하고 산행경험이 별로 없는 통역담당 지열군도 의연히 잘 버
터준다.

다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김 영환님이 걱정스럽다.

그냥 봐도 한발 한발이 천근만근인데 아직도 갈길은 멀다.
더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선두와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짐에
전체적인 산행속도 조절에 신경을 써가며 기렛토 구간을 무사히 통과한다.



기렛토 구간을 통과하면서 나의 디에세라 디카가 맛이 갔다.
언제 다시오냐 있을때 박아보자며 비 내리는 우중에 계속 촬영을 한 관계로
디카 최대의 적 습기에 너무 노출된 탓인 듯 하다.
할수없이 베낭안에 갈무리하여 보관후 보조로 가져온 똑딱이 디카를 꺼낸다.

오늘 점심은 기타호다카 산장에서
먹기로 계획했는데 산장을 불과 50여 미터
남짓 남기고 모든 대원들이 배고파 도저히 못 가겠다 만세를 부른다.
비교적 넓은 장소를 골라 그대로 도시락을 까먹고 가기로 했다.

배를 불리고 나니
모두들 힘이 나는지 금방 산장에 올랐다.
특히 그간 힘들게 산행을 이어온 김영환님이 원기를 회복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김영환님은 아주 지독한 고소공포증을 가진 분였는데
기렛토구간을 만나 고소의 공포로 다리가 풀려 그랬단다.

뿌연 개스가 고도감을 줄여줘
김영환님에겐 그나마 아주 다행한 날씨다.

그러나
돌아보면 야리가다케의 창끝처럼
쏘아오른 봉에서 부터 이어지는 환상의 연능을 기대한 난
아주 실망스런 날씨였는데 그런 날씨가 대원들의 안전산행에 일조했다니
난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산장에서 잠시 휴식후
산장 바로 뒤 50여 미터를 오르자 기타호다카 정상이다.
기타호다카 다케는 눈물없이 오를 수 없다는 뜻으로
히다나미(히다산맥의 눈물)라 불린단다.

(기타호다케 산장)



(기타호다카 정상)



(기타호다카 정상에서 단체사진...석 진호님 촬영)

















기타호 다케에서 호다카 산장가는길도

V 기렛토 구간 못지 않는 위험 구간의 연속이다.

좁은 능선의 릿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양옆은 낭떠러지에 경사는 가파르다.

우리팀의 바로 앞에 선 팀들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던 중 어느순간 낙석이란 외침과 함께

돌무더기가 굴러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짙은 안개속에 발생한 상황이라

어떤일이 생긴지는 알수 없으나 불상사가 없기를 바랄뿐인데
잠시후 안개가 걷힌 뒤 살펴보니 다행이 별 이상이 없는것 같다.

잠시의 소란은 모든이를 긴장시킨다.

특히 산행 리더의 신경이 날카로와진 탓인지

우리앞의 리더가 소리소리 지르며 팀원들을 주의시킨다.

안전을 위해 우리팀의 진행을 중지시킨후

잠시 쉬며 앞의 일행이 모두 사라진 뒤 뒤를 따라 오르는데

한발 한발 떼어놓을때 마다 잔돌이라도 굴러 내리지 않게 주의를 준다.

(낙석이 발생했던 위험스런 암릉구간)









가라사와다케로 향하던 중
까탈스런 암릉을 만나며 우리 일행들의 진행속도가 많이 지체된다.
뒤 따르던 다른 단체팀의 불만이 쏟아진다.

가지는 않고 사진만 왜 저리
찍어대며 늘정거려 피해를 주냐는 등,
도대체 왜 저리 꾸무럭 거리며 못 가냐는 등....
뒤에서 듣기가 넘 거북스럽다.

그 팀의 산행리더에게

먼저 가도록 해주겠다 말하자 괜찮으니 그냥 진행 하란다.

좀더 산행을 이어가다

적당한 장소를 골라 우리팀의 진행을 정지 시키고

휴식에 들게한 후 뒷팀을 추월하도록 했다.

하루아침에 그 버릇을 고칠수야 없겠지만

한국민의 빨리 빨리 산행 스타일이 오늘따라 더욱 밍살 스럽다.

그렇게 잘난척 하던 팀들이

직벽구간을 앞에 두고 우리팀에게 꼬리를 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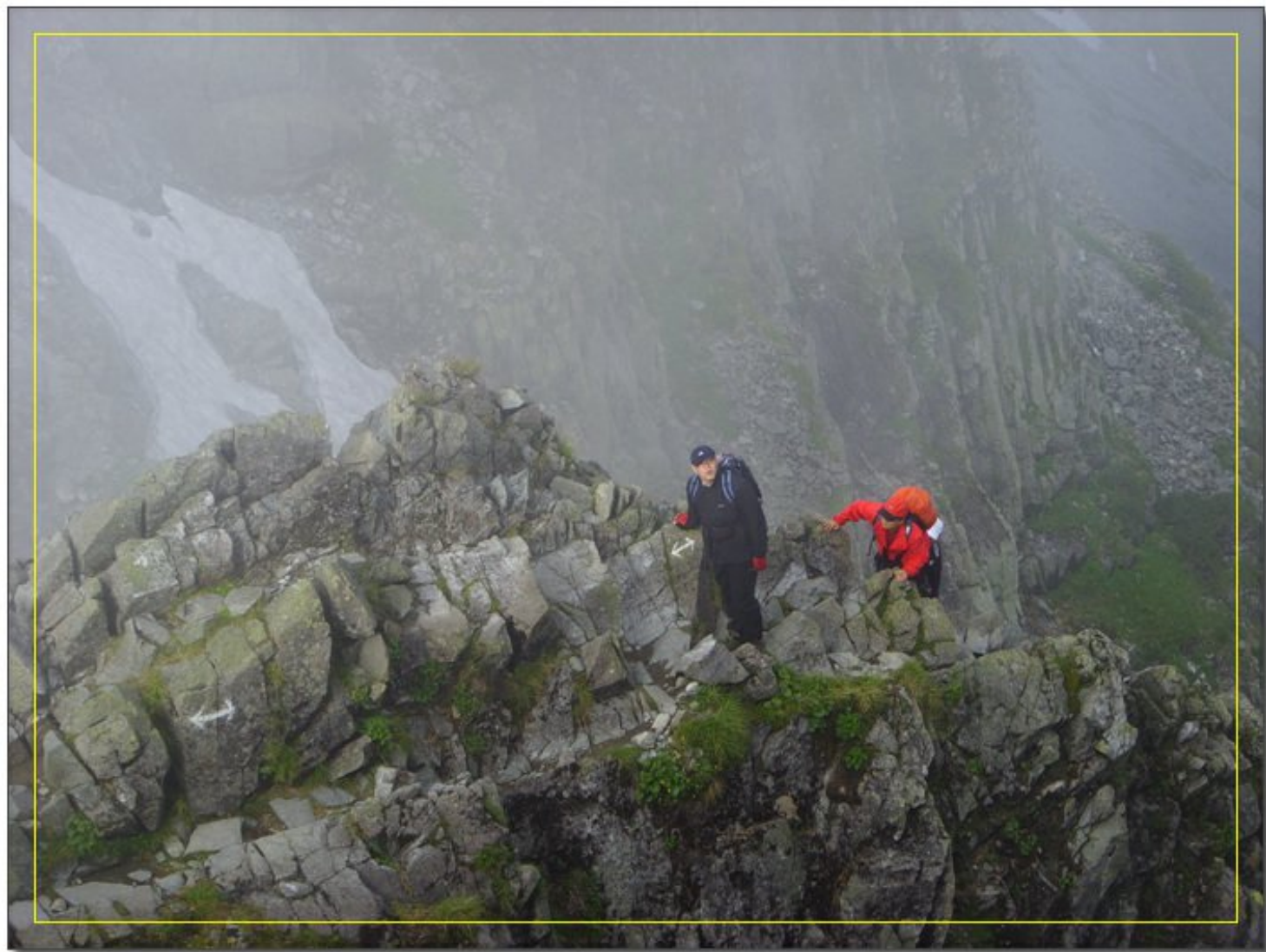
나를 흘깃 쳐다보던 불만투성이 님들이 은근슬쩍 고개를 돌린다.

가라사와다케를 향하는 내내 자연스럽게 걷는 걸음임에도

빨리 진행할 수 없는 험악한 등로로 인해 우리는 그팀의 똥구녁을 쑤셔대는 형상이 내내 지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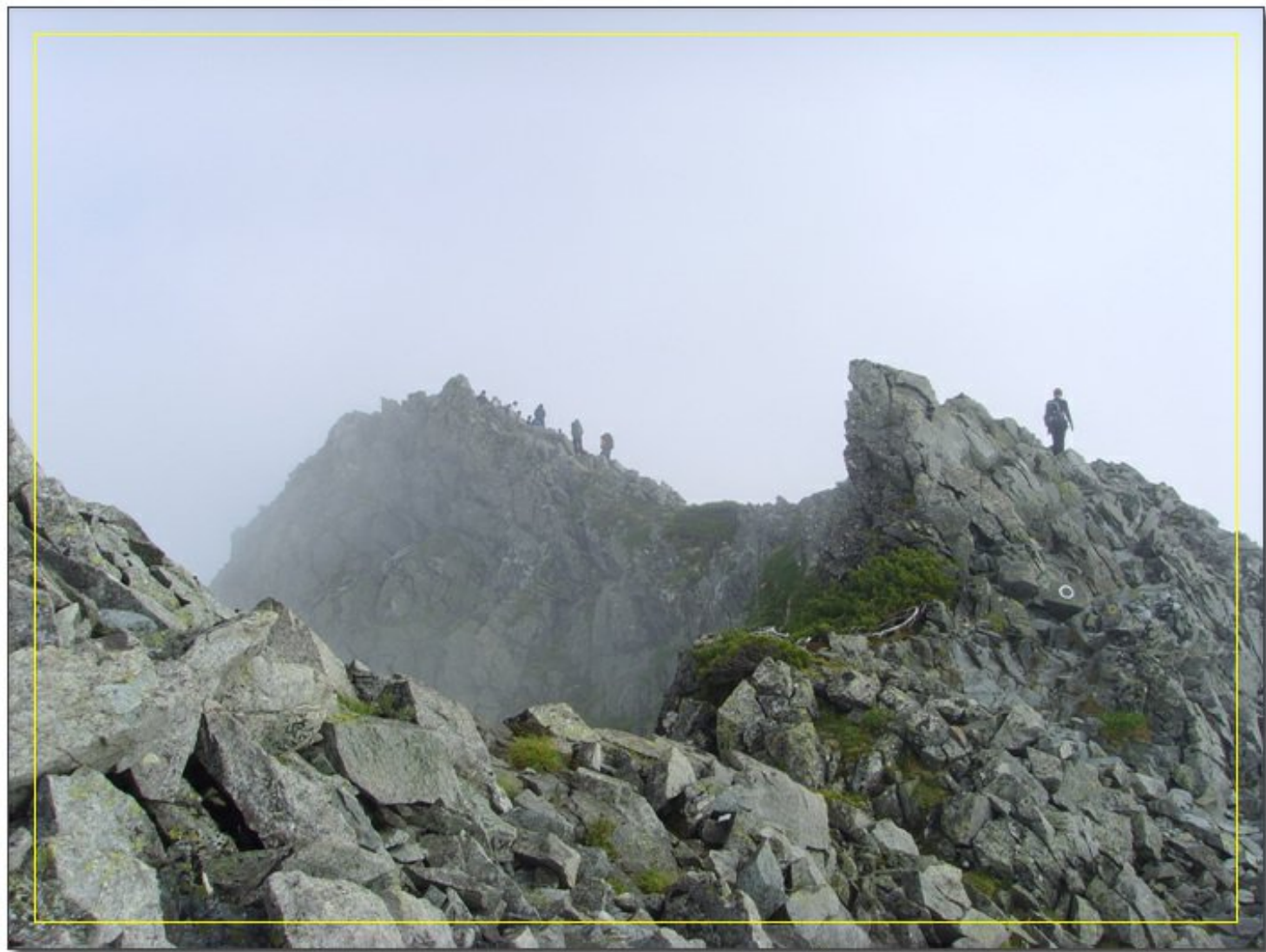
ㅋㅋㅋㅋㅋ

그נם들 가면서 을매나 뒤 꼭지가 뜨거웠을까 ?











가라사와 다케로 향한 암릉의 날등에서
진행방향 좌측의 가라사와 산장이 운무속에 그 모습이 드러난다.
넓게 퍼진 흰눈속에 고즈넉한 산장의 모습이 한폭의 그림이다.
운무속에 펼쳐진 연능을 바라보며 걷는 걸음은
이내 3110 M 가라사와다케에 이른다.

가라사와다케의 정상은 일망무제의 풍광을 자랑한다.
바로 아래의 호다카 산장과 코앞에 우뚝 솟은 3190m의 웅장한
오쿠호다카다케의 위용이 변화무쌍한 운무속에 숨박꼭질을 한다.

오늘 산행은 이젠 끝이다.

지금껏 긴장속에 진행하느라 굳어있던 마음에
여유로움을 찾으며 비로소 모든 역경을 헤치고 무사산행을 해준
우리팀에 대한 고마움과 대견함에 가슴이 뻐뚱하다.

호다카 산장을 내려다 보며

가라사와다케의 정상에서 한껏 여유와 게으름을 피워본다.

아직 한낮으로 굳이 일찍 내려갈 이유가 없기에....

(가라사와 다케에서)



(호다카 산장을 넘어 오쿠호다케 정상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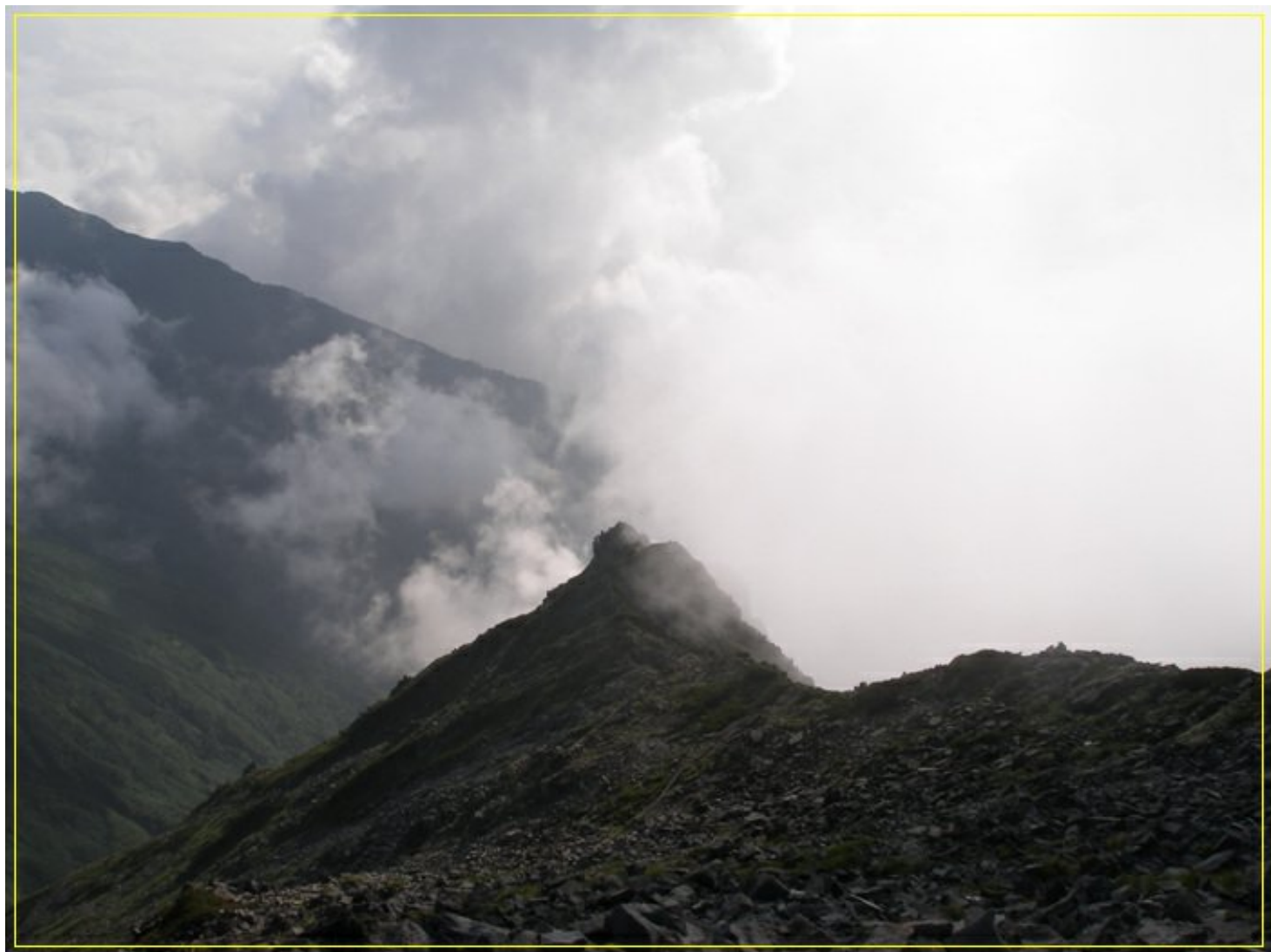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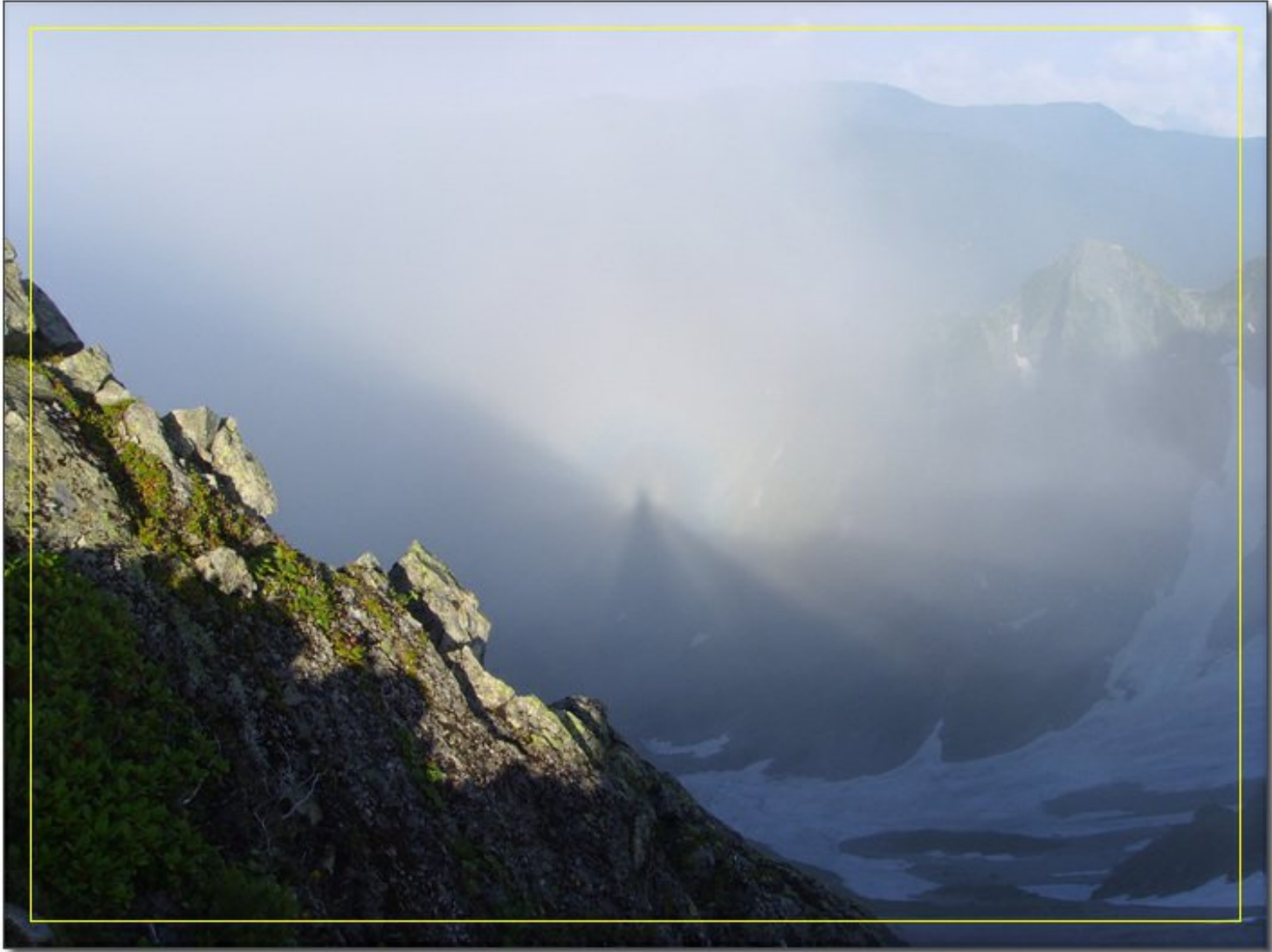


변화무쌍한 운무의
화려한 공연을 관람하는데
거브기님이 갑자기 큰소리로 나를 부른다.
무슨일인가 얼른 뛰어가 보니 묘우진 다케 연봉 아래에 빛의 화려함이 펼쳐진다.
무지개도 아닌 원형의 화려한 레이저 빛이 시간에 따라 색깔과 모양을 변화시키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걸 브로켄 현상이란다.

맑고 깨끗한 하늘과
서늘한 공기가 흐르는 가라사와 다케를 내려서기 싫다.

그러나 먼저 내려선 산우들을 위해 산장의 숙소를 잡아줘야 하기에
역지로 발길을 돌려 너널길의 내림길을 내려 산장에 도착했다.

(브로켄 현상)









가라사와다케와 호다카 정상사이 3050 m 의
안부에 세워진 호다카 산장은 개인소유 산장으로 100년이 넘었다.
예약확인후 숙소를 배정받은 후 지갑을 열어 경비를 지급하려 엔화를 꺼내 보니
이런~!!!
돈이 흠뻑 젖어 있다.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지갑의
제일 깊은곳에 간직한 경비와 여권까지 습기가 침범했다.

호다카 산장도

산행대장을 위한 숙소를 따로 배정해 주는데
야리산장과는 달리 4명이 함께 묵어야 하는 다인실이다.
32명이 함께 묵는 다인실에 비해 그래도 아늑함이 풍긴다.
이번엔 육중한 체중에 힘겹게 산행을 이어온 젊은 청년 통역담당 지열군을 위해
나의 숙소를 양보해 주고 남녀 함께 묵어야 하는 다인실 한켠 아내옆에 나의 보금자리를 잡
았다.

숙소에 짐을 풀자
건조실로 향해 바닥에 주저앉아
조심 조심 엔화를 하나 하나 분리해 널어 돈부터 말려야 했다.
우리팀의 먹고 자야하는 거금의 엔화를 말리는 동안
부지런한 바커스님과 공구리님은 벌써 오쿠호다케의 정상을 다녀와
풍광 끝내줬다며 3190m의 북알프스 최고봉 등정의 감격을 풀어놓는다.
흐미~ 부러운거....
돈은 나중에 말리고 나두 갈걸.....

우선 돈을 수습후
카메라의 본체와 렌즈를 분리해
속을 들여다 보니 본체안에 습기가 잔뜩하다.
대충 훈풍에 말린후 작동해 보나 요지부동 완전 맛이 간 상태라
서비스를 받아야 할것 같다.

그러는 동안 우리팀의 식사 시간이 됐다.
식사후 밖을 나오니 저녁 일몰이 황홀하다.
노을이 저리 아름다우니 내일 날씨는 좋겠지란 바램을 안고
숙소에 들어 오늘 무사산행을 자축하는 우리들만의 파티시간을 갖는다.

각자 1000엔씩 거출해

맥주와 양주를 사고 가져온 안주와

버너로 뜨거운 국까지 끓여 차려논 뒷풀이가 흥겹다.

모두들 오늘 걸어온 기레토구간과 최대의 화재가 된 낙석사건을 되세기며

시간을 보내는데 이젠 취침시간이라 식당의 불을 꺼야 된다는

산장 종업원의 말에 아직도 술이 고픈 주당님들은 세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산장밖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이 술이 무서운 난 슬그머니 숙소에 들어 잠을 청한다.

(호다카 산장의 일몰)









제 4편으로...

산찾사의 해외 트래킹

블로그 산찾사 & 초록앞새 <http://blog.daum.net/lee203kr>

저자 산찾사.이용호

발행일 2014.05.17 21:18:59

 블로그